

리아후나

연차 대회
말씀

새로 발표된
성전 다섯 곳





내 양을 먹이라, 카밀레 코리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하시니 주께서 세 번재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드레이퍼 성전, AI Rounds

솔트레이크 계곡 동남쪽 끝에 위치한 유타 드레이퍼 성전은 교회의 129번째 성전이다.

이 성전은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네 경계를 영원히 넓혀 …… 네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라.”

(모로나이서 10:31)라는 말씀을 시각적으로 일깨워준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179차 반연차 대회 폐회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대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다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모든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가 이 대회가 열리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이곳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리아호나

2 제179차 반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10 다른 사람이 영의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비키 에프 마주모리
- 12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 15 가르치는 일은 삶을 구합니다
러셀 티 오스구토프
- 17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1 하나님의 사랑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5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6 사랑과 율법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9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33 불가능한 일을 시도함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
- 35 조셉 스미스-회복의 선지자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 38 모든 일에 절제함
켄트 디 왓슨 장로
- 40 “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닐 엘 앤더슨 장로
- 43 기도와 속삭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신권 모임

- 47 아버지와 아들: 특별한 관계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50 강력한 신권 소유자가 됩시다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53 소란스러운 청남들을 사랑합니다
최윤환 장로
- 55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59 준비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2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나의 형제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0 완전한 모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3 미래를 대처하는 과거의 방법
엘 톰 페리 장로
- 76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79 굳게 붙드십시오
앤 엠 덤
- 81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
- 84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8 영혼의 안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91 청지기 직분-성스러운 책임
쿠엔틴 엘 쿡 장로
- 95 자라나는 세대에게 요청합니다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 97 마음의 큰 변화를 유지함
데일 지 랜런드 장로

- 100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음
마이클 터 링우드 장로
- 103 모두를 위한 복음의 축복
조셉 더블류 시타티 장로
- 105 도덕적 수양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09 폐회 말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상호부조회 총회

- 110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줄리 비 벅
- 115 모든 여성에게는 상호부조회가 필요합니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 118 벌어진 간격을 조심하십시오
바바라 톰슨
- 121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5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 126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6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27 교회 소식



제179차 반연차 대회 요약

2009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존 엠 매드슨 장로. 폐회 기도: 클레이트 더블류 매스크 이세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챤슨과 리차드 엘리엇;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쪽, 호펜인즈 편곡, 미출판; “오 내 영혼 가슴 깊은 말”, 찬송가 93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2009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폐회 기도: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주 바운티폴 및 파밍턴 지역 스테이크 연합 와드 합창단; 지휘: 마이클 허프;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문 찬송가 41장; “인간이 자유 의지로”, 찬송가 175장; 허프 편곡, 미출판;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허프 편곡, 미출판.

2009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테니스 비 노인슈완더 장로. 폐회 기도: 렌스 비 위크먼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주 웨스트 조던 지역 스테이크 아론 신권 합창단; 지휘: 닐 헨드릭슨;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스워스: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80장, 데 아제베도 편곡, 엠브리오 출판;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Rise Up, O Men of God”, 영문 찬송가 324장, 스타헬리 편곡, 잭맨 출판.

2009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글렌 엘 페이스 장로. 폐회 기도: 엘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스워스: “Sing Praise to Him”, 영문 찬송가 70장;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8장;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찬송가 8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사랑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102쪽, 카든 편곡, 미출판;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자브리스키 편곡, 플럼 출판.

2009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말린 케이 켈슨 장로. 폐회 기도: 더블류 더글러스 썬웨이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켓츠: “In Hymns of Praise”, 영문 찬송가 75장, 머피 편곡, 미출판; “O Divine Redeemer”, 고노드, IRI 출판;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가 66장, 월버그 편곡, 미출판.

2009년 9월 26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줄리 비 벡. 개회 기도: 마사 존슨. 폐회 기도: 캐롤 엠 스티븐스. 음악 제공: 유타 주 웨스트 포인트, 클리어필드, 클린턴, 선셋, 시라큐스 지역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캐시 줄리;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부드 편곡, 미출판(플루트: 낸시 투네와 코리 맥스필드);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웹 성부 편곡, 미출판;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월버그 편곡, IRI 출판.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베냐민 왕의 말씀, 제레미 시 원보그, 복사 금지.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의 연차 대회 장면: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턴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크트 데이비스, 린지 브릭스, 로드 보암, 알파 스무트, 코디 벨, 마크 웨인버그, 웨스턴 콜튼, 애쉬턴 로저스, 새논 노턴; 브라질: 로레나이 아데마 포체토; 독일: 루스 사이퍼스; 미국 미네소타 주: 넬 헥달; 나미비아: 매튜 호건; 노르웨이: 안 에이치 엠 파커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로널드 스미스; 페루 리마: 후안 파블로 아라곤 아마스.



2009년 11월호, 제46권, 제11호
리아호나 042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장: 토마스 에스 문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쿨크,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기쿠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윌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베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파키, 채드 이 패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폴나, 톰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윌렛

선임 비서: 로벨 듀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운,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마커,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코트 엠 웨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 520호, 제 46권, 제 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송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창간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란드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질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09 Vol. 33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

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 순)

닐 엘 앤더슨, 40
달린 에이치 옥스, 2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7
데일 지 랜던, 9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05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1,
55
러셀 엠 넬슨, 81
러셀 티 오스구도프, 15
로버트 디 헤일즈, 29
리처드 지 스코트, 6
마이클 티 링우드, 100
바바라 톰슨, 118
보이드 케이 패커, 43
브레트 에이치 닐슨, 95
빅키 에프 마쭈리, 10
실비아 에이치 얼러드, 115
앤 엠 딕, 79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76
엘 톰 페리, 73
엘 휘트니 클레이튼, 12
엠 러셀 블라드, 47
윌터 에프 곤잘레스, 50
제프리 알 홀랜드, 88
조셉 더블류 시타터, 103
조지 에프 제블로즈, 33
줄리 비 벡, 110
최윤환, 53
켄트 디 왓슨, 38
쿠엔틴 엘 쿨크, 91
태드 알 콜리스터, 35
토마스 에스 문슨, 4, 62, 84,
109
헨리 비 아이어링, 25, 59, 70,
121

주제 색인

가르침, 15
가정, 17
가족, 17, 26, 70, 91
간중, 10, 17, 29, 109, 118
개종, 97, 100
개혁자, 73
감약하는 삶, 38
겸손, 100
경전, 79
계명, 26
권능, 6
기도, 43, 81
덕, 76
도덕적 수양, 105
동정심, 84
모범, 53, 76
모몬경, 50, 88
방문 교육, 110, 121
배움, 15, 55
봉사, 84, 91, 110, 115, 121
분노, 62
분별, 81
사랑, 17, 21, 26, 53, 70, 84
상호부조회, 110, 115, 118,
121
선교 사업, 4, 50, 73, 95, 103
선지자, 29
선택의지, 105
성신, 6, 10, 29, 43
성실, 76, 105
성약, 103
성전, 4, 73
소망, 21, 88
속죄, 12, 33, 40
순수함, 91
순중, 21, 79, 100, 109
신권, 50, 62
신뢰, 47

신성한 본질, 118
신앙, 59, 97, 110
신회, 35
아론 신권, 59
아버지, 47
안전, 79
여성, 115
영감, 6, 10, 15, 43, 81
영생, 33
예수 그리스도, 29, 38, 70, 109
예언, 95
완전, 33
외설물, 66
용서, 40
의사소통, 47
인내, 55, 88, 97
일, 55
자라나는 세대, 95
자애, 91, 105
자제, 62
절제, 38
제자의 특성, 21
조셉 스미스, 35
죄, 12
준비, 59
지도력, 53
짐, 12
책임, 91
청남, 47, 53
청녀, 118
청지기 직분, 91
하나님 아버지, 29
하나님의 사랑, 21, 26
합당성, 95
확신, 59
회개, 12, 40
회복, 35, 103
후회, 62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회원들이 지나치게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고도 성전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던의 아름다운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3월에 있었던 유타 드레이퍼
성전 헌납과 가장 최근인 8월에 있었던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헌납 사이에는 두 성전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아름다운 문화
행사가 이틀 밤에 걸쳐 열렸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상연되었고, 유타의
풍부한 유산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틀 밤 동안 이 잔치에 참여한
청소년은 대략 만사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회원들이 지나치게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고도 성전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회원
중 83퍼센트는 성전으로부터 320킬로미터
거리 내에 살고 있습니다. 83퍼센트란 수치는
전 세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성전은
130개이며, 성전 건축이 발표되었거나 시공
중인 성전은 열여섯 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 구매가 진행 중인 다섯 개의 성전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몇 달이나 몇 년 안으로
유타의 브리검 시티, 칠레의 콘셉시온,
브라질의 포르탈레자, 플로리다의 포트
러더데일, 일본 삿포로에도 성전이
건립됩니다.

매년 성전에서는 사랑하는 고인들을 위해

사 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79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반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발전된 과학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여러분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 단상 위에서 울려 퍼질
총관리 역원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통신,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영어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92개 언어로
저희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올해 4월 우리가 만난 이후 유타 주 사우스



수백만 번에 이르는 의식이 집행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성실하게 의식을 집행합니다.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이 성전 봉사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속박하는 사슬이 풀리고, 그들을

둘러싼 암흑이 깨끗이 사라지며,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되어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 곳에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 듣고, 의무를 다 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¹

형제자매 여러분, 179년 전에 조직된 이래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의 깊게 실천하고, 올바른 원리를 적용하고, 마음속에 드는 느낌에 민감해질 때, 영적인 인도를 얻을 것입니다.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재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새로운 개종자와 친구가 되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하여 그들이 편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들 동안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들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도움과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나눌 말씀에 관해 영감을 받았습니. 귀 기울여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조셉 에프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16년, 10월, 6쪽.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그 모범을 따름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도를 얻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기에 그런 방법으로 인도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현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헤쳐 나갈 때 영의 인도에 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개인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를 받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원리에 따라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대화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피해야 할 숨은 장벽은 무엇입니까?

존 테일러 회장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약 40년 전에 조셉 스미스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테일러 형제님, 성신의 은사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그 영의 영향력을 따르십시오. 그 영이 형제님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점차 형제님에게 계시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조셉은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하루 종일 나 자신을 그분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필멸의 생애 동안 겪을 어려움과 결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성신을 통한 영적인 인도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힘,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저는 영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능력을 지금 즉시 통달하게 해 주는 간단한 공식이나 기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여 그 신성한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 없이 단지 구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약해지고 그분들께 의존하기만 할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십니다. 영의 느낌을 인식하고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벽차 보이기만 하던 과제가 점차 쉬워질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경험을 하고 성공을 거둘 때, 보거나 듣는 것에 의존하기보다 느낌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성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영감, 즉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 즉 그 일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옵니다. 니파이가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파이는 영감과 힘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적인 인도를 주십니다.

영적인 인도를 얻는 방법을 배운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스페인어 지부의 신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겸손한 멕시코인 신권 지도자 한 분이 공과 교재에 담긴 복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이 무척 소중하게 여기는 원리들을 정원회 회원들과 간절하게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원리들이 모임에 참석한 형제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구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가르치는 원리에 대한 애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순수한 의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그 방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겸손한 교사가 가르친 원리는 제 마음속에서 부풀어 저는 개인적인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 지역에서 제가 수행하는 임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답을 구하던 저의 간절한 노력에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영감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해 둡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더 효과적인 주님의 종이 되는 데 꼭 필요한 고귀한 진리를 얻습니다. 그러한 영적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축복사의 축복과도 같이 성스러우며 저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침과 인도, 그리고 조건이 따르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더 유익을 얻도록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에 저희 워드의 주일학교 공과에 참석했는데,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한 교사가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과는 앞서 말씀드린 신권회 공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교사는 공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참조 성구와 특이한 예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교사가 자신의 방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감명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에게는 그 겸손한 신권 지도자가 했던 것처럼 복음 원리를 전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다시 강한 영감이 저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주님의 손에 든 도구로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것처럼 흘러 드는 영감이 매우 개인적이어서 주일학교 공과 중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저는 좀 더 사적인 장소를 찾아가서 생각과 마음속에 쏟아지는 느낌을 최대한 충실하게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나서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받은 느낌을 되살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그 기록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영으로 가르침 받았다고 생각한 것을 주님과 함께 다시 검토했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 왔을 때, 저는 주님의 인도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주님께 이렇게 여쭙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제가 더 받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까?” 저는 더 많은 영감을 받았고, 느낌을 기록하고, 상고하고, 확인 받기 위해 다시 기도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또다시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라고

여쭙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었습시다. 가장 성스러운 경험을 마쳤을 때 저는 인간이 이 생애에서 얻고 싶어하는 가장 고귀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인도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느낌에 반응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에 느낀 그 고귀한 인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하는 대화에 관한 몇 가지 참된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 느낌에 반응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서 영으로부터 오는 가장 고귀하고 개인적인 인도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또는 구하지 않았더라도 꼭 필요한 순간에 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빠져 있지만 모르고 있을 때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영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실천하면 영적인 인도와 함께 오는 느낌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도가 올 때, 때로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의 영향력은 분노나 증오, 걱정, 두려움, 또는 교만과 같이 강렬한 감정에 묻히거나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마치 할라페노 고추를 먹는 동안 포도의 달콤한 맛을 느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맛이 공존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이와 유사하게 강렬한 감정은 성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압도해 버립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고, 자아를 타락시키며, 다른 죄들을 짓게 합니다. 영성과 양심과 이성을 둔화시키고, 현실에 눈멀게 하며, 전염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몸과 영에 해를 끼칩니다. 죄는 영적으로 부식성이 있습니다. 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죄는 회개와 의로움으로 극복됩니다.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영적인 대화의 기본 법칙을 어기도록 교묘히 유혹하여 영적인 대화를 못하게 하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외설물이 발휘하는 중독의 힘을 사용하여,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제약하는 데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갇아먹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모든 형태의 외설물은 큰 슬픔과 고통, 비탄을 야기하며 결혼 생활을 파괴해 왔습시다. 그것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영향력 중 하나입니다. 인쇄물이든,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한 것이든, 외설적인 가사나 음란 전화, 혹은 껌박거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한 것이든, 외설물은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중독성이 크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루시퍼의 강력한 도구는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이 유혹적이고 벗어나기 힘든 그물에 걸려들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에 중독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그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양상은 매우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자극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하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합리화 됩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은 시험 삼아 해 보다가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 더욱 깊이 빠져들고, 급기야는 함정에 갇혀 몹시 부도덕하고 중독적인 습관 때문에 생기는 사악한 통제력 아래에 놓이고 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무시무시한 외설물에 손을 뻗는 것은 무절제한 이기심의 표출입니다. 한 남자, 특히 신권 소유자가 그런 가증스러운 행동이 여자,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영적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을 받은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 [악마는]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 이같이 [그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³

만약 여러분이 외설물이라는 덫에 걸려 있다면, 바로 지금 완전히 빠져나오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기도도 도움과 원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인내하고 순종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 여러분, 외설물에 중독되는 것은 매우 이른 나이인 청소년 시기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들은 이러한 악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외설물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게,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하십시오.

표준의 토대 위에서 있고 그 표준을 항상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극악한 죄의 공격을 점차 물리치고 외부 사람의 영향력을 스스로 억제하는 사람에게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에는 회개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거기에 심어지는 회개의 씨앗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능력이 완전해질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주의 깊게 실천하고, 올바른 원리를 적용하고, 마음속에 드는 느낌에 민감해지면 영적인 인도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신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일반적인 느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느낌이 아주 분명하고 명백해서 그 내용을 받아쓰기를 하듯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⁴

여러분이 영혼의 열의를 다하여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인생에서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이 원리가 참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원리를 개인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생에서 커다란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존 테일러, *The Gospel Kingdom*, 지 호머 더햄 편집(1943년), 43~44쪽
2. 니파이전서 3:7
3. 니파이후서 28:21
4. 교리와 성약 8:2 참조.

다른 사람이 영의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비키 에프 마주모리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낀 성신의 영향력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영의 느낌에 더 친숙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선교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가 동반자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러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한 가정 복음 교사가 며칠 전에 이미 방문했던 가족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청년이 학교 친구의 파티에 참석할 날을

기대하면서도 이번에는 집에 있어야겠다고 느낍니다.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던 사람의 집 문을 선교사들이 어떻게 알고 두드렸을까요? 가정 복음 교사는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년이 자신의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성신의 영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니다.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경험하며, 매일 생활 속에서 영의 인도를 받고 싶어합니다.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려 할 때, 성신을 이해하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 주고, 간증을 나누며,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는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리를 이해함

교리와 성약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에서든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¹

우리가 공과나 선교사 토론 또는 가정의 밤에 성신에 관한 교리를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에] 선악을 분별하게”² 되지만 지속적으로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는 올바른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 안수례를 함으로써 받게 됩니다.³

합당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⁴ “쉬지 [않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해야만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⁵

경전과 선지자들은 항상 성신을 동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⁶ 이노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 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⁷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홀연히 여러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성신의 영향력을 “평안과 희망, 기쁨”이라고 묘사하며, “저는 거의 항상 영감을 느꼈습니다.”⁹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묘사는 이제 막 성신을 받은 여덟 살짜리 남아아이가 한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건 꼭 햇살 같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간증 나누기

처음부터 이런 “햇살”을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경에는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일부 충실한



레이먼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¹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낀 성신의 영향력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영의 느낌에 더 친숙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기에 너무 성스러운 경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느낀 영에 대해 간증을 나누다면 이런 속삭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 좀 더 쉽게 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 중 첫 번째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덟 살이었던 저는 침례를 받을 때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느낀 것이라고 흥뻑 찢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을 받을 때에도 무언가 심오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성신의 은사를 받고 기쁘기는 했지만 몇 분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열린 금식 간증 모임에서야 비로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 형제님이 일어나서 교회 회원이 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며 간증하셨고, 저는 따뜻함이 홍수처럼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겨우 여덟 살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제게 평화가 깃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영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간증 모임과 연차 대회가 그런 장소에 속합니다. 물론 성전도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매일 가정에서,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도록 권고 받는 한 가지 이유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삶 속에 영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종종 고요하고 작은 음성¹¹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¹²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 개인용 전자 기기에 매달려 생활하지 않는 대신 매일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개인적인 계시를 주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며, 확신과 위안을 줄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을 영이 거룩하게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공과를 하거나 모임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의 속삭임이 회원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원들이 영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게 한다면, 그들의 삶에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¹³

한 햇님반 교사는 담요를 덮을 때 느끼는 편안하면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영이 주는 느낌과 비슷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담요를 둘러 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참석한 한 어머니도 그 공과를 같이 들었는데, 여러 달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는 교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린 딸과 초등학교에 참석한 그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저활동 회원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공과를 듣고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어머니는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과 평안을 느끼면서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한 담요로 자신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의 느낌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¹⁴과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들”¹⁵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인식하고, 매일 복음에 더 충실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속삭임을 따른다면 이러한 은사를 계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증거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¹⁶

제가 청년 시절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을 때, 이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영이 증거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중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찬식 모임에서 이 노래를 여러 번 불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첫 소절부터 영을 느꼈습니다. “말일의 영광이 내림하누나”¹⁷ 부분을 부를 때, 저는 그 노랫말이 멋진 가사 이상임을 알았습니다. 그 가사는 아름다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성신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절정의 시기에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진리와 다른 모든 복음 진리는 성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속에 굳건한 간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68: 25.
2. 모로나이서 7:16.
3. 신앙에 충실함(2004년), 83쪽 참조.
4. 할라맨서 4:24.
5. 교리와 성약 121:45~46.
6. 교리와 성약 8:2.
7. 이노스서 1:10.
8.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3:381.
9. 헨리 비 아이어링, “Gifts of the Spirit for Hard Times”, *Ensign*, 2007년 6월호, 18쪽.
10. 제3니파이 9:20.
11. 열왕기상 19:12; 니파이전서 17:45; 교리와 성약 85:6 참조.
12. 시편 46:10; 또한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13. 리차드 지 스코트,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중고 교육자들에게 전한 말씀, 1998년 8월 11일), 3쪽;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48쪽.
14. 교리와 성약 36:2.
15. 니파이후서 32:3, 5.
16. 니파이후서 31:18 참조.
17.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회장단

짐은 우리가 덕을 실천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를 줍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새벽녘에 높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페루 푸스코의 좁다란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길을 따라 걸던 그 고장 주민들 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체격이 크지는 않았지만 땀감을 수북이 담은 커다란 포대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포대가 그 남자의 키만큼이나 커 보였고 무게도 그 사람만큼은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대 밑으로 밧줄을 감았고 맨 뒤에 있는 줄을 이마에 둘러서 포대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머리에 두른 밧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 들지 않도록 이마에 천을 대고 그 위로 밧줄을 돌렸습니다. 그는 짐

무게에 눌러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조심조심 힘들게 걸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내다 팔 땀감을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하루에 두세 번 마을을 왕복하며 이처럼 힘들게 무거운 짐을 날랐을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힘겹게 길을 따라 걸던 그 남성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게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런 짐을 얼마 동안이나 계속 나를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온갖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어떤 것은 가볍지만 어떤 것은 가혹하고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힘에 부칠 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일 고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에 버거워합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단히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괴로우며 심신을 지치게 하는 그런 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짐은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짐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이따금씩 질병, 신체 장애, 허리케인, 지진 등은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위험은 대비할 수 있고 때때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누구든 이러한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아주 무거운 짐들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학대와 중독은 순결한 가족들이 사는 가정을 지상의 천국과 동떨어진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 잘못된 전통, 억압과 범죄 행위 때문에 삶의 여정 곳곳에서 무거운 짐에 눌린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험담이나 불친절과 같이 조금 덜 심각한 악행들도 쓰디쓴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과 결점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문제를 낳으며 우리 자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가장 힘든 짐은 죄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따르는 깊은 후회와 고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겪어야 될 짐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 혹은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 때문에 생긴 어떤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독특한 경험들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역경과 고난이 깊어지기 아무리 힘겹더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들]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잠시 뿐”인 시간이 얼마나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잘” 견뎌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짐은 우리가 덕을 실천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를 줍니다. 짐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²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짐은 축복이 됩니다. 종종 그러한 축복은 알아보기 힘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과 노력과 신앙이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첫째, 아담은 “땀[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것”³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은 내려 놓을 수 없는 짐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교훈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 둘째, 엘마는 가난한 조램인들의 궁핍과 “고난이 진실로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과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⁴을 보았습니다. 엘마는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으므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⁵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시련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셋째, “[그들의] 전쟁이 심히 길었[기]” 때문에 많은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습니다.”⁶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활개치는 현대판 개다이엔톤 도적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사회 혼란에서 피할 수 있는 하늘의 피난처를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 넷째, 조셉 스미스는 적들의 손아귀에서 수년 동안 겪은 끔찍한 일들이 “[그에게] 경험이 되고 ……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 때문에 겪는

고통은 자신의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뼈아프지만 값진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짐을 견디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⁸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은 침례
 성약은 우리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⁹ 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 충실히 침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짐까지도 덜어 줄 수 있습니다.¹⁰ 타인을 돕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았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¹¹

그 모든 일을 겪을 때, 구주께서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마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노아 왕의
 군대를 피해 달아났고 힐렘이라는 땅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건물을 지으며 번영했습니다.¹²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레이펜인
 군대에게 속박되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¹³ 하지만 그 구조는 즉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그들에게 부역을 지우고,
 그들 위에 감독자들을 두었습니다.”¹⁴ 기도를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도¹⁵ 엘마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¹⁶
 선하게 생활하고 침례 성약에 순종했기
 때문에¹⁷ 그들은 점차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는
 내일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하신지라.”¹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속죄를 이루시는 동안

그분은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셨습니다.”¹⁹ 그리스도는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으셨습니다.”²⁰
 회개를 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용서,
 그리고 짓눌린 양심에서 해방된 안도감이
 구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가 자비를
 얻기”²¹ 때문입니다.

페루에서, 거대한 빨간나무 포대를 등에
 지고 나르느라 등을 구부리고 힘겹게 걸어오던
 그 사람이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에서 삶의
 짐으로 고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성약을 지킬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양심의 평화와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²² 우리가 주님의 모든
 뜻에 인내심을 갖고 기쁘게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7~8.
2. 모사야서 3:19.
3. 모세서 4:23, 25.
4. 엘마서 32:6.
5. 엘마서 32:13.
6. 엘마서 62:41.
7. 교리와 성약 122:7.
8. 갈라디아서 6:2.
9. 모사야서 18:8~9.
10. 마태복음 10:39; 11:28~30; 모사야서 2:22 참조.
11. 마태복음 25:37~40 참조.
12. 모사야서 23:5, 19~20 참조.
13. 모사야서 23:23~26 참조.
14. 모사야서 24:9.
15. 모사야서 24:10~11 참조.
16. 모사야서 24:12.
17. 모사야서 18:8~10; 24:13 참조.
18. 모사야서 24:14~16.
19. 엘마서 7:13.
20. 교리와 성약 19:16.
21. 엘마서 32:13.
22. 모사야서 4:3; 엘마서 36:19~21 참조.

가르치는 일은 삶을 구합니다

러셀 티 오스구토프
본부 주일학교 회장

우리는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일을 하도록 권유하며, 분명히 올 축복에 대해 약속합니다.



선 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큰 아들과 했던 한 전화 통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은 “아버지, 더 통화하고 싶지만 이제는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 생명을 구하러 가야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합니다. 아들이 질병을 적절히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제공하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들은 것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 실천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Conference Report, 1902년 4월, 86쪽;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49쪽 참조; 디모데전서 4:16)

제 아들은 의학지식을 나눔으로써, 교회의 선교사와 교사는 복음지식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구합니다. 영을 구하고 영으로 가르치는 선교사와 교사들은 적절한 원리를 가르치고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하며 약속된 축복에 대해 간증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최근에 열린 훈련 모임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의 세 가지 간단한 요소를 전하셨습니다. 첫째는 핵심이 되는 교리이고, 둘째는 실천하라는 권유이며, 셋째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는 선교사들이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권유하며,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지도서는 부모와 교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지도서가 복음 교육에서 하는 역할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가 선교 사업에서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지도서로 준비하여 가르치면서 영을 구하고 활용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어린 시절 그분의 주일 학교 교사였던 루시 게르치 자매님에 대해 들려 주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비이기적인 봉사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던 게르치 자매님은 반원들이 파티를 위해 모은 기금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반원의 가족에게 전해 주자고 했습니다. 몬슨 회장은 게르치 자매님이 그 일을 권하시면서 “교재를 덮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리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76쪽[2007년 2월 10일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게르치 자매님은 분명히 교재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했지만, 영감이 왔을 때 교재를 덮고 가르친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몬슨 회장이 가르치셨듯이 “복음을 가르치는 목표는 …… 반원들의 머릿속에 ‘정보를 쏟아 붓는’ 것이 아닙니다. …… 그 목표는 개개인이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뒤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호, 107쪽)

모로나이는 선지자 조셉에게 나타났을 때 회복의 핵심 교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전하고는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33 참조) 모든 부모와 복음 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입니다. 게르치 자매님과 모로나이처럼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지자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일을 하도록 권유하며, 분명히 올 축복에 대해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모임을 하러 느긋한 마음으로 교회로 걸어간 어느 날이 생각납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그곳에 부모님들이 모두 와 계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그만 대사를 외우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의자 앞에 선 채로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 앉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교회 모임에서 다시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한 동안은 그 결심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초등학교 지도자이신 리디아 스틸먼 자매님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다음 주에 짧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말씀 같은 건 안 해요.”라고 말했더니, 자매님은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테니 한번 해보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뿌리쳤지만 저에 대해 커다란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권유를 물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훌륭한 자매님은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부름이 오면 아무리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자매님은 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영감 받은 교사가 제 삶을 구했습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피터슨 형제라는 것 귀환한 선교사가 주일 학교 반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주마다 그분은 칠판 왼쪽 아래 모서리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를 향하는 커다란 화살을 그리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칠판 가장 위쪽에 “높은 곳을 겨누라”라고 적으셨습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치건 간에 그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도달하라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 화살과 높은 곳을 겨누라는 세 단어는 공과 내내 지속되는 권유였습니다. 피터슨 형제님은 제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며, 직업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피터슨 형제님은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이 있었고, 그분의 목표는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뒤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제 삶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세에 저는 부름을 받아 타히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프랑스어와 타히티어, 이 두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느 쪽 언어도 잘 배우지 못해 아주 실망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말하려 하면 사람들은 타히티어로 대답했고, 타히티어로 말하려 하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숙소의 세탁실을 지나쳐 걷고 있을 때,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은발의 한 타히티 여성이 보였는데 제게 돌아오라고 손짓하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투푸테아타 모오였습니다. 모오 자매님은 타히티어만 썼고, 저는 영어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타히티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니 매일 세탁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들러서 그분이 다림질을 하는 동안 함께 타히티어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 자매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분은 제가 두 가지 언어를 다 배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오 자매님은 제가 타히티어를 배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첫째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선교 사업뿐만 아니라 제 삶도 구해 주셨습니다.

스티븐 자매님과 피터슨 형제님과 모오 자매님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저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니, 이러한 것들은 ……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든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1~42) 그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장식하는 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신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

이런 훌륭한 교사들에게 고무되어 저는 제 자신의 가르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니다.

1. 교사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으로 생각하는가?
2. 준비를 하고, 삶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3. 회복의 핵심 교리에 초점을 맞추는가?
4. 내가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느끼는가?
5. 영감이 오면 교재를 덮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리게 하는가?
6.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일을 행하라고 권유하는가?
7. 내 권유를 거절하기 힘들다고 느낄 만큼 그들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 주는가?
8.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약속된 축복을 그들이 인식하도록 돕는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통로를 열어 줍니다. 어느 누구도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31:6)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조셉은 진리를 배운 다음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 경륜의 시대를 열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조셉은 한 가지씩 질문했고, 하늘을 통해 응답을 받았으며, 그런 다음, 자신이 배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계신 주님의 대변자이시며, 조셉처럼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가르치는 것은 삶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성실하게 배우고, 실천하며, 사랑할 때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18 33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가족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교리와 성약 93:40~50 참조)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에 나오는 문구인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50절)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동시에 마음으로도 느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안 1: 사랑을 표현하고 보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유려하거나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를 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모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끊임없이 더 많이 실천하며, 향상되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모두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잘 알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우리는 짐작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친절할 말을 하거나 애정을 보인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것을 생략한다면 몹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6쪽)

가끔 성찬식 말씀이나 간중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아이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런 드물고 사적인 대화를 교회에 앉아 청중들 가운데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부디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들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사랑의 선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라면 참으로 그 가장은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랑과 적절한 행동의 관계는 경전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라고 가르치신 말씀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길을 항상 행하는

것으로(신명기 19:9 참조) 증명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모사이아서 4:30 참조)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그러한 사랑은 힘의 근원이며 두려움을 쫓아냅니다.(요한1서 4:18 참조) 모든 인간은 그러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제안 2: 간증하고 실천하십시오

또한 성신이 증거하여 알게 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증함으로써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간증은 유려하거나 길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것에 대해 간증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신성과 실재하심, 위대한 행복의 계획, 그리고 회복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간증을 나눌 수 있고, 또 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마지막으로 간증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간증한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가족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모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러워 할 수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끊임없이 더 많이 실천하며, 향상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하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심 어린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증을 언제나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간증과 적절한 행동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는 구주께서 커틀랜드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이 너희에게 증거하는 바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가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되”(교리와 성약 46:7)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힘있게 선언되고 실천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간증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말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간증은 성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증거하심에 따라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2 참조) 우리가 혼계하거나 타이르거나 단순히 흥미로운 경험을 나누는 대신 진리를 선언할 때 성신은 우리 말이 참되다는 확인을 해 줍니다. 순수한 간증의 힘(앨마서 4:19 참조)은 세련된 언어나 효과적인 발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간증은 신화의 세 번째 일원인 성신이 전해 주는 계시에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서 끊임없는 간증의 힘과 영향력을 느끼는 것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간증은 신앙을 강화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밝힙니다. 간증에서 영원한 관점과 지속되는 평안이 비롯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가정에서 더 부지런해지고 가정에 더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제안 3: 한결같아야 합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 가족도 여러분이 이미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족기도와 경전공부를 하고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때때로 아내와 저는 영적으로 필수적인 일들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는 중에 종종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이 건드려요!” “제가 날 계속 쳐다봐요!” “엄마, 형이 내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진지한 기도는 가끔 킁킁거리거나 소리와 손장난으로 방해 받았습니다. 활동적이고 부산스러운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가정의 밤 공과가 늘 효과적인 가르침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베드나 자매와 저는 우리가 그리도 힘들게 노력하여 키워주려는 의로운 습관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영적인 결과로 즉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인이 된 저희 아들들에게 가족기도와 경전공부, 가정의 밤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마 특정한 기도나 경전공부 시간, 특별히 의미 있었던 가정의 밤 공과를 들으면서 그것이 영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한결같았다는 점을 말할 것입니다.

베드나 자매와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정한 공과 내용이나 성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하거나 기도하거나 배울 때마다 그러한 결과가 때때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의도와 노력이 한결같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아름다운 밑발 그림이 있습니다. 한 획 한 획으로 찍힌 무수한 붓 자국이 모여서 그림을 완성시켰는데, 각 붓 자국을 따로 보면 별로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림에 가까이 서서 본다면 이 그림은 서로 관련도 없어 보이고 예쁘지도 않은 노랑, 금색, 갈색 물감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 각 붓 자국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광활한 밑발이 됩니다. 평범한 붓 자국 하나 하나가 모여서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매일의 가족기도, 가족 경전공부와 가정의 밤은 우리 영혼이라는 그림에 겨우 한 획을 찍는 붓 자국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랑, 금색, 갈색 물감 자국이 서로를 보완하며 인상적인 걸작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을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한결같은 자세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가정에서 더욱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는 핵심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한결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강하게 꾸짖으신 경우 중 상당수는 위선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마태복음 23:3) 이 강력한 훈계는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라”, “간증을 말하고 실천하라”, 그리고 “한결 같으라”라는 가르침을 함께 놓고 볼 때 더 명료합니다.

우리 생활 속 위선은 가정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드러나며 가장 심각한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종종 위선을 인식하는 일에서 가장 예리하고 민감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대중 앞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대한 일의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충실함과 순종이 결여되어 있으면서 대중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대한 일의 기초를 침식시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16)라는 계명은 우리 각자의 위선을 가장 정확하게 겨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욱 더 한결같아야 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디모데전서 4:12)

주님으로부터 도움과 권능을 구하면 점차 우리 말과 행동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좁힐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사이에 난 차이를 좁힐 수 있으며, 간증을 말하는 것과 그것을 굳건히 실천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성실하게 배우고, 실천하며, 사랑할 때 가정에 더 부지런해지고 더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간증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영원히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더욱 부지런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모든 배우자, 모든 자녀, 모든 부모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 받으며, 강한 간증을 말하고 간증으로 고양되고, 작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더욱 한결같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절대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참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사랑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사랑은 신앙의 잣대요, 순종을 불러오는 영감이며, 제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회원들을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정직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서 단정한 선교사, 사랑 넘치는 가족,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다정한 이웃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또는 매주 일요일 세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형제 또는 자매로 불리는 교회, 속삭이는 시냇물과 튀긴 강냉이가 열리는 나무와 그리고 햇빛이 되고 싶은 아이들에 대해 노래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나타내는 어떤 속성들로 먼저 알려지고 싶습니까? 6개월 전에 연차 대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결과로 얻은 몇 가지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가?

구주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은 심오한 선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¹ 이것은 참된 제자가 된다는 의미의 정수입니다. 제자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²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악의가 없더라도 신성한 원리를 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추가 사항 때문에 신성한 진리의 순수성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것은 영감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좋은 생각, 그 사람 자신에게는 정당할 수도 있는 어떤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기대치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영원한 원리가 “좋은 생각”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주께서 지상에 사셨을 때 그 시대

종교 “전문가들”을 비난하신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율법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무시한 채 사소한 수백 가지에만 얽매이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³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방향을 가르쳐 줄 불변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구주께서 그 길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주저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⁴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⁵는 둘째 되는 계명은 우리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휘장의 양쪽 편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이 가정과 교회 부름,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개인 및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치료합니다. 사랑은 가족, 지역 사회, 국가를 결속시키는 끈입니다. 우정, 관용, 공손함과 존경을 일으키는 힘이며, 분열과 증오를 극복하는 원천입니다. 사랑은 비길 데 없는 기쁨과 하늘에서 오는 희망으로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해 주는 모닥불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혼란이 사라지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더욱 더 기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신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심지어 더럽힌다 할지라도 그분의 권능과 영광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향력과 통치권은 우리의 인정이나 승인, 경탄과 관계없이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며,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과 관련된 엄청난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유산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결정짓는 특성입니다.

태초부터 사랑은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무거운 짐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담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괴로움은 그릇된 것을 사랑한 데에서 생겼다는 점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반면, 선을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멸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시 아래 위대한 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가슴 벅찬 기쁨으로 채워 주시고,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 평화를 축복하여 빛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귀중한 진리로 마음을 적셔 주시며, 고난에 힘겨워 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의로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고 무한한 삶을 약속하셨고 충만한 기쁨을 받을 때까지 지식과 영광 속에서 진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한 사도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⁶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절실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랑에 무한대를 곱하십시오. 그 값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⁷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⁸ 저는 그분이 우리가 성에 살든지 오두막에 살든지, 잘생겼는지 수수하게 생겼는지, 유명하든지 잊혀진 사람이든지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방향을 잃거나 나침반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형언할 수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결점이 있고, 거부당하고, 서투르고,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심지어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오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슬픔, 실수에 상관없이 무한한
애정으로 감싸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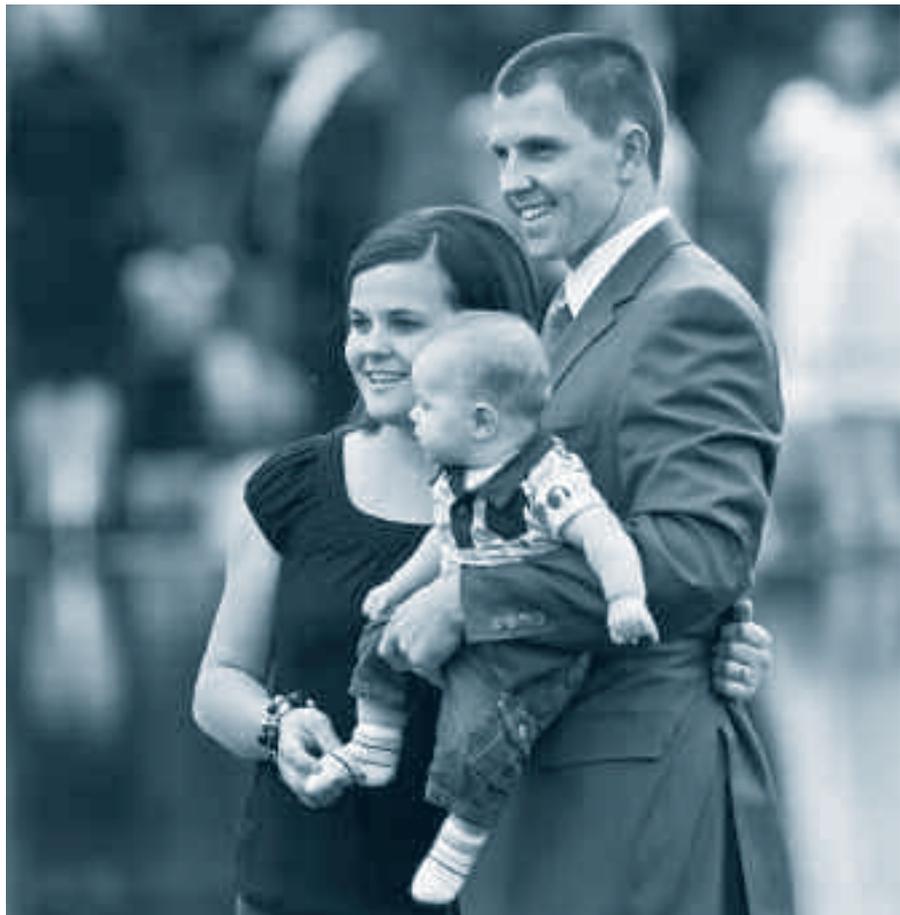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¹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¹¹ 그러나 하늘 집과 이
필멸의 생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영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전을 펼치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यो 나를 만나리라.”¹²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거나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¹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크게 광고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¹⁴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며 독려합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진지하게
소망한다면 의롭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
피 곧 ……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
……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¹⁵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종종
실수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때때로 합당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사는 첫 번째
단계는 그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후기에
그분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선택하고,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겨우
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습관이자
진정한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연차
대회 동안, 그리고 이후에 이 대회에서 주어진
말씀을 공부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전을 방문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연의 축복과 아름다움 속에서 영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찬송가
가사에서, 어린 아이의 웃음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거룩하게 되면 불신앙을 극복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복된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숭고한 빛을 따라 생활하면 그 빛은 우리를 어둠 밖으로 이끌어 내어 더 큰 빛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더 큰 빛은 행언할 수 없는 성령의 성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휘장은 얇아질 것입니다.

사랑은 왜 큰 계명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행복의 계획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 계획은 세상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실현됩니다.¹⁶

모든 계명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원리¹⁷라고 가르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명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배운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은 평범한 행동을 비범한 봉사로 만듭니다. 단순한 말들을 거룩한 경전으로 바꿉니다.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마지못한 순응을 축복된 헌납과 성별로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사랑은 제자의 길을 환히 밝혀 주고, 우리의 일상 생활을 생명력과 의미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 주는 등댓불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잣대요, 순종을 불러오는 영감이며, 제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사랑은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분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규정하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수 있게 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와드와 지부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4:15.
2. 골로새서 2:6 참조.
3. 마태복음 23:23 참조.
4. 마태복음 22:37, 38.
5. 마태복음 22:39 참조.
6. 요한1서 4:19.
7. 이사야 54:10; 예레미야 31:3 참조.
8. 사무엘상 16:7 참조.
9.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10. 요한일서 4:8.
11. 로마서 5:5; 요한1서 4:7, 16 참조.
12. 예레미야 29:13.
13. 요한1서 5:3; 요한2서 1:6.
14. 요한1서 2:4; 또한 이사야 29:13 참조.
15. 모세서 6:59.
16. 요한복음 15:13 참조.
17. 마태복음 22:40 참조.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찰스 디디에이, 존 엠 매드슨, 린 에이 미컬슨, 데니스 비 노인슈완더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해임하고 그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설리 디 크리스텐슨, 제임스 엠 던, 대릴 에이치 간, 클레이트 더블류 매스크 이세, 로버트 시 옥스, 윌리엄 더블류 팜리, 더블류 더글러스 섬웨이,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이 보여 준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사랑과 율법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말씀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가져오는 모든 축복은 만민에 대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칠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영원한 원리입니다.

우선 네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율법 사이에서 혼동을 느끼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동거를 하는 한 젊은이가 근심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정식으로 결혼한 자녀들처럼 저와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겠죠.”

- 한 청소년이 부모의 제어나 압력에 반항하여 단언합니다.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제게 강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에서 계명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부모의 가르침보다 부모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두 가지 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 다음 생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려면 부부가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교리를 거부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지는 않으실 거예요.”
-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인종이 겪도록 허락하신 고난을 보고 신앙을 잃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원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반된다고 여겨, 그 율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정하는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께서 이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물었습니다. 환난도, 박해도, 위협이나 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로마서 8:35)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38~39절)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무한하고 온전한 힘을 보여 준 가장 훌륭한 증거를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또 다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로마서 8:32) 아들을 보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무한한 고통을 겪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율법의



관계에 해답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비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한다는 사실을 알며, 바로 그 불변함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비는 공의를 앗아갈 수 없으며,² 자비는 “성약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54:6)

현대의 경전과 성경에는 사악한 자들³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진노”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노여움과 진노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증거합니까?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질 영들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⁵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명에 순종하라는 애정 어린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순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녀를 멈추게 하려고

화를 내거나 그 모습에 실망할 때에도 여전히 자녀를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만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모든 자녀, 심지어 그분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많은 은사를 부여합니다. 필멸의 육신이 바로 그러한 은사 중 한 가지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첫째 지체를 지켰던 이들은 모두 필멸의 육신을 받았습시다.⁶ 또 한 가지 무조건적인 은사는 모든 이들이 겪게 될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2) 필멸의 상태에서 받는 다른 많은 은사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마태복음 5:45)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로 돌아온 한 여성은 성찬식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거절했을 때에도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인도하셨고 친절하신 자비로 저를 감싸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분노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⁷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때 받습니다. 현대에 받은 계시에서 확실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0~21)

이 위대한 원리에서 수많은 것들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죄로 자비와 공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설명해줍니다. 선택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지상으로 이끈 복음 계획에서 근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여 만든 결과에 하나님께서 미리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억압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⁸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지만, 그

선택을 미리 막지는 않으십니다.⁹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성스러운 아들이 계명보다 사랑을 중히 여기신다고 추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외치신 첫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¹⁰

그분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심으로써 사랑으로 자비를 보이셨지만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영향력이 대중적인 행위나 욕망에 따라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도 율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 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율법로나 자비로나 공의로나 심판으로도 성결하게 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5)

현대에 받은 계시에서 우리는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다”(교리와 성약 88:36)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나니”(교리와 성약 88:22~24)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배정되는 영광의 왕국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 안에서 그분이 제정하신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계획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교리와 성약 14:7) 은사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대할 때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사 중 일부를 모든 필멸의 자녀에게 주셨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준행하지 않을지라도 집이나 음식 같은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전지전능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본을 따라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선물 중 일부에 조건을 담니다.

술이나 마약을 하는 등 기대에 어긋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집에 술이나 마약을 두거나 취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따라, 또는 비행 정도에 따라, 또는 다른 자녀들을 위해 그것을 금지할 것인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논하자면 동거를 하는 자녀에게 결혼 밖에서 맺는 성 관계의 심각성을 이유로 이 자녀를 모든 가족관계에서 제외시켜 전면적인 가족의 반대를 느끼게 할 것인가, 또는 부모의 사랑으로 동거 사실을 모르는 채 할 것인가? 저는 이 양 극단의 예를 모두 보았는데, 두 방법 모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부모의 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끄는 일만큼 부모에게 하늘의 인도가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만큼 하늘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로 씨름을 하는 부모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¹¹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냉담, 또는 무지의 광야를 헤매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사랑의 원정”을 요구하셨습니다.¹²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염려하고, 계속해서 애정 어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종종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신다”(히브리서 12:6)라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¹³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연차 대회에서 “관용과 사랑”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묵인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옹호하지 않습니다.”¹⁴

사랑의 힘, 그리고 율법의 영향력 사이의 어느 지점에 선을 긋든지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분명 사랑하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돌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2:51~53)

이 엄숙한 가르침은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지 못할 때 분쟁이 일어날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가족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탈선하여 우리의 행복이 손상되는 현실을 견디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이해하며 결속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자 그리스도의 교리인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17쪽 참조.
2. 엘마서 42:25 참조.
3. 예를 들면, 사사기 2:12~14; 시편 7:11; 교리와 성약 5:8; 63:32 참조.
4. 예를 들면, 열왕기하 23:26~27; 에베소서 5:6; 니파이전서 22:16~17; 엘마서 12:35~36; 교리와 성약 84:24 참조.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10쪽.
6. 요한계시록 12:7~8 참조.
7. 2005년 12월 6일자 편지, 저자 소유.
8. 엘마서 42:8과 비교.
9. 모사이야서 24장 14~15절과 비교.
10. 마태복음 4:17 참조.
11. 누가복음 15:3~7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잃어 버린 대대”, *성도의 빛*, 1987년 9월호, 3쪽 참조.
13. 또한 잠언 3:12; 요한계시록 3:19 ; 교리와 성약 95:1 참조.
14. 러셀 엠 넬슨,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71쪽.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믿음의 빛은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 강렬하게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에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심과, 그리고 성신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는 세속주의라는 암흑이 짙게 드리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의심을

받고, 심지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명분으로 공격받기도 합니다. 무신론,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구주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²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고, 우리가 겪는 필멸의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성장과 발전은 일시적이고, 성취는 무가치하며, 도전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옳고 그름도 없으며,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서로를 돌보는 도덕적 책임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필멸의 생활도,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확신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저는 친구로서 또한 사도로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알 수 있는지 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선지자들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간증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선지자들의 간증이 참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기록한 경전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간증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³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저명한 종교학자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은 조각된 형상을 만드는 것이며 우상숭배이며 불경한 일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⁵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구에 나와 있는 “우리의”와 “우리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⁶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여느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하듯이 각각 독립된 개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의미하는 이유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신약전서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자 스테반이 간증했듯이 그분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계셨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⁷

우리는 또한 아버지과 아들에게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와 모세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담과 이브는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닐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얼굴이 있고, 두

분이 서 계시며 대화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지자 예녹은 “내가 주를 보았는데 그가 내 앞에서 계셨으며, 마치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나와 말씀하셨다”⁹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몰몬경 이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랫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걷히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¹⁰ 이후에 주님은 자신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¹¹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해 느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을 보시고 울었더라.”¹²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고 완전하며 불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¹³

우리 시대에 조셉 스미스의 간증보다 더 귀중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고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 시대에 선택된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에 복음이 존재해야 하는, 바야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각각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했던 모든 선지자들처럼 조셉도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선지자로서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경험을 했습니다.

열네 살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조셉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¹⁴

이 예언적인 말씀을 믿은 조셉은 확고하고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¹⁵

이 두 분을 올려다보면서도 조셉은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목격하거나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¹⁶

이 유례없는 경험과 다른 일들을 겪고 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¹⁷

여러 시대를 통해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증거했으며, 바로 이 연차 대회에서도 그러한
증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11조가 공표하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합니다].”¹⁸

개인적 믿음에 관해 우리는 진정 무엇이
참된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성신을 통해 알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은 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을 증거하고”¹⁹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²⁰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을 억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의 믿음에 관해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며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영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지자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²¹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
어린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지] ……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²²

성신의 부드러운 영향력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
코리호어처럼 될 위험에 처합니다. 코리호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주와
속죄, 예언의 영을 조롱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²³

코리호어는 단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선지자
엘마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표적으로
보여 자신을 납득시켜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마의 응답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네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네게 이 모든 네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네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려 하려느냐? 경정이 네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²⁴

결국 코리호어는 표적을 받았습니
다. 병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코리호어가 그
손을 내밀어 써서 이르되 ……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일을 내게
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²⁵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분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모든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빛은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나 강렬하게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선지자들의 간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십시오.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그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를 알고 싶다는 소망을 부지런히 키우십시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게 만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경전을 연구”²⁶하고 겸손하게 그 안에서 배우라는 구주의 명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참된지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여쭙볼 준비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고요하고 작은 영의 속삭임, 즉

성신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전하는 생각과 느낌으로 그분께서 살아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얻는 일은 곧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기억이 없거나 믿기를 중단했거나, 믿기는 하지만 진정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추구하려고 권고하겠습니다.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을 동반할 때 오는 힘과 평안은 여러분의 노력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 친구들과 자신의 인생,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온전히 겸손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다면, 여러분 또한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은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신앙개조 제1조.
2. 요한복음 17:3.
3. 교리와 성약 20:18; 또한 창세기 1:27; 모세서 2:27 참조.
4. Krister Stendahl, “To Speak About God”, *Harvard Divinity Bulletin*, vol. 36, no. 2 (2008년 봄 호), 8~9쪽 참조.
5. 창세기 1:26; 모세서 2:26.
6. 모세서 2:1.
7. 사도행전 7:56.
8. 모세서 4:14; 또한 창세기 3:8 참조.
9. 모세서 7:4.
10. 이터서 3:6.
11. 이터서 3:16.
12. 모세서 7:28.
13. 교리와 성약 110:3.
14. 야고보서 1:5~6.
15.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16. 조셉 스미스-역사 1:17.
17. 교리와 성약 130:22.
18. 신앙개조 제11조.
19. 요한복음 15:26.
20. 요한복음 14:26.
21. 고린도전서 2:14.
22. 모사이야서 3:19.
23. 엘마서 30장 참조.
24. 엘마서 30:44.
25. 엘마서 30:52.
26. 요한복음 5:39.

불가능한 일을 시도함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참으로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훌륭한 동기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대륙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¹ 구주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 이 지상에서 보통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비이გი적인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이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이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혼자 아니라 사실 이해한다면 그것은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강력한 도움을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도움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 면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관대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한다면 우리의 잘못과 악점, 죄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각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구주께서 이루신 돌도 없는 업적, 즉 속죄를 마련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시는 아들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² 이 신성한 약속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³ 이러한 약속은 참으로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훌륭한 동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이한 업적이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막 시작된 회복의 초기 시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⁴ 온 마음과 온 능력과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풍성한 보상이 오직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온다고 말씀했습니다.⁵ 이러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그분의 뜻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희생하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강화하는데 바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진실되게 행사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부지런히 생활한다면 영생을 얻고, 완전해지며, 가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성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처럼 온전해지라는 그분의 계명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고, 영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재능과 성품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잠재력을 깨닫도록 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아십니다. 온전해져서 영생을 얻으려 온 인류에게 권유하고 요구하십니다.

베냐민 왕은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라고 가르친 후, 곧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러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⁶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는데, 이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이하의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이 역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에게 봉사하고 교회 부름을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매일 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구주께서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구원과 영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맡은 부분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과 열의, 헌신, 책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즉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중재와 구주께서 이루신 무한한 희생 덕분에 가능하게 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각자가 침례의 물로 들어섰을 때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의식들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늘 기억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이자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름을 수행하고, 복음을 나누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조상을 위해 구원 사업을 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⁸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세상에서만큼이나 이생에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순수한 인간의 관점에서 완전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불가능을 성취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현세와 영원에 걸쳐 행복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영광스런 약속이 담겨 있는 완전한 계획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의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 복음과 신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인도해 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십니다. 이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위대한 사업을 이 시기에 이끌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12:48.
2. 교리와 성약 14:7.
3. 경전 안내서, 영생, 202쪽 참조.
4. 교리와 성약 4:2.
5. The Teachings of David O. McKay, Mary Jane Woodger 편(2004년), 300쪽 참조.
6. 모사이야서 4:27.
7. 니파이후서 25:23.
8. 디모데후서 4:7.

조셉 스미스 - 회복의 선지자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철십인 정원희

구원과 승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능과 열쇠, 가르침과 의식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한 인물에 관해 딱 세 가지 사실만 들려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구주께서는 이 사람에 관해 “믿음이 작은 자”(마태복음 14:31)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순간 화가 치민 그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귀를 잘랐습니다. 셋째, 매일 구주와 함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관심을 둔 부분이 이런 내용뿐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약당이나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분이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사도 베드로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몇 가지 사소한 약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것을 확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번 조셉 스미스의 됴됨이와 사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신성한 숲에서 나왔을 때 조셉은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네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독립된 존재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들이 그의 뜻을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성경 기록은 조셉 스미스가 발견한 진리를 확증합니다.(마태복음 26:42 참조) 우리는 구주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에 감명을 받고, 그분의 모범을 통해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는 아들이 이름만 달리하여 자신의 의지를 따랐던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순종의 깊이와 열정, 또는 모범의 동기가 되었던 힘은 대체 무엇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라고 기록된 말씀은 이 위대한 진리에 관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품고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사랑을 독생자를 바치는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사랑을 상징합니다.(창세기 22장 참조)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존재라면 모든 희생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이 희생은 의미를 잃게 되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발견한 두 번째 위대한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육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9)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물리적 현상이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되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로마서 6:9)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영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부활 후에도 죽음을 겪을 것이고, 바울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운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전에 휴 비 브라운 회장님이 제시한 세 가지 질문만 해 봐도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13쪽)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던 신약시대 사람들만큼



오늘날의 우리도 사랑하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와 같은 권능을 오늘날에도 갖고 계십니까? 셋째, 고대 사람들에게 그분이 필요했던 만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분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예”이고, 경전에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물론서 9:9 참조),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가 간증한 대로 오늘날에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운 네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교회가 당시에는 지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과 진리 중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테살로니가후서 2:3)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오래 전에 예언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교리와 성약 98:12)

지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죽은 자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교리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5~22; 또한 138:30~34 참조) 이것은 창의적인 생각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6)라고 오래 전에 가르쳤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저명한 저자이자 신학자 프레드릭 더블류 파라는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남겼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려는 온갖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 구절은 경전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중 하나로, 불명확한 점은 어디에도 없다. …… 언어에는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가셨을 때 과거에 누우치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의미이다.”(*The Early Days of Christianity*, 1883년, 78쪽)

많은 사람들이 하늘도 하나요, 지옥도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조셉 스미스는 여러 하늘이 있다는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던 사람에 관해

말했습니다.(고린도후서 12:2 참조) 만일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이 없다면 어찌 셋째 하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 개의 조각으로 된 그림 퍼즐과 비슷합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아마 100여 개의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조셉 스미스가 다른 900 개의 조각 중 많은 부분을 제자리에 맞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조셉 스미스가 한 역할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가지게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5:10)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수없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직한 탐구자들은 “교리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천사들과 시현들은 좀 그렇군요. 현 시대에 그런 것을 믿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학자들을 부드럽게 대응합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천사와



시현이 없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난파선에 있던 바울에게, 밧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시현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관한 시현을, 요한은 후기에 관한 시현을, 스테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시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와 시현을 보았습니다. 조셉은 처음에 존재했던 것과 똑같은 교회, 즉 모든 교리뿐 아니라 모든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조셉 스미스가 회복한 소중한 복음 진리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승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몇몇 역사적 문제들이나 과학적 가설에 주의를 돌리면서 자신의 영적인 장자

명분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복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모르는 몇 가지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에 대한 신앙을 잃는 함정에 빠집니다. 신앙이 요구되고 우리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는 이상, 어찌 보면 지적인 위기 같은 것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할 만한 확실하고도 단단한 회복의 교리들이 항상 있어 우리에게 간증을 쌓아갈 반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등을 돌렸을 때,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한복음 6:67~68)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회복된 교리를 등진다면 거룩한 숲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배우기 위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세의 존재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무덤 너머까지 묶어 줄 수 있는 인봉의 권능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구원과 승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능과 열쇠, 가르침과 의식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책이나 성지순례 등이 아무리 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명사하셨듯이 구원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자신이 선언했듯이 그가 회복의 선지자였음을 간증드립니다. 감동적인 찬송가의 한 구절인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크게 외쳐 봅시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모든 일에 절제함

켄트 디 왓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든 일에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성신을 통해 얻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지니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느니라.”¹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절제하기를 바라실까요? 좁은 의미에서 절제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자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의미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훌륭한 처방이 됩니다. 때로는 절제가 “분노를 참는 것, 혹은

홍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경전에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경전에서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속성을 발전시키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성신을 통해 얻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²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도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감동이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속성을 설명하면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 절제”³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거나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엘마 이세는 기드온 땅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지 아니한 줄로 믿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아니한 줄로 믿노라 ……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기] …… 를 원하노라.”⁴

엘마는 이후에 전한 메시지에서 아들 시블론과 우리에게 “주의하여 내가 자고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⁵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범사에 부지런하고 절제”⁶해야 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와 욕구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의로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근면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해 전, 하루는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에서 이중 타이어 하나가 빠져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이어는 중앙선을 넘어 제가 달리던 도로 쪽으로 튀었습니다. 양방향에서 달리던 차들이 차선을 벗어났습니다. 그 타이어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순간에 그만 왼쪽으로 틀어 버렸고, 그 타이어는 마지막으로 제 차 앞 유리 귀퉁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제게 말하기를 당시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산산조각 난 유리에 찢긴 상처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서진 유리 조각들을 뒤집어 쓰긴 했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운전 솜씨 때문이 아니라 제 소형차 앞 유리가 강화 유리였기 때문입니다.

강화 유리는 강철처럼 잘 조절된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유리는 강한 충격을 받더라도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조각으로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영혼, 즉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영적인 힘이 강화된 사람입니다. 강화된 영적인 힘으로 자제력을 키우고 중용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허영, 교만을 통제, 혹은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화된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현대 세상의 위험한 부절제와 파괴적인 중독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지난 해를 강타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굳이 희망의 빛을 찾아본다면, 이미 여러 사람이 겪은 시련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 안전과 행복이란 것이 우리의 저축이나 수입의 한도보다 더 큰 부채를 져 가면서 집을 사거나 소유물들을 모으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함과 다툼이 가득한 조급하고 무절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열네 살 소년 조셉 스미스가 응답을 구하던 시대에 여러 교파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모여 살던 사회와 비슷합니다. 어린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급이라도 가졌었다 해도, 언쟁과 의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⁷

자제심을 배우고, 이 세상의 무절제를 피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 가족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화된 신앙에서 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부지런히 지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절제에 대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모범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논쟁과 다툼으로 분노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⁸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화해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구주께 다가가야 합니다.⁹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할 때 예수께서는 “나의 친절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해리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⁰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그분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욕하는 자를 대하여 욕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¹¹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¹²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졌습니다.”¹³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땀과 피를 흘릴 정도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분노나 원한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비길 데 없는 자제력 내지 절제로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겸손과 충만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¹⁴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과 친구들에게 우리 구주의 실재하심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회원이 많지 않은 곳에 사는 후기 성도 일 세대입니다. 그들 지역에서 후기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초기 후기 성도들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양성이 가득한 놀라운 세상인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은 거대한 인구 중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절제의 속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¹⁵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범으로 가르쳐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신성한 절제의 은사가 하나님의 각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8.
2. 갈라디아서 5:22~23.
3. 디도서 1:7~8.
4. 앨마서 7:6, 23.
5. 앨마서 38:11.
6. 앨마서 38:10.
7. 조셉 스미스-역사 1:6.
8. 제3니파이 11:37.
9. 제3니파이 12:34 참조.
10. 제3니파이 22:10.
11. 교리와 성약 31:9.
12. 모사이아서 14:7.
13. 모사이아서 14:4.
14. 교리와 성약 19:19.
15. 교리와 성약 12:8.

“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하라는 권유는 대부분 책망하는 음성이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 가득한 호소입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은 지도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제 모범이자 교사이셨던 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겸허한 경험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주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열심히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스럽고 잊지 못할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며, 이 사업은 그분의 거룩한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4월에 저에게 부름을 주시면서 그분께서 보여 주신 따스함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접견이 끝나자 그분은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키가 크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긴 팔로 저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기셨을 때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팔에 안겨 보호받는 어린 소년이 된 듯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주님께 나아와 그분의 팔에 영적으로 안기라고 하신 권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¹

경전에는 그분의 팔이 벌려져 있고² 펼쳐져 있으며³ 퍼져 있고⁴ 둘러싼다고⁵ 말합니다. 또한 그 팔은 권능이 있고⁶ 거룩하며,⁷ 자비의 팔,⁸ 안전한 팔,⁹ 사랑의 팔이며¹⁰ “종일토록 펼쳐져”¹¹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감싸는 이 영적인 팔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 위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그라.”¹²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팔에 안기라는 주님의 소망은 대개 회개하라는 권유입니다. “보라, 그는 만민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퍼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¹³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섭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대부분 책망하는 음성이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 가득한 호소입니다.¹⁴ 이러한 권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고, 더욱 고결한 삶을 살고, 변화하고, 계명을 지킬 때 얻는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회개의 축복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인 합당함과 의로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주의 자비로운 팔을 느껴야 합니다.

수 년 전,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우리가 만나기 오래 전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교회 회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돌아온 지 오래되었으며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 계속 뇌리에 남아 그를 괴롭혔습니. 그와 만났을 때 성약을 위반한 일에 대한 수치심과 깊은 후회를 그에게서 느꼈습니. 접견한 다음에 저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저는 그를 향한 구주의 사랑과 용서를 느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 축복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습니. 그는 숨기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회개한 자를 감싸안은 구주의 사랑의

팔과 자비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간절히 용서하고 싶어하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충만함을 안 후에 멸망을 택한 몇몇의 죄를 제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¹⁵ 우리 각자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신성한 용서는 복음의 가장 감미로운 열매 중 하나이며,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고통을 없애 주고 대신 기쁨과 양심의 평안을 선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¹⁶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심각한 죄에 맞서기 위해 “마음에 크나큰 변화”¹⁷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개는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매일같이 구하는, 조용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람에 맞서 나아가고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¹⁸ 회개는 부정직과 교만, 노여움, 불순한 생각을 버리고 친절과 이타심, 인내, 영성 같은 것으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우리에게 변화를 제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때때로 머리를 치켜들며 말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한다고? 너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해 볼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주님께 겸손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변화해야 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¹⁹

그런 후 우리는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창에 커튼을 닫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앨마는 경고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점이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²⁰ “커튼을 닫을” 때 우리는 변화하도록 권유하는 영적인 음성을 믿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회개로 이끄는 신앙이 부족하게 됩니다.²¹

바로 지금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앤더슨 형제님, 형제님은 이해 못하십니다. 형제님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똑같이 느끼실 수 없으니까요. 변화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²²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게로 오라”²³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해야 하는지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초래한 슬픔에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진심이 담긴 고백을 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²⁴ 가능한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자리잡습니다.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이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해 달라고 간청하고, 늘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회개하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면서도 동일한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무로 뒤덮인 산을 오를 때처럼 우리는 정상에 올라 높은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더욱 명확히 바라볼 수 있으며 성신이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우리가 오래 전에 버린 죄들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슬픔은 때때로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이 들려 주신 따뜻한 일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께서는 뜨거운 나무 화덕 위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화덕 옆에 둔 나무 상자가 비면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상자를 들고 나가셔서 밖에 있는 삼나무 더미로 상자를 채우신 후, 무거워진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파우스트 회장님의 목소리는 감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너무도 무심경한 나머지 자리에 앉아 사랑하는 할머니가 부엌 나무 상자를 채우러 가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제 소홀함의 죄를 평생 후회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할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²⁵

그 후 6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를 돕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후회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후회한다는 것이 그렇게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경전에는 우리가 현세에서 버린 우리의 죄를 잊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잊으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²⁶

죄를 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를 버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잘못의 잔재가 기억 속에 남아 있도록 허락하십니다.²⁷ 그것은 현세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 받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보상을 하고 계명을 지키으로써 죄를 버릴 때 우리는 용서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슬픔에 잠긴 고뇌가 진정되어 “우리 마음에서 죄업[이] 제하여[지고]”²⁸ “양심의 평안”²⁹을 얻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정하신 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치유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감독에게는 분별의 권능이 있습니다.³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³¹ 그러나 이 생에서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연로한 부부를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부모에게서 복음을 배웠지만 결혼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5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분이 호흡하는 데 사용하는 산소통을 끌며 방으로 들어오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부부는 그 동안 충실하게 남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로한 이 형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앤더슨 형제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픔입니다. 저희는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저희 둘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그 두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구주의 펼쳐진 팔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삶까지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 커다란 행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구속하는 그분의 힘을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위에 그분의 치유하는 손길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신성한 은사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없애 주고 우리 양심에 평안을 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교회 회원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께서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9:14.
2. 물몬서 6:17 참조.
3. 앨마서 19:36 참조.
4. 열왕기하 17:36; 시편 136:12 참조.
5. 니파이후서 1:15 참조.
6. 교리와 성약 123:6 참조.
7. 제3니파이 20:35 참조.
8. 앨마서 5:33 참조.
9. 앨마서 34:16 참조.
10. 교리와 성약 6:20 참조.
11. 니파이후서 28:32.
12. 니파이후서 8:12.
13. 앨마서 5:33.
14. 힐라맨서 7:17 참조.
15. 보이드 케이 패커,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9쪽 참조.
16. 제3니파이 9:13.
17. 앨마서 5:12.
18. 마태복음 16:24.
19. 교리와 성약 8:2 참조.
20. 앨마서 42:30.
21. 앨마서 42:30 참조.
22. 이사야 49:16.
23. 제3니파이 9:14.
24. 교리와 성약 58:43 참조.
25. 제임스 이 파우스트, "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9쪽.
26. 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또한 앨마서 36:17~19 참조.
27.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안전한 귀환 지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1쪽 참조.
28. 앨마서 24:10.
29. 모시아야서 4:3. 경전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을 양심의 평안과 연결짓는다. 기쁨의 반대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앨마의 가르침에 주목한다.(앨마서 29:5 참조) 그 밖의 선지자들은 악한 자들이 이생 이후에 겪게 될 고통을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연결시킨다.(니파이후서 9:14, 46; 모시아야서 2:38; 3:24~25; 물몬서 9:5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문관이자 심판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실망의 고통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과 같이 통렬하다."(*History of the Church*, 6:314)
30. 교리와 성약 46:27 참조.
31. 앨마서 34:33.

기도와 속삭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속삭임과 기도에 관한 이러한 경험은 교회 안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중 일부입니다.



스스로를 지켜 낼 힘을 주지도 않은 채 루시퍼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멀고 위험한 땅으로 자녀를 보내어 일생 동안 시험 받게 할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방편까지 마련해 줄 것입니다. 지상에 보내진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¹ 우리 중 누구도 인도와 구속이라는 희망 없이 홀로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열네 살 된 소년이 드린 기도와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신 시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서 전세에 대한 지식이 알려졌습니다. 경전을 보면 천국 회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세로 보내 육신을 갖고 시험을 받게 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²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체는 현재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에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천국 전쟁이 있었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육신을 입지 못한 채 내던져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취하려 한 저 옛 백, 곧 악마, 사탄을 우리가 보았음이라 ……

그러즉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는도다."(교리와 성약 76:28~29)

우리는 선택 의지를 받았습니다.³ 우리는 선택 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이 깨끗이 씻길 수 있으며, 언젠가 죽게 될 우리의 육신이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을 압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모로나이서 7:16)

우리는 영을 통해서 완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2:10)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두 번째 의식, 즉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신앙개조 제4조)를 받습니다.

그 감미롭고 조용한 영감의 음성은 소리보다는 느낌으로 옵니다. 순수한 예지가 정신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신은 신체 감각보다는 정신을 통해 우리의 영과 소통합니다.⁴ 이러한 인도는 생각과 느낌으로, 또 속삭임과 감명으로 인식됩니다.⁵ 영적인 대화를 전하는 언어는 듣기보다는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보다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⁶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분은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리차즈 장로님은 열두 살 소년 시절에 태버나클에서 열렸던 훌륭한 연차 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윌포드 우드럽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드럽 장로님은 영의 속삭임을 들은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뉴잉글랜드와 캐나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모아 시온으로 데려오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⁷

한번은 인디애나 주에 사는 한 교회 형제의 집에 들렀는데, 우드럽 장로 부부와 자녀 한 명은 그 집 마당에 세운 마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집 안에서 잤습니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이 속삭이며 경고했습니다. “일어나 마차를 옮겨라.”

우드럽 장로님은 일어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마차를 옮겼습니다. 다시 잠들려 할 때 영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가서 노새를 떡갈나무 아래에서 옮겨라.” 우드럽 장로님은 그 말대로 한 후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회오리바람이 불어 닳았습니다. 강한 바람은 노새가 묶여 있던 나무를 강타했습니다. 그 나무는 꺾여 땅으로 떨어졌고, 울타리 두 개를 넘어서 90여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줄기 둘레가 1.5미터나 되는 그 거대한 나무는 마차를 처음 세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우드럽 장로님은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자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⁸

바로 그 영이 여러분에게 속삭여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제가 총관리 역원으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저희 가족은 유타 밸리에 있는 작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농장이라 부르던 그곳에서 소 한 마리와 말 한 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출발하려 할 때였습니다. 새끼를 밴 소가 힘겨워하더니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미 소는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소가 철사를 삼켜서 그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가 죽으면 아내가 곧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 제품 회사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가족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여행하실 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 후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 보시가 다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회 말씀에서 저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은 우리가 기도로 부탁한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긴 했습니다만, 배운 사람은 아들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일요일 밤에 집으로 돌아갔더니 다 나은 보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선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신의 은사는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놀라운 은사와 권능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는 천사들로 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참으로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그리하시거니와, 이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어린아이들이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받는 때가 많으니라.”(엘머서 32:23)

주님에게는 우리를 자극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경고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에 지식을 쏟아 붓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또한 이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이노스서 1:10)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영감으로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통로를 지키십시오.

예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장로님께서 들려 주신 경험담이 하나 있습니다. 후에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신 그분의 어머니에게서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시 장로님은



중국에 주둔한 해군에서 복무했는데, 어느 날 다른 군인들과 함께 텐진을 둘러보러 기차를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 일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는데, 한 시간 이상이 흐른 후에 유심히 보니 기차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탄 것입니다. 군인들은 중국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비상줄을 당겨 기차를 멈추게 했고,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에 내렸습니다. 이제 도시로 걸어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간 걸은 후에 이들은 조그만 펌프 핸들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철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차를 철로 위로 올려 펌프질을 하며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러져 내리겠지만 오르막길에서는 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 하나가 나오자 그들은 앞다투어 차에 올라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독시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올라탈 차례였습니다. 남은 자리는 맨 앞 자리 밖에 없었고, 그는 차 옆에서 뛰다가 마침내 올라 탔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끄러져 차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이 땅에 닿았지만 다리로 차량에 매달려 깔리지 않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차가 점점 속도를 내며 나아가는데, 그 와중에 독시 장로님은 “버드, 조심해!” 하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목적인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발이 미끄러져 두꺼운 군화 밑창이 바퀴 기어에 끼었고, 차는 독시 장로님의 손에서 불과 3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당시 미국 동중부 선교부를 감리하던 그의 부모님은 그날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 두 시경에 잠에서 깨어 남편을 깨웠습니다. “버드가 위험해요!” 이 두 부모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독시 장로님은 “버드, 어떻게 된 거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묻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편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독시 장로님이 철도 위로 떨어지던 바로 그때 그의 부모님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속삭임과 기도에 관한 이러한 경험은 교회 안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중 일부입니다.

악마가 소유한 가장 강력한 도구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일을 했든,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머릿속에서 그 유혹을 지워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신을 위한 도구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을 파고들 때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그 생각을 지워 버리십시오. 합당한 음악은 힘이 강력하여 여러분이 생각을 통제하는 데 유용합니다.¹⁰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에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아니하면, 네게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9:7~9)

그 원리는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이 됩니다. 그 소녀는 오빠가 참새를 잡으려고 밧을 놓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자 소녀는 “기도를 해야겠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도를 한 후 소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빠가 참새를 하나도 잡지 못할 거란 걸 알아요. 절대로 잡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소녀는 말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밧을 발로 차서 부숴 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선지자 앨마가 그랬던 것처럼 젊고 제멋대로일지라도, 또는 앰올레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 알려 하지 아니하였다”(앨마서 10:6) 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만의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여러분 쪽 휘장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기도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 또한 누가복음 11:2; 제3니파이 13:10 참조)라는 말로 마칩니다.



어려움과 실망, 고통과 낙담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리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견디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솔하고 성급한 손으로

우린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엿볼어버리지

고통으로 울부짖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인간이여, 잠잠하라. 내가 매듭을 풀고 있다!”¹¹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우리는 대회의 이 모임을 역원 지지로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그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분이 “예언에 의하여 ……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신앙개조 제5조) 받았다는 저의 특별한 증거를 전해 드립니다. 엄청난 짐이 놓여져 있는 그분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아내 프랜시스 자매님과 그 가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분의 몸과 마음과 영에 힘이 보태지고, 그분이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그분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것처럼 온 교회에도 명백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으로써”(신앙개조 제5조) 그 직분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몬슨 회장님이 그분의 어깨에 놓여 있는 위대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분과 그분의 가족에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이런 간증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4:46 참조.
2. 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또한 로마서 8:16 참조.
3. 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4. 고린도전서 2:14; 교리와 성약 8:2; 9:8~9 참조.
5. 교리와 성약 11:13; 100:5 참조.
6. 니파이전서 17:45 참조.
7. 윌포드 우드립, Conference Report, 1898년 4월, 30쪽; “Remarks”, *Deseret Weekly*, 1891년 9월 5일, 323쪽 참조.
8. 윌포드 우드립, *Leaves from My Journal*(1881년), 88쪽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11쪽.
10. 교리와 성약 25:12 참조.
11. 작자 미상, Jack M. Lyon and others, eds.,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1996년), 304쪽.

아버지와 아들: 특별한 관계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주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총관리 직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과 함께하는 일은 언제나 기쁘지만, 이곳에 앉아 있는 부자들의 모습을 보는 이 기회는 더욱 더 특별합니다. 우리 종교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요소인 신권과 가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권은 가족을 영원히 함께 인봉하는 신성한 힘입니다. 거룩한 성전 의식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가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대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소년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존재해야 하는 관계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중에 가장 큰 발전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관계는 소년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 형제들 중에는 대화를 나눌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없거나 사고, 혹은 병으로 아들을 잃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릴 많은 이야기는 이 중요한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숙부, 할아버지, 신권 지도자, 또는 그 밖의 조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 길에서 좀 더 앞서 있지만, 아직 최종 목적지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도달할 그 존재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면 오늘날 제가 제안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서 유망한 장래와 자신보다 더 나은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습은 아버지에게도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걱정과 문제는 아버지의 걱정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게 되는 본보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이며, 여러 면에서 아들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범은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청남 여러분이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들과 공감하고 대화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면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꿈과 두려움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해 알수록 아버지는 여러분의 걱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권고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 신뢰에 따르는 책임을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 줍니다.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청남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둘째, 아버지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의 일과 관심사, 목표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나이 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아버지가 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켜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아버지가 교회 부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십시오. 아버지를 지켜보고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알아내십시오.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면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아버지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셋째,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이 구하든 구하지

않든 아버지는 조언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여쭙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교회 활동, 수업, 친구, 학교, 데이트, 운동, 또는 그 밖의 취미에 대해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부름, 선교 사업 준비,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나 선택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십시오. 조언을 구하는 일만큼 누군가에 대한 존경을 잘 나타내는 일은 없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당신이 겪은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압니다. 당신의 생각과 제안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아버지는 기쁠 것입니다.

자녀가 조언을 부탁하면, 아버지는 훌륭하고 신뢰할 만하며 유용한 권고를 해주려고 더욱 노력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동기를 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말해 준 조언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면서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제 아버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들과 여러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여러분의 아들에게 말한 세 가지 제안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적절한 질문을 하고, 단 몇 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만한 시절이 있었다며 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이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판단은 배제하고, 그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들과 공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거나 운동 경기에 가기도 합니다. 조용히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마당에서 함께 일하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아들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아버지는 매달 적어도 한 번씩은 주의를 집중하여 아들과 뜻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학교, 친구, 감정, 비디오게임, 문자메시지 보내기, 합당성, 신앙, 그리고 간증과 같이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언제 어디서 나누느냐는 대화하는 그 자체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대화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 “느낀다”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 수업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친구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네가 소유한 신권과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와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이러한 대화를 나누어서 모든 것을 바로잡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귀 기울여 듣는 아버지는 그렇게 할 때 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아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십시오. 아들이 중요한 시험이나 특별한 행사에 대해 걱정한다면 분명 아버지의 신권 축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학, 생일, 또는 첫 데이트 등은 주님께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만한 좋은 시기입니다. 아들과 단 둘이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도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저는 많은 아버지들이 탈선하거나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긴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압니다. 엘마와 모사이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걱정할 것처럼 말입니다. 탄탄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 하십시오.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아이는 여러분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셋째, 아들과 함께 “중요한 대화”를 할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말하는 중요한 대화란 마약과 술, 인터넷, 컴퓨터 사용, 외설물 등과 같은 현대 매체의 위험성, 신권 소유자의 합당성, 여성에 대한 존중,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피하지도 마십시오. 그러한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주는 권고와 인도, 의견이 아들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아들 사이에 더욱 더 두터워지는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성적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이른 나이에 가볍게 그리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성 관계를 맺는 것을 공공연히 받아들이고 과시하는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방에 만연한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와 메시지,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교회 지도자들은 신권을 소유한 젊은 형제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명시해 주는 솔직한 토론을 자주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맺는 성약들과 영원한 결혼 서약과 같이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친밀함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울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연구 조사에 따르면 가벼운 성적 관계를 제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한 관계를 참된 헌신과 성숙한 사랑에 연관지어 생각하는 건전한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직 아들과 함께 이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모든 귀환 선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관계없이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상에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조언을 구한다면 교육과 직업,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올바른 여성과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누구도 이 중요한 결정을 서둘러 내려서는 안 되지만, 모든 귀환 선교사는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데이트도 하십시오.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애라는 것이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쭙 보십시오. 그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길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지녔던 품위와 영을 유지하십시오. 교회는 장래에 여러분이 발휘하는 지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제안한 세 가지는 여러분의 귀환 선교사 아들과 여러분의 관계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아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데 집중하며, 공감하십시오. 아들의 느낌과 소망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장래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계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아들들과 사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와 아들로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신권을 명예롭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두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강력한 신권 소유자가 됩시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의 삶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큰 권능과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친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의 가르침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¹ 이 신권 소유자들은 사람들이 구주와 그분의 교리를 배우고 행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가르침과 모범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끝까지 견디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² 저는 지금 강력한 신권 소유자였던 몰몬경의 위대한 선교사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하이의 자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처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의 삶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하는 일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일에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엘마 이세는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했던 일 중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강력한 신권 소유자들은 몰몬경 원판에 있는 기록을 활용했습니다. 엘마 이세는 훗날 몰몬경이 된 그 기록을 아들 힐라맨에게 주면서, 이 판들이 없었다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것처럼 많은 수천의 레이맨인들[을] …… 깨닫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참으로 이 기록과 저들의 말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였다”라고 가르쳤습니다.³

하나님께서서는 그 판을 통해 “수천 [명]의 진리의 지식으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성취시킴으로써 그분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마는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장래 세대에게 여전히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⁴ 기록은 보존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장래 세대인 것입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몰몬경을 활용하여 더 강력한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저자가 쓴 어떤 작품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미대륙을 방문하신 주님은 니파이에게 기록을 가져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떤 사건과 구절을 추가하도록 명하셨습니다.⁵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이를 주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⁶ 그 장래 세대에 제가 속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몰몬경 덕분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이 신성한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기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니파이전서 앞 부분만을 읽고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책에 선언했던,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각별한 의미를 더해 줍니다.⁷ 또한 저는 “몰몬경과 표준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을 시험해 보면 교리에 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약속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압니다.⁸

이러한 약속은 현재나 미래에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제게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생기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성약을 맺어 그 책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음으로써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성약은 신권 의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몰몬경에서 얻은 지식과 더불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주께서 고대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교리를 가르치시고 니파이와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권능을 주셨다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⁹ 바꾸어 말하면 교리와 의식은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몰몬경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적용하려면 가르침과 관련된 성약과 신권 의식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출시되어 단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책들은 큰 관심을 유발시켜 사람들이 그 책이 출시되기를 고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금세 서점에서 엄청나게 팔려 나가서, 어디서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몰몬경을 보존하셨습니다. 몰몬경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책을 우리 삶에서 다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이 읽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을 더 많이 읽고 적용하도록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활동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고대 신권 소유자들처럼 더 강력한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려면]” 몰몬경을 읽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시기]” 때문입니다.¹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말씀을 읽고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원리와 교리를 찾다 보면, 새로운 열의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레들의 압력에 대처하는 문제에 부딪친 자라나는 세대는 그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찾아 보면서 몰몬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레뮤엘의 경험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뮤엘은 레이먼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¹¹ 그는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¹² 이 사건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원리는

포레들의 압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몬경에는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가르침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는 세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을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몰몬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교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¹³ 이러한 그분의 속성이 제 영혼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몰몬경에 담긴 약속과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가 주신 약속도 그분이 거짓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도 몰몬경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로부터 배운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야렛의 형제처럼 그리스도의 속성을 배우면,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력한 신권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몰몬경의 신성한 기록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누구라도 이 책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족들이 몰몬경을 인용하거나 읽고 암송할 때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¹⁴이 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에과도르의 한 선교부가 기억합니다. 그곳 선교사들은 모든 일에 몰몬경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수천 명이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고 신성한 신권 의식을 받으며 성약을 맺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몰몬경은 진리를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 개종시키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구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이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이 훌륭한 책에 있는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강회될 것입니다. 종종 부친이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여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음을 깨달았던 이노스처럼 수많은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¹⁵

앞서 언급한 장래 세대의 일부인 우리는 몰몬경을 활용하고 신권 성약을 존중하여 더 강력한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며, 저 또한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7:18 참조.
2. 앨마서 23:5~6 참조.
3. 앨마서 37:9.
4. 앨마서 37:19.
5. 제3니파이 23:6~14 참조.
6. 제3니파이 26:2.
7. 몰몬경 소개.
8. 토마스 에스 몬슨, “Decisions Determine Destiny”, *New Era*, 1979년 11월호, 5쪽.
9. 제3니파이 11:18~22 참조.
10. 니파이후서 32:3.
11. 니파이전서 3:28 참조.
12. 니파이전서 2:12.
13. 이더서 3:12 참조.
14. 제3니파이 28:29.
15. 이노스서 1:3~5, 10 참조.

소란스러운 청남들을 사랑합니다

최윤환 장로
칠십인 정원희

우리 청남들 중에는 개구쟁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사랑합니다.
청남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오래 전에 제가 한국 서울에서 감독으로 봉사했을 때 알게 된 한 무리의 소란스러운 청남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사는 소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 중 한두 명만이 교회 회원이었는데 그들은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이었습니다. 서로가 친구였던 이들은 함께 놀고 어울리기 위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탁구 치는 것을 좋아했고 토요일이면 재미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학교에서 모범생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말썽꾸러기로 여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홉 살과 일곱 살이 된 아들 둘을 둔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이 청남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번은 제 아내 구본경 자매가 아이들이 다른 청남들에게서 좋은 모범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와드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고, 이 청남들을 도울 방법을 알려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청남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가르쳐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뚜렷한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선교사가 된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신이 낫습니다. 청남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면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과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전임 선교사인 서 장로님이 우리 와드로 이동을 왔습니다. 서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이었을 적에 친구들과 함께 청남 중창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와드의 천방지축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중 비회원인 소년들에게 토론을 가르쳤고, 그가 부르던 노래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데리고 중창단을 만들었고 “하나가 되자”는 뜻에서 하나로 중창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청남들은 함께 노래하며 행복해했습니다만, 이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 저희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집은 회원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소년들은 거의 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고, 주중에도 왔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복음 원리를 알려주고, 복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청남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남들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소년들의 큰 목소리에 저희는 귀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칭찬을 해주었는데, 노래를 듣는 것이 말썽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청남들은 대부분 복음 안에서 성숙해졌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회원이던 아홉 명의 소년들이 침례를 받았고, 시끄러운 개구쟁이 청소년에서 “용맹한 젊은 용사들”로 변화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뒤에 교회 안에서 각기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선교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결혼을 하는 동안 각자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자 했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홉 명의 소란스러운 소년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해서 모두 45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현재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입니다. 한 명은 감독으로, 두 명은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며, 또 한 명은 고등평의회이고 다른 두 명은 청남



회중입니다. 와드 선교 책임자와 집행 서기, 그리고 세미나리 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노래를 하는데, 또 하나의 기적은 이제 그들이 노래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남들이 힐라맨의 아들들²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된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회원이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신권 지도자들이 아버지처럼 돌봐 주었고,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어머니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이 아홉 명의 소년들은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축복을 받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같았습니다. 아담이 주님께 제물을 바칠 때 천사가 그에게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고 묻자 아담은 ‘……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³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젊은이들 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⁴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이 청소년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고 교회의 교리와 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모임에 기쁘고 행복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중 막내는 제가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태어났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면서 이 아홉 명의 청남들은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지도자가 되었으며 저희 아들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쑥꾸러기였던 시절에 제가 그들을 가르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 아들과 다른 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사랑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어린 소년들을 사랑했습니다. 천방지축이던 이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성전에서 의로운 배우자와 결혼한 그들의 훌륭한 모범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저희 와드에서는 토요일 저녁에 선교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일부만 회원인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희 막내 아들 선운이는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은 일부만 회원인 가족도 아니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선교사 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람이 이 모임에 초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안 갈래요.”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이 시작된 직후, 선운이가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빠에게 하나로 중창단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물었던 게 생각났어요. 아빠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 말씀에 순종했고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바뀌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제 아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들처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갖고 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청남들 중에는 개구쟁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합니다. 청남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현대의 힐라맨의 아들들은 교회

안에 있는 소중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부모를 가진 어린 개종자들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그들이 힐라멘의 아들들처럼 될 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들의 “훌륭하신 부모”⁵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남들을 한결 같은 사랑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남들은 우리 모두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어 고양시키고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⁶라고 말한 요한과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남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언제나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하는 대신에 순종하는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 아담과 같이 됩시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청남들과 개종한 청남들 모두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이며 가정에서 의로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 여러분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힐라멘의 아들들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살아 있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알마서 53:20~22 참조.
2. 알마서 56:10 참조.
3. 모세서 5:6.
4.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젊은이들에게”, *Ensign*, 1986년 5월호, 44쪽.
5. 니파이전서 1:1.
6. 요한3서 1:4.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성품과 운명을 형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신권 경로를 통해 저희는 회원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직접 듣습니다. 수년간 많은 회원들이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자연재해와 인재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견딜지 염려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형제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과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저도 힘든 시절과 좋은 시절을 충분히 겪어 왔기에 겨울이 가면 반드시 따뜻한 새 봄의 희망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미래를 낙관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희망을 품고 굳건하게 견뎌야 하며, 온 힘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인생에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라는 짐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열한 살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있는 농가의 다락방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만에 다시 피난민이 되었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침대 주위로만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좁고 작은 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른 작은 방에는 수수한 가구 몇 개와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 쓰시던 풍로가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려면 집주인이 농기구와 장비와 온갖 고기와 소시지를 서까래에 걸어 보관하던 창고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냄새가 항상 저를 몹시도 배고프게 했습니다. 집에는 욕실이 없었고 대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15미터쯤 떨어진 곳에 옥외 화장실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훨씬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피난민이라는 것과 동독식 말투를 사용한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자주 놀리고 모욕을 주어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기 내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났고, 저는 경험이라는 이해의 창을 통해 그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 상처와 절망을 기억할지라도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제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동안 저희 가족은 강하게 결속되었고, 저는 부모님께서 보이시는 모범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결단력과 낙천적인 사고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신앙과 용기와 끈기로 맞서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부모님께서 배웠습니다.

근심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오늘 제 인생의 형성기에 저를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일

저희 가족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했던 일들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을 받고 경력도 있는 공무원이셨지만 석탄 광산 및 우리늄 광산 광부, 기계공, 트럭 운전자 등

힘든 직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귀가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세탁소를 여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허드렛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동생도 어머니의 일을 도왔는데, 저는 자전거로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도 했습니다. 그렇게나마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뻛고,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 육체 노동은 건강이라는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너무 골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변화는 있었습니다. 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꾸준히 계속한다면 상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는 일하는 법을 아는 남녀와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¹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²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온 영혼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라. 그리하면 네 죄가 사함

받으리라.”³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을 잊고 소매를 걷어 올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과 사회, 국가와 교회에 축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저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근심에는 해결책을, 슬픔에는 치료제를 주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은 가능성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서 훌륭한 평판을 쌓도록 합시다. 매일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에 몸담고, 마음을 돌리십시오.

마차가 진창에 빠진 상황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단지 소리 높여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밖으로 나가 마차를 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는, 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실천할 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며 생각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목표를 마냥 뒤로 미룬다면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영영 볼 수 없습니다.”⁴

모든 일은 고귀하고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라는 야곱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희생하여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고 대중의 인정을 얻는 데만 전념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권을 소유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토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온 여행자일뿐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좇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을 영적인 날개를 펼치는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더 훌륭한 경험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있는 형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은퇴라는 말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나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신권 책임에서 안식년이나 은퇴는 없습니다. “나도 다 해 봤어”란 말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지 않을 때나 오토바이 타러 가지는 제의를 거절할 때, 뷔페 식당에서 매운 카레를 먹지 않고 싶을 때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바친다는 성약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매일 기쁘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을 받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의로운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젊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목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이 가치 있는 모든 노력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린 집사이든 가장 나이가 많은 대제사이든 모두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배움

전후 독일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교육의 기회는 지금처럼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늘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전거로 세탁물을 나르면서 한 급우의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방에는 벽 쪽으로 작은 책상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자기 책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하거나 숙제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내 책상을 갖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년 후에 저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는 한 연구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도서관에서 자유로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곳에서 저만을 위한 책상에 앉아 책을 주는 정보와 지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저는, 교육이란 그저 양동이를 채우듯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격언을 실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머지않아 일어날 일, 국내에 있는 일이나 외국에 있는 일”⁶을 배워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배움을 사랑했습니다. 조셉의 일지에는 공부하며 보낸 날들이 즐겁게 기록되어 있고 종종 배움에 대한 애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⁷

조셉은 성도들에게 “사람은 지식을 얻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⁸ 때문에 지식은 필멸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난다”⁹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은 암흑과 [격정파] 의심을 없애 주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¹⁰라고 선지자 조셉이 가르쳤듯이 배움은 고난의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과 정원회 회원들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십시오.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그런 환경에서는 가장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대학”이자 강의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항상 열려 있고 모든 지원자를 받아 줍니다.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¹¹ 모든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¹² 지식을 구하십시오. 겸손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¹³ 세상적인 공부라 할지라도 공부에 신앙이라는 영적인 면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지적인 역량은 증대됩니다.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기”¹⁴ 때문입니다.

배움을 추구할 때 계시의 샘을 잊지

마십시오. 경전과 현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와 신성한 지식과 개인적인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십시오. 우리를 평화와 진리, 그리고 영원에 관한 웅대한 신비로 이끄는 지식을 그곳에서 구하십시오.¹⁵

결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래를 걱정하며 불친절한 말 때문에 오래도록 아픔을 느끼던 열한 살 소년 시절을 돌아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슬픈 애정을 갖고 기억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날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제가 배웠던 교훈이 미래에 반드시 올 기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저는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성품과 운명을 형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다가오는 날에는 의로운 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순수한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진리를 깊게 들이키면서 마음과 정신을 고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저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창세기 3:19.
- 교리와 성약 84:79.
- 교리와 성약 31:5.
- 토마스 에스 몬슨, “왕 같은 제사장”,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59쪽.
- 니파이후서 9:51.
- 교리와 성약 88:79~80 참조.
- Journals: Volume 1: 1832~1839년, vol. 1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편집(2008년), 84, 135, 164쪽 참조.
-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4:588.
- 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5:340.
- 신앙개조 제13조.
- 교리와 성약 109:7.
- 교리와 성약 136:33 참조.
- 교리와 성약 88:67.
- 교리와 성약 42:61 참조.

준비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청남들이 신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대한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옳은 선택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 어느 곳에 있던 가까이 작은 올리브 기름병을 두고 지냅니다. 제 사무실 책상 가운데 서랍에 한 병이 있고, 밖에 있거나 여행을 할 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집에도 하나 있는데, 부엌 찬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병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순수한 올리브유를 병 고침을 위해 신권 권능을 행사하여 성별한 날짜입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들이나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들도 제가 좀 유별나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전화가 오거나 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제발 빨리 좀 와 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하는 일은 늘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오래 전에 병원에서 전화를 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 살배기 딸이 길 건너에 있는 엄마에게 뛰어가다 차에 치여서 15미터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그 아버지는 신권 권능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우리는 플라스틱 창을 통해 손을 뻗어서 아이의 머리를 두겹게 감싼 붕대 사이로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세요. 아이가 죽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아이는 살았고 의사의 말과는 달리 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걷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별된 기름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신권 권능이 필요한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에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가정과 아론 신권 정원회, 그리고 대개는 청남의 개인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정원회와 가족이 도와 주어야 하지만, 청남들이 신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대한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옳은 선택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자라나는 세대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려 병자를 치유할 준비를 갖추는 일을 훨씬 능가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임무가 정확히 무엇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순종하고 꾸준히 봉사할 때 길러집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두 가지 사항과 준비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이며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을 만큼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갖추었는지 보여 주는 예가 목몬경에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려운 임무를 받은 니파이라는 신권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사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치라고 니파이를 보내셨습니다. 간악함과 증오에 찬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슬픔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겸손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니파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니파이에게 권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파이에게 하신, 사랑이 넘치고 권능에 찬 말씀은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네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네게 준 말을 네가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이제 내가 것처럼 지지치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어,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네 말을 좇아 모든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내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보라, 너는 니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불 지어다, 내가 이를 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네게 선포하노니,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고, 이 백성의 간악함을 좇아 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땅을 칠지니라.

보라,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 백성 가운데 권능을 지닐지니라.”

물문경에 기록 되었듯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니파이는 하나님께 기후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니파이는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근이 일어나는 기적을 간구했습니다. 곧 기근이 닥쳤고,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니파이에게 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니파이는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니파이가 신앙이 필요했던 그 순간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신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니파이는 용감하게, 항상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청남 여러분은 미래에 그러한 신앙이 필요할 때를 위해 지금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 정원회나 교사 정원회에서 꼼꼼하게 모임 기록을 작성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렇게 세심하게 기록을 하는 청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겨우 몇 개월 생일이 빠른 정원회 소년들이 결정하고 실행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겨우 열두 살 난 소년들도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시고 계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 옛날 집사 정원회 서기 중 일부는 현재 교회의 여러 회장단에서 일합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형제들이 준비해 준 모임 기록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같은 소년이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도 계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비록 작아 보이는 일에도 그분의 뜻을 알려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간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를 신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를 그토록 신뢰하기에 앞서, 주님은 먼저 니파이가 계시를 믿고, 계시를 구하며, 그 계시에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순종했기 때문에 니파이는 신권으로 기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는 이 연차 대회에서나 들을 범한 영감에 차고 힘 있는 말씀을 집사, 교사, 제사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신권 소유자들이 받은 권능을 느끼면서 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밀물이 밀어닥치듯 우리 주변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선 세대인 우리가 그 차오르는 물결

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론 신권 형제들이 준비되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또한 아론 신권 형제들이 섬기게 될 그들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준비하겠다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며 그분의 사랑이 깃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들이 신앙을 키우고 영감에 순종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방해하는 아버지는 언젠가 슬픔을 맛볼 것입니다. 청남들이 예비 신권 소유자일 동안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신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대부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 성신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는 조용한 메시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죄를 저지르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더욱 희미해집니다.

청소년들이 준비되도록 우리는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경고하며,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충실하고 영감에 찬 종으로서 모범을 보일 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과 정원회, 공과 교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진정한 신권 소유자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가장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 되어야 하나니.”² 우리가 청남들을 이끌고 가르칠 때, 절대로 자만심이나 자기 야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강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 보여야 할 모범의 높은 표준입니다.

저는 제가 교사와 제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그러한 모범을 보았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다른 형제님들은 우리를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든 그러한 결의를 하게 만든 동기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각 정원회의 모든 고문은 일요일에 대화를 나누지 못한 청남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석한 소년이나 그 소년의 부모, 아니면 그 소년의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은 모든 소년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에 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청남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감독님과 형제님들은 단지 우리를 돌보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감독님과 정원회 고문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모범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중에 장차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게 하려고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그분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감독님이 사용했던 “일이 끝날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이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청남을 지치지 않고 돌보며 신속히 돕는 모범은 우리 삶에 하늘의 권능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이 모범은 가정에서,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대비하여 청남들이 준비되도록 도왔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청남들을 준비시키는 데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모범에서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때때로 제가 한 일에 대해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네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³

저는 호되게 지적을 당한 후에도 아버지의 꾸짖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마땅치 않아서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며 더 강하게 꾸짖으실 때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지도자이며 훈련자이십니다. 그러나 절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에서 주어진 약속이 아버지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미친 영향력은
그분에게 “영원무궁토록”⁴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과 지도자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제시한
표준에 부합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자녀나 청소년을
날카롭게 꾸짖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하지 않을 일이거나 하지
않는 일을 아들에게 하라고 하거나 회생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후회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서 성약한 대로 모범을 보이며 더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와 지도자로서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도록 돕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여러분을 도운
훌륭한 지도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되려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 자녀와 청남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성별된
기름이 들어 있는 병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
저녁을 기억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열의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청남들이 스스로
주역이 될 봉사와 기회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도움으로 그들은 확실히 준비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신권
소유자로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지상에서 신권의
모든 열쇠를 소유하고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힐라맨서 10:4~7.
2. 교리와 성약 121:41~42.
3. 교리와 성약 121:43.
4. 교리와 성약 121:46.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나의 형제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가 언제나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싶다면 화를 내는 것을
삼가야만 합니다.



형 제 여러분, 우리는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강력한 신권 조직체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영감 받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주님의 영감이 제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보도에
등장하는 비극 모두가 한 가지 감정, 바로
분노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요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어느 아버지는 아기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여 체포되었는데, 그는

아기 울음 소리에 격분하여 아기의 갈비뼈
여러 개와 다른 부위의 뼈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했습니다. 폭력 집단과 관련된
살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집단
폭력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에 보도된 또 한
가지 소식은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질투에 휩싸여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아내에게 총을 쏘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다룬 일상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편의 저자가 남긴 다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¹

수년 전에 한 젊은 부부가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러 와도 되겠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극을 겪었으며
결혼 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을 하자 아내는 조용히
울면서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후에 미
동부에 있는 일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교에 있는 한 와드에서 미래에
신부가 될 사람을 만났고, 그녀도 같은 대학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09년 10월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십이사도 장원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보이드 케이 팩커



켄톤 펄트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퀸스



엠 러셀 홀트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엠 쿡



디터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철심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로스



로널드 오 월 앨런



스티븐 디 리क्स



월터 에프 한콕



브렌트 니 윌렌츠



제이 이 헨슨



도널드 웬 스토워드

철십이 제일 정연회



미로슬라프 에이
야우자키비치



키스토스 에이
에이치 에피도



아번 비 아너드



데이비드 에스
박스터



세인 엠 브렌넨



제임스 코세



최영환



크래이그 시 크리스텐슨



저리 제이 플린



스펜서 제이 훈카



로런스 이 코브러지



벤자민 데 호요스



존 피 뉘넨



데이비드 에드 에건즈



앤드류 제 플라넬라



앤드류 조 게어킷



카를로스 에이 그로이



크리스토펬 몰든 이세



시 스킵트 그로우



브루스 시 한



제임스 제이 헤퍼너



키스 케이 헐버그



리처드 제이 헤퍼너



글렌 제 피어스



다니엘 엠 쉰슨



케네스 쉰슨



폴 브이 쉰슨



조시 오키오 가우셰



폴 이 홀라커



에릭 더블류
코우파슈케



리처드 제이 헤퍼너



마커스 비 나쉬



브랜던 에이저 나쉬



글렌 제 피어스



다니엘 엠 쉰슨



케빈 더블류 피어스



앤소니 디 파킨스



폴 피어피



리파엘 이 노노



브루스 디 포터



칼 비 프랫



다니얼 제이 헐버그



마이클 티 할루드



짐 지 호핀슨



세amus 오 시우헬슨 이세



조셉 더블류 시타티



폴 세셀로스



케이 이 스티븐슨



마이클 쉰 유 티



조세 에이 테제이라



마크 제롤모



토머스 조 제이
바나스



윌리엄 엠 할러



에프 마이클 쉰슨



덴스 비 워커먼



조지 에드 제롤모



윌리엄 디 지빅



데이비드 크레이그 조양코

철십이 제이 정연회



윌리엄 엠 할러



조지 에드 제롤모



윌리엄 디 지빅



데이비드 크레이그 조양코



마이클 쉰 유 티



조세 에이 테제이라



로버트 엠 스노우



폴 케이 시브로스키



켄트 디 잭슨



로버트 엠 스노우



토머스 조 제이
바나스



윌리엄 티 할루드



에프 마이클 쉰슨



덴스 비 워커먼



조지 에드 제롤모



윌리엄 디 지빅



데이비드 크레이그 조양코



마이클 쉰 유 티



조세 에이 테제이라



로버트 엠 스노우



폴 케이 시브로스키



켄트 디 잭슨



스펜서 제이 헐버그



리처드 제이 헐버그



마커스 비 나쉬



브랜던 에이저 나쉬



글렌 제 피어스



다니엘 엠 쉰슨



케빈 더블류 피어스



앤소니 디 파킨스



폴 피어피



리파엘 이 노노



브루스 디 포터



에릭 더블류
코우파슈케



폴 케이 시브로스키



켄트 디 잭슨



스펜서 제이 헐버그



리처드 제이 헐버그



마커스 비 나쉬



브랜던 에이저 나쉬



글렌 제 피어스



다니엘 엠 쉰슨



케빈 더블류 피어스



앤소니 디 파킨스



폴 피어피



리파엘 이 노노



브루스 디 포터



에릭 더블류
코우파슈케



폴 케이 시브로스키



켄트 디 잭슨



스펜서 제이 헐버그

김리 감독단

김리 감독

김리 감독

김리 감독



김리 감독



김리 감독



김리 감독



전 세계 곳곳에서 후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교리와 성약 90:11) 연차 대회를 시청한다. 하단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독일 뮌헨,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브리지워터, 노르웨이 모스, 나미비아 빈트후크, 페루 리마,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 모인 교회 회원들의 모습이다.

학생이었습니다. 1년 동안 데이트를 한 끝에 그들은 유타 주로 와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곧바로 동부로 돌아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내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짧은 휴가를 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용 자동차 시트와 성인용 안전벨트 사용은 고사하고 그런 단어조차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세 가족은 모두 앞 좌석에 앉고, 아이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여행 도중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말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너무 격앙되어서 결국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단계로 번졌다는 것은 기억납니다. 그런 와중에 어린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인데도 남편은 아들의 울음이 화를 더 돋우었다고 했습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아이가 자리에 떨어뜨린 장난감을 집어서 아내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장난감은 아들에게 부딪쳤고, 그 결과 아이는 뇌 손상을 입어 평생토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상황보다도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담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헌신과 책임, 인정과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필요한 애정과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에서 위안을 주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날 이후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제 사무실을 떠날 때에는 눈물 속에서도 웃음 띤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이 서로의 곁에 남기로 결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위로 받고 축복받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다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생각납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분노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는 있다.”²

우리는 모두 분노를 느껴 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해, 또는 우리에게 던진 어떤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 때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상만 했던 손해를 직접 보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받으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제7대 회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청년 시절에 어떤 사람을 위해 일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그랜트 회장님에게 5백 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 그랜트 회장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열 배나 더 힘들고, 열 배나 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장님에게 150달러짜리 수표를 보냈습니다. 짧은 히버는 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한 친구에게 그 일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네를 모욕할 의도로 그랬을까?”

그랜트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친구들에게는 제게 대우를 아주 잘 해 주었다고 말했더군요.”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³

사도 바울은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느끼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경 제3니파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니라.”⁴

화를 내는 것은 사탄의 영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싶다면 화를 내는 것을 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탄의 도구인 분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파괴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토머스 비 마쉬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마쉬 형제는 교회가 지상에 회복된 후에 부름 받은 현대의 첫 번째 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있었을 때입니다. 토머스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마쉬와 그녀의 친구였던 해리스 자매는 이제까지 만들어 온 것보다 좀 더 많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후착유라 불리는 것을

남겨 두지 않고 우유와 후착유를 모두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후착유는 우유를 짤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우유를 말하며 크림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자매는 약속을 충실히 지켰지만 마쉬 자매는 더 맛있는 치즈를 만들기 위해 각 젖소마다 후착유를 약 0.5리터씩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자매에게 후착유를 빼고 우유만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여성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입장을 조정하지 못했고, 결국 가정 복음 교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 마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마쉬와 그녀의 남편은 이 결정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감독을 통해 교회 재판에 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독의 법정은 후착유를 남겨 놓은 것은 잘못이며 마쉬 자매가 해리스 자매와 한 약속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토머스 마쉬는 고등 평의회에 항소했고, 평의회 위원들은 감독의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일회장단에까지 항소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보좌들은 이 사건을 심의했고 고등 평의회는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내 편에 섰던 토머스 비 마쉬 장로는 잇따른 판결에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는 주지사에게 가서 물문들은 미주리 주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릴번 보그스 주지사의 잔인한 몰살 명령의 원인, 또는 적어도 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성도들 만 오천 여 명이 집에서 쫓겨나고 끔찍한 고통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유와 크림 교환을 둘러싼 의견 충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⁵

19년 동안 원한과 상실감 속에서 세월을 보낸 후, 토머스 비 마쉬는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와서 브리검 영 회장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쉬 형제는 또한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히버 시 김볼에게 그가 배운 교훈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마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없이도 이 사업을 진척시키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어도 그분은 잃어버린 것이 아무 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잃은 것을 보십시오! 부, 세상 전부나 수많은 별들보다 더 큰 부를 잃었습니다.”⁶

시인 존 그린리프 위터어가 한 이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 “하나 붓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은 ‘그랬더라면’이다.”⁷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대로 두면 분노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에 빠질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불쾌감이나 짜증 또는 적대감이 생길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통제력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른 사람은 종종 우리 가족, 즉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년 전에 읽은 연합 통신 급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형제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털어 놓았다. 그는 죽은 형제와 어린 시절에 뉴욕 주 카니스테오 근처 작은 오두막 단칸방에서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은 서로 다투고 후 그 방을 반으로 갈라 분필로 금을 그은 적이 있다. 그 날 이후 62년 동안 두 사람은 그 금을 넘지 않았고 서로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분노를 삼가고 독설적이고 상처되는 말을



내뺄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할 때마다,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세기 초에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한 찰스 더블류 펜로즈 장로님께서 쓰신 찬송가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감정을 다스려라, 나의 형제여
성나고 충동하는 영혼을 길들여라.
감정에 영향 받지 말고
지혜의 음성으로 이끌여라.
감정을 다스려라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에 힘이 있으니
걱정은 이성을 무너뜨리고
밝은 눈을 어둡게 만드네.⁸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입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순종하며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곧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에 관한 선언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장차 주어질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성명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성약은 주님께서 주신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⁹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진실되고 충실하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충실하게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¹⁰ 이것이 바로 오늘밤 이 위대한 신권 모임을 마치면서 드리는 저의 간구이자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입니다.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형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주

1. 시편 37:8.
2. 로렌스 터클라스 와일더, “Early Hardships Shaped Candidates”, *데저렛 뉴스*, 1991년 12월 7일, A2쪽에서 인용.
3. 히버 제이 그랜트, *Gospel Standards*, 편집: 지 호머 더럼(1969년), 288~289쪽 참조.
4. 제3니파이 11:28~30.
5. 조지 에이 스미스, “Discourse”, *데저렛 뉴스*, 1856년 4월 16일, 44쪽 참조.
6. 토머스 비 마쉬가 히버 시 김볼에게 쓴 편지, 1857년 5월 5일, 브리검 영 선집, 교회 역사 도서관.
7. “Maud Muller”,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John Greenleaf Whittier*(1876년), 206쪽.
8. “School Thy Feelings”, *영문 찬송가*, 336장.
9. 교리와 성약 84:33~38.
10. 요한복음 13:35.

완전한 모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바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축복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선하다고 착각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소망의 일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계시는 우리가 구주와 만날 날을

모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바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모로나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시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후기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구주와 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자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생각할 때 자만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가장 낮고 겸손한 사람도 구주와 같이 되라는 권유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잘 표현한 초등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저는 어린이들이 방에 가득 모여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의자 앞쪽에

걸터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눈에서 빛이 발하고 마음속 결심이 표정으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노래가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느꼈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 길을 따라가리
주님처럼 나도 모든 이웃 사랑하리라
그릇된 선택을 할 때마다 속삭이듯 들리는
작은 소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가르치심 대로
하라’”

제가 보기에 그 아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을 선언하는 듯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님처럼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열의에 찬 모습과 반짝이는 두 눈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했습니다. 완전하라는 구주의 가르침은 단지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심과 확신은 모든 후기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속죄와 모범을 통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아이들도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동기를 주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그분처럼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매시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가장 훌륭한 노력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사람이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의 본보기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배우는 이상적인 환경의 본보기로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에 더 큰 관심을 둘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랑이 결여된 상태, 즉 이기심에서 슬픔이 비롯됩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슬픔을 떨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의 복지와 행복을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녀의 필요 사항이 부모의 필요 사항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정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깃든 이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가정에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저의 집

근처에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던 어느 여성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서로와 후손들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 묘비 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디 가족 중 누구도 떨어져나가지 않기를”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문제는 각 가족들이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비문을 새기게 했습니다. “부디”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도 그녀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세와 내세에는 가족 안에 행복이 아닌 불행이 있기를 바라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떨어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고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점과 실수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해 주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짐을 가볍게 해 주고 배우자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 부모님의 결혼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어머니가 불편한 것이 많아질수록 아버지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더욱 노력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 자신의 침상을 설치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병실에서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는 동안 아버지는 매일 아침 수천 미터를 걸어서 출근을 하시고 밤이면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사랑이 꼭 필요하던 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 커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서 사랑으로 행하셨을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께 권고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지속적인 사랑을 보이는 면에서도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오라는 권유를 거절한 니파이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들이닥친 멸망 속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곧 내가 살려 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몇 번이라도 하리라.”³

탕자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탕자가 가정을 잊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은 1929년 열린 연차 대회에서 자녀들과 성전에서 인봉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실한 부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양 몇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목자의 눈은 그 양들을 향하고 있으며, 언젠가 신성한 섭리의 손길이 그 양들을 감싸고 그들을 다시 우리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휘트니 장로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주의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으십시오.”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 여러분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이 담긴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네가 주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니라.”⁵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공경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은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질적인 면에서 더 훌륭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입양을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저보다도 제 자녀들의 생일을 더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게는 명절이면 거의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거나 함께 기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말을 건네며 사랑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들려 주면 그 친구들은 제 말을 경청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저는 구주께서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인사 속에서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힘이 성장하고 자신이 완전한 모범이신 구주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걱정과 고난 속에서도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을 기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 길을 따라가리”라고 노래 부르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⁶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순결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침례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으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⁷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른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또는 자녀의 잘못이나 불순종을 용서해 주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때 구주의 사랑과 그분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에게 약속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충실한 가족들도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제3니파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네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니라.”⁸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기회를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평안이 종종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또 머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약속은 참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⁹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자신을 따르라고 손짓하십니다.

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 안에서 견디는 데에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좀 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을 베푸는 신권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 느꼈던 그 확신과 인정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7:48.
2.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3. 제3니파이 10:6.
4. 올슨 에프 휘트니, Conference Report, 1929년 4월, 110쪽.
5. 모사이아서 13:20.
6. 마가복음 10:14.
7. 마태복음 3:17.
8. 제3니파이 22:13.
9. 요한복음 14:27.

미래를 대처하는 과거의 방법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미래에 닥칠 어려운 일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올 여름 유타 주 맨타이에서 열린 Mormon Miracle Pageant(물문의 기적 야외극)에 참석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연 전에 저희는 출연진에게 말씀을 하는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출연진이 아주 많았기에 두 모임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8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그 중 570명은 18세 이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출연진이 100명이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무대 복장을 만들 자매님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조직을 잘 정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대는 맨타이 성전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언덕에 마련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람한 날 밤에는 관람객이 만 오천 명이 달했습니다. 이 수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열정적이면서도 활기차게 맡은 배역을 소화해 내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맨타이를 방문할 때마다 꼭 하고 싶어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크나큰 희생을 치르며 건축한 오래된 성전에는 특별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맨타이 성전 의식에 참여했을 때 저는 감상에 젖게 되었습니다. 유타 주 로건 성전이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기 전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받을 때 의식실을 지날 때마다 저는 초기 개척자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수 지은 이 건물을 보십시오. 동력 공급 장비도 없었고 건축을 도와줄 도급자나 하도급자도 없었습니다. 육중한 돌을 들어올릴 복합 크레인도 없었지요. 이 일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들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산페테 군의 초기 개척자들이 남긴 영광스러운 유산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¹ 그가 남긴 이 권고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미래에 닥칠 어려운 일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초기 목론 개척자들은 우리가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신앙과 용기, 독창성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은 한없이 커지기만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습니다. 집과 사업, 농장,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떠나야 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이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²라고 공표하실 때 그들은 분명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뻗은 황량한 사막뿐이었고, 대부분의 초기 개척자들이 생각하던 푸른 언덕, 나무들, 아름다운 목초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지도자들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소매를 걷어 부치고 산 아래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여행으로 지쳐 있던 많은 개척자들이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브리검 영 회장은 베이스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집을 떠나 동쪽이나 서쪽, 또는 북쪽이나 남쪽으로 다시금 이동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산페테 군을 비롯한 페어뷰, 에브라임, 맨타이, 모로나이, 마운틴 플레전트 공동체가 개척되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산페테 군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초기 개척자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조금 내어 새로 건축된 교회 역사 도서관에서 그들의 역사 자료를 열람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는 1849년으로,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서부의 위대한 개척자인 브리검 영 회장은 한 무리의 성도들에게 남쪽으로 내려가 황량한 사막에 새로 살 보금자리를 지어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명했습니다. 개척자들이 산페테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맨타이 공동체에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이셨던 히버 시 김볼 회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볼 회장은 그들에게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이 건축에는 동쪽에 있는 산에서 채취한 돌이 사용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김볼 회장이 방문한 후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성전을 지으려는 조치는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성전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다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이곳에 생기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879년 4월 14일 월요일, 드디어 초석이 놓였습니다. 그들이 산페테 계곡에 도착한 지 약 3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한 인부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핑클리 회장은 여러 해 전에



있었던 맨타이 성전 재헌납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내로라하는 여러 건물에 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척자들이 지은 하나님의 집을 방문할 때 느끼는 것만큼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³ 핑클리 회장님 가족에게 맨타이 성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조리 핑클리 자매님의 할아버지께서 맨타이 성전을 건축하던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처할 때 과거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맨타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제가 배운 참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타이에 도착하여 정착한 노르웨이 출신의 숙련된 목수 몇 명은 성전 지붕을 건축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수들은 지붕 구조물을 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배를 건조하는 일에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한 척 만들면 어떻게? 잘 만든 배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니까, 그 설계를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견고한 지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목수들은 곧 일에 착수해 배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다 마치고 나서는 설계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맨타이 성전의 지붕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목수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였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어려운 과제에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항해에 적합한 배를 건조할 때 적용하는 동일한 원리를 견고한 지붕을 만드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정확하게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구조물은 모두 방수가 돼야 합니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 특성은 구조물의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즉 오른쪽 면을 위쪽으로 돌리든 거꾸로 뒤집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래 존속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본 원리에 대한 실용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배 건조나 지붕 건축에 관한 원리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영원한 원리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러한 영원한 원리와 진리를 배우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인도를 구하려고 영에 귀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선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원한 원리와 진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초기의 그 개척자들에게 이 원리와 진리가 없었다면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와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위험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미래에 대처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진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이 노르웨이 배 건조자들은 배 건조 기술을 응용하여 성전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고 왔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우선 순위에서 그토록 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원리와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이 단지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50편에 있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침례를 받으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의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최근에 선교사 프로그램을 수정했습니다. 마치 맨타이 성전 지붕을 만들려고 배를 거꾸로 뒤집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스테이크 선교부를 없애고 선교 사업의 주된 노력을 와드 선교 조직으로 이양했습니다. 각 와드 평의회에서 마련한 와드 선교 계획이 시행되자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대부분 전임 선교사가 와드 평의회와 와드 선교 책임자, 교회 회원들과 밀접하게 함께 일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와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업을 진행하면 회원들이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 집에서 토론을 하도록 구도자를 초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선교 사업에 동참하면서 감미로운 축복을 몸소 경험하고, 와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의 임무를 일깨워 주는 권고를 정기적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소중한 지식을 더 활기차게 나눕니다. 회원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과 이웃, 가족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업에 더욱더 참여하게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그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사업에 친숙한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회원들을 통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소개하는 회원이 있는 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회원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구도자 친구의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는 그 친구가 복음을 배우는 데서 발전을 보이게 되면 매우 좋아합니다.”

실제로 구도자를 가르치는 일의 대부분은 전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수행하겠지만, 회원들도 질문에 답하고 간증을 나눌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 복음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임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간단한 방법으로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매우 기본적인 토론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회복,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감받은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활용하십시오. 전임 선교사들이 복음 토론을 가르칠 때 그들을 잘 보조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멘타이 성전 지붕을 건축한 노르웨이 출신의 배 건조자들이 가르쳐 준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와 진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그들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했던 소망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잘 익힌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우리처럼 영원히 지속될 확신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이 후기를 살아 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담겨 있는 모든 진리와 원리,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마련된 그분의 신성한 길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George Will, "One Man's America", Cato Policy Report, 2008년 9월/10월, 11쪽에서 인용.
2. 윌포드 우드럽, *The Utah Pioneers*(1880년), "Celebration of Pioneers' Day", 23쪽에서 인용.
3. "Manti Temple Rededicated," *Ensign*, 1985년 8월호, 73쪽에서 인용.
4. 고든 비 힝클리,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19쪽.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우리는 높이 일어서서 일상 생활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덕성들이 끊이지 않도록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페 이스 장로님, 청중과 연사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 제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무렵,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몇 가지 일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앙개조 열세 개를 순서대로 암송하는 것이었는데, 처음 열두 개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제13조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미덕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내심 많고 끈기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

덕분에 마침내 13조를 다 암송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부부와 아이들은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과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으로 함께한 40여 년 동안 그분은 제 학습 장애에 대한 우리 사이의 조그만 비밀을 끝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오늘 저는 우리가 덕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성은 기독교적인 삶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입니다. 개인적인 미덕을 나타내는 많은 영어 단어의 철자를 보면 *ity*라는 글자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integrity, humility, charity처럼 말입니다. 그런 미덕에는 고결, 겸손, 자애, 영성, 책임, 예의 바름, 충실함 등이 있는데 이런 단어는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공통점에 착안하여 저는

이렇게 *ity*로 끝나는 미덕들을 “*ity*” 미덕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ity*”는 어떤 것의 수준과 상태와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해도 미덕이라는 개인적인 특성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혼잡한 고속도로 위에 있는 운전자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중에 화 내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정치 관련 담론에서 예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융 및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성실과 정직이 탐욕과 부정으로 대체되어 버린 듯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 보면 종종 심한 언어나 정숙하지 못한 복장을 접합니다. 몇몇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정신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 부정 행위가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는 한 좀처럼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현세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빌리고는 오히려 은행과 대출업자를 탓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얻으려는 욕구가 커질 때, 좋은 일을 지지하려는 관대한 마음은 우리에게 힘을 잃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침투하여 전염되는 도덕 불감증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미덕을 버린다면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영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앙과 충실함이 줄어들고 가족의 결속과 영성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이 줄어들며, 법치주의가 도전받거나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의 온상이 만들어져 사탄이 엄청나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 일어서 일상 생활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덕성들, 즉 “*ity*” 미덕들이 끊이지 않도록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과 함께 덕성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부모가 보이는 훌륭한 모범은 그대로 본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좋지 못한 모범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좋지 않은 모범을 키우게 합니다. 위선적인 모범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덟 살인 메건은 피아노를 즐겨 칩니다. 최근에 메건의 피아노 선생님은 메건이 매일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면 상으로 도너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메건에게 주 중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날 연습을 했다면, 메건은 도너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 중에 전화를 했을 때, 메건은 집에 없어서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습 시간에 선생님은 메건에게 연습을 했는지 물었고, 메건은 자기 생각에 연습을 한 것 같다고 대답하고 도너츠를 받았습니다. 메건의 어머니는 그 도너츠를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메건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선생님과 메건이 다시 만났을 때, 음악 이론 작문 숙제를 실제로 다했다는 것이 밝혀져 메건은 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관심을 가진 부모 덕분에 이 훌륭한 가르침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열다섯 살 된 제 손자 벤은 대단한 스키광이며, 여러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이다호에서 열리는 한 대회에 앞서 벤의 부모는 성적에 따라 그 대회에 나가도 좋은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선 밸리의 한 콘도를 예약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회를 보러 오신다기에, 벤은 모두가 기대하는 높은 성적을 거두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벤의 성적은 목표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결국 스키 대회에 나가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학생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점수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벤은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것처럼 확고부동하게 자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고결함이 바로 미덕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함을 “도덕적 가치 규범에 확고히 따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결이란 단련된 양심에서 발산하는 빛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의무에 따르는 힘”(“Integrity, the Mother of Many Virtues”, *Speaking Out on Moral Issues*, [Bookcraft, 1992], [1998], 61~67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고결함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는 덕스러운 특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결하지 않다면 많은 경우, 정직도 잊혀집니다. 고결하지 않다면 예의 또한 손상됩니다. 고결이 중요하지 않다면 영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수기 30:2)

몇 년 전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존엄성과 정직과 고결이 복수나 분노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면, 그리고 존경과 친절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자포자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Family Values in a Violent Society”, *Deseret News*, 1994년 1월 16일, A12,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4쪽에서 인용)

어쩌면 여러분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잃어버린 세대’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또는 제이 엠 배리 작가의 희곡 ‘피터팬’에 나오는 잃어 버린 소년들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이클 맥린의 “잊혀진 캐롤”이라는 앨범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덕스러운 특성, 특히 “ity” 미덕들은 절대로 잊혀지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잊거나 무시한다면, 그것들은 불가피하게도 “잃어버린 미덕”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미덕들을 잃게 되면 가족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며, 중요하고 영원한 관계들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덕스러운 특성이 널리 실천된다면 이 사회를 굳게 움켜쥐려 사탄의 손아귀에 힘이 풀리고, 필멸의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사로잡으려는 사탄의 교활한 간계가 무산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모두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듣기 좋거나 칭찬할 만한 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동참할 때입니다. 쉬지 않고 덕으로 우리 생각을 장식하고, 삶 속에 덕스러운 특성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의 지역 사회와 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가족이 강화되고, 신앙과 고결함이 우리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고결함과 정중함, 정절, 자애, 관대함, 도덕성, 그리고 모든 “ity” 미덕들을 실천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간중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이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겸손히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곧게 붙드십시오

앤 엠 딘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필멸의 시험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역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이후로 내내 그것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세인트 캐서린스에 있는 38미터 높이의 다리에서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발판이 붕괴되어 4명이 사망했다. 다리 밑바닥을 1시간 넘게 붙잡고 견딘 7명은 결국 구조되었다.” (“News Capsules”, *Deseret News*, 1993년 6월 9일, A2면)

그때나 그 이후로나 저는 이 짧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얼마 후에 세인트 캐서린스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부들이 근 일년 동안 가든시티의 스카이웨이 브릿지에 페인트칠을 했으며, 사고가 났을 당시는 작업 완료가

2주일 남은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관련자들은 이들이 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았는지를 추궁 받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인부들에게 장비가 있었지만 단지 착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판이 붕괴된 후, 생존자들은 겨우 20센티미터 남짓 되는 강철 가로대 위에 서서 2.5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강철 대들보의 턱을 붙잡은 채 구조대가 다가갈 때까지 한 시간이 넘게 서 있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다리에 매달린 채 가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정말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Rick Bogacz, “Skyway Horror”, *Standard*, 1993년 6월 9일)

이 사고에는 배울 교훈과 비유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그와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극적인 상황을 겪지는 않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힘들고 무서운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2.5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강철 대들보의 턱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필멸의 시험 기간은 쉽지 않으며, 짧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생은 우리 자신을 입증하고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서 3:25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예이름서 1:2; 엘마서 42:5; 모세서 6:62 참조)과 구속(야곱서 6:8; 엘마서 12:25; 42:11 참조)의

계획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계명을 거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직업 상황과 임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외로움이나 긴장 관계, 배신, 유혹, 중독, 육체의 한계, 절실히 필요했던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소망과 꿈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부름과 가족으로서 해야 하는 임무에서조차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용인하는 죄를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와 위험 요소는 고대와 현대의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은 높은 다리에서 38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죽음의 위협처럼 불안하고 현실적입니다.

제 삶도 완벽하지 않으며,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탄의 유혹과 죽을 수 밖에 없는 곤경이 늘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철 대들보를 붙잡고 버티는 위험한 경험을 하고서 구조된 인부가 “정말로 너무나 무(무)섭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경전에는 아무런 방해나 시련 없이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내와 의로움으로 문제를 극복할 때 배우고 발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힘을 얻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 특별한 직책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안내나 인도도 없이 그저 운에만 의존하며 혼자 견제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의 장점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사탕무, 그리고 영혼의 가치”, *리아호나*, 2009년 7월호, 3~4쪽)

필멸의 시험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개인 기도, 경전, 살아 있는 선지자, 성신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이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세상에 뒤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려면 근면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안전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안전 장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쇠막대”에 대해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안전하게 찾기 위해 쇠막대를 붙잡도록 권유 받습니다. 저는 물론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생명나무의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물론경의 선지자인 리하이와 그의 아들 니파이는 각각 필멸의 시험 기간의 상태와 그에 따르는 위험을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매,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니파이전서 8:23)

그러나 “부친은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셨나니, 그들이 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았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니, 드디어 나아와 엎드려져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니라.”(니파이전서

8:30)

리하이의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각자의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나 있는 이 안전 난간, 즉 쇠막대를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니파이는 쇠막대를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니파이전서 15:24)

여러분, 이 영감 어린 시험의 전문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이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일상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쇠막대를 굳게 붙들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선지자이셨던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좌절에 빠지기 쉬운 시기에, 남자와 여자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절실히 구하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쇠막대’입니다. 이 쇠막대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은] 모든 것을 결국 파멸시킬 이상하고 구불구불한 길 가운데에서 영생에 이르는 곧은 길을 따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인도자와 같은 것입니다.”(“The Iron Rod,” *Ensign*, 1971년 6월호, 7쪽)

이 인용 말씀은 제가 십대였던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과 더더욱 관련된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은 주전 600년이든 1971년이든 또는 2009년이든 상관없이 늘 경고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지자요 선견자며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의 영감 어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으며, 그에 따라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쇠막대를 잡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의 압력이나 자만심, 또는 나중에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쇠막대를 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 장비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시현에서 리하이는 쇠막대를 놓아 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니파이는 “많은 자가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니파이전서 8:32)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 우리 또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쇠막대를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굳게 붙들며, 놓지 말라는 불변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니파이처럼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도록”(니파이전서 15:25) 제 영혼을 다하여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안전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근면에 대해 축복하실 것이라 믿으십시오.

저는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알며,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은 저의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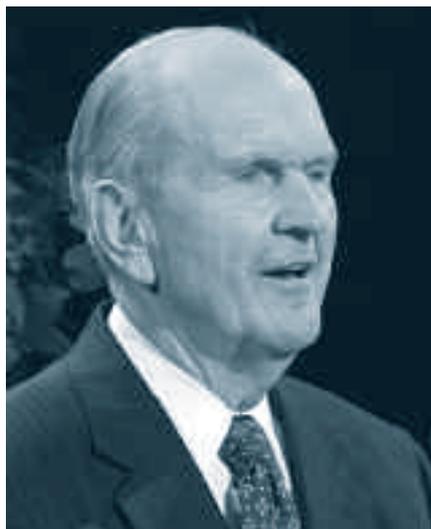
어느 저녁에 저는 조금 낙담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누리는 축복과 성전의 약속된 축복은 너무나 훌륭해요, *다만 우리가 다가가서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한다면요.*” 그분은 주저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진리가 문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후기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분 한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이 함께 이 대화를 볼 수 있게 한 기적과 같은 현대 통신 기술에 감사합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우리는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 전화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웬디와 저는 업무 차 다른 대륙을 방문하던 중에 우리 가족 안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장치나 프로그램, 또는 사용료 없이도 하늘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필멸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비로운 권유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주시겠다는, 시간을 초월한 이 제안은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해당됩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하늘의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으려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수년 전, 연차 대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열중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에서 문득 깨어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뇌리에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 옆에 놓인 연필과 종이에 손을 뻗어 최대한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영감을 놓치지 않은 것에 안심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종이를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 종이와 연필을 둥니다만, 이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글씨를 씁니다.

하늘에서 오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굳건한 신앙과 깊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간구해야 합니다.² “진정한 의도”란 하늘에서 주는 지시를 진정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건은 문제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회복된 교회의



트윈 시티스 제2지부(몽족),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울 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³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순종하는 것도 준비를 갖추는 일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주님의 진리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안식일, 성찬, 침례 및 확인에 관련된 가르침과 계명들도 그렇습니다.

일부 계시는 특정한 상황에서 받았습시다. 예를 들어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모세와 리하이와 브리검 영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힘든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그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려는 소망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 그분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것은 크나큰 변화입니다.⁵

또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⁶

최근에 저는 한 사람에게서 그런 크나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십여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들이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인수를 받고 난 후, 저는 그 아버지에게 팔을 두르고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인봉을 받고 싶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와서 제가 그 인봉의식을 집행한다면 영광이겠습니까.”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주 전에, 그가 아내와 함께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정답게 인사를 건네고는,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며 지상에서 보낼 시간이 정말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개종을 했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청력을 잃고 나서야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봉되는 일을 제가 얼마나 가슴

깊이 원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합당하며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봉을 집행해 주시겠습니까?”⁷ 저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개종이 일어난 후에는 그 이상의 영적인 발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영적인 분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다는 가려내다,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⁸ 영적인 분별의 은사는 하늘에서 오는 선물입니다.⁹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통해 교회 회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은 가난한 이웃을 찾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할 때 이 은사를 활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매들은 세상의 유행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이 은사를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럴듯하고 덧없는 계획과 고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오래 전에 존 테일러 회장이 주신 중요한 가르침에 내재되어 있습니다.¹⁰ 테일러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회장단의 의무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권의 어떤 부름이나 직책도 그 소유자의 개인적인 이득과 보상,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돌보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¹¹

자신의 필요 사항과 책임에 관련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을 키우라고 명하십니다. 굳은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과] 근면”으로 구할 때 우리는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께 문이 열릴 것입니다.¹²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언제나 그분의 영원한 율법과 일치합니다. 절대로 그분의 교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자세는 계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모든 비밀[과] …… 나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¹³

계시가 모두 한 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며.”¹⁴ 인내와 끈기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한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회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견고하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¹⁵라고 말했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기록된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¹⁶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인도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권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살아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¹⁷ 주님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계신 것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권고에 귀 기울여 따르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7:7; 누가복음 11:9; 제3니파이 14:7; Bible appendix,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7:12.
2. 모로나이서 10:4
3. 교리와 성약 9:8.
4. 고린도전서 2:14.
5. 모사이야서 5:2; 엘마서 5:12~14 참조.
6. 모사이야서 3:19.
7. 그러한 개종은 온전합니다. 예를 들어 존 뉴튼(1725~1807)은 그의 삶을 바꾸어 노예상인에서 헌신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개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일세!(얼마나 감미로운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있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Amazing Grace,” *Olney Hymns*, [1779], 41장)
8. *분별하다(Discern)*는 “나누다, 또는 구별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discerner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접두사인 *dis*는 “따로”라는 뜻이며 접미사인 *cernere*는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discern” 참조)
9. 교리와 성약 46:23, 26~27 참조.
10. 1877년 브리검 영 회장의 사망 이후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 업무를 이끌었습니다. 사도들이 대신한 공백 기간은 제일회장단이 재구성된 188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어졌던 1878년 2월 23일 당시 존 테일러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11. James R. Clark 편집,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1965~75) 2:307.
12. 교리와 성약 4:5~6; 또한 7절 참조.
13. 교리와 성약 76:5~7.
14. 니파이후서 28:30.
15. 교리와 성약 110:1.
16. 교리와 성약 138:11.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었던 이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 관한 계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29~37절 참조)
17. 교리와 성약 1:30.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분 한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리며, 영감받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몇 년 전에 의학박사인 잭 맥코넬이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 주 남서쪽에 위치한 산골에서 감리교 성직자인 아버지와 전업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곱 번째 자녀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가족의 생활 여건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맥코넬 박사는 어린 시절에 매일 저녁,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으면 아버지께서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니?”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은 매일 선한 일을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맥코넬 박사는 그 경험이 바로 아버지께서 남겨 주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와 매일 받은 질문 덕분에 맥코넬 형제자매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봉사하려는 동기는 이제 [부모님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맥코넬 박사는 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경력을 자랑하는데, 그는 결핵 타인 검사(Tine Test) 개발을 이끌었고, 소아마비 백신 개발 초기 과정에 참여했으며, 타이레놀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MRI 개발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의료 자원 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인 조직을 창설하여 은퇴한 의료 종사자들이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며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맥코넬 박사는 은퇴한 이래로 자신이 누리던 여가 시간이 “무보수로 60시간씩 봉사하는 일정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중의 하나는 ‘의료 자원 봉사자’ 조직에서 일하면서 환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² 그러한 진료소는 이제 미국 전역에 7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맥코넬 박사가 되어 의료 진료소를 개설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³ 물론경에 나오는 베나민 왕의 친숙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⁴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⁵

저는 구주께서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은 196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살지만 가슴으로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손을 뻗으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⁶

모든 교회 회원들의 마음속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저 가법게”⁷ 하도록 성약을 맺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

먹습니까? 하지만 하루 하루 일상 생활에 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그 일을 맡기며 “그래, 분명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라고 정당화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쁜 삶에 치여 삽니다. 하지만 잠깐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얽매어 사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위대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더 중요한 대업과 관련된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해 전에 알게 된 시 한 편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시를 제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밤 새워 울어 본 적이 있지
다른 이의 필요를
내 좁은 시야로 보지 못했기에.
하나,
지나치게 친절했다며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돋워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푸념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내 할 일을 하며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년 전쯤에 저는 생일을 얼마 앞두고 교회 소식(Church News)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기자는 전 세계 회원들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거나 아프거나 고독한 사람을 찾아서 무언가를 해주십시오.”⁹

올해 제 생일에 전 세계 회원들이 보낸 수백 통의 편지와 카드를 받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일 소원으로 말한 내용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적어서 보내 주셨습니다. 인도주의 물품 세트 만드는 일에서부터 정원 손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봉사하도록 권유했고, 그렇게 시작한 봉사 활동을 기록하여 보내 주셨습니다. 기록한 방법도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여러 장을 하나로 합쳐서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책을 만들어 보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책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려 색칠까지 한 카드와 그림도 있었습니다. 매우 독창적인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자칭 “파스하고 포근한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백 개나 큰 단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각기 한 해 동안 행한 봉사 활동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봉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스하고 포근한 것들”을 병에 넣었을 때 느꼈을 행복이 조금이나마 상상이 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제가 받은 여러 선물과 함께 온 수많은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렸답니다.” 여덟 살인 한 소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는 엄마와 가족을 도우려고 장난감 서랍을 정리하고 청소했어요. 다 마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일 좋았던 건 엄마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엄마는 행복해 하셨어요.” 열한 살 난 한 소녀도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와드에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에게는 어린 딸이 셋이나 있죠. 어느 날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어디 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저에게 5달러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무료로 돌보는 봉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몽골에 사는 한 초등학교 아이는 어머니의 불편을 덜어 드리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다고 합니다. 네 살 난 초등학교 남자 아이는 이렇게 적었는데, 초등학교 교사분이 써 준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육군 훈련을 받으시러 며칠간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제 특별 임무는 엄마를 꼭

껴안아 주고 뽀뽀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홉 살 난 여자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조 할머니를 위해 딸기를 따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었어요.”

열한 살 난 남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의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드렸답니다. 방문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온 것을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한 리차드 엘 에번즈 장로님이 오래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성과를 내던 시기에서 모든 것을 손에서 훌훌 털어 놓아야 하는 시기로 인생이 변할 때 찾아오는 외로움을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오랜 기간 가정의 중심이자 모든 사람이 찾던 위치에서 거의 하루 아침에 변방으로 물러나 삶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신세가 되면 외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 오래 살고 나이가 들면 가구만 있고 텅 빈 방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현재에 충실하도록 도우려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보호 시설에서 직업 때문에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려 깊은 행동과 …… 가식 없는 사랑으로 현재의 삶, 즉 일몰의 파스한 빛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¹⁰

또한 병원에 기증할 담요를 만들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고, 그 밖에 수많은 봉사 활동을 한 청년 청년들이 제 생일에 맞춰 보낸 카드와 편지도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차고 넘치는 상호부조회에서는 평소 하던 것 이상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신권회에서 또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 아내 몬슨 자매와

저는 그야말로 많은 시간을 내어 선물을 보고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를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눌 때 제 마음이 참으로 충만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¹¹

형제자매 여러분, 잭 맥코넬 박사와 그의 형제들이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듣던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귀에 익숙한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공평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줬나
우리 실수 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지시라
병들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¹²

우리 모두가 하도록 부름받은 이러한 봉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봉사입니다.

그분의 대업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¹³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다른 이가 들었던 그 음성이 저 멀리에서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¹⁴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잭 맥코넬,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Newsweek*, 2001년 6월 18일자, 13쪽.
2. 잭 맥코넬,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13쪽.
3. 갈라디아서 5:13.
4. 모사이아서 2:17.
5. 누가복음 9:24.
6. 예레미아서 8:22.
7. 모사이아서 18:8, 9.
8. 익명, 리차드 엘 에번즈, “The Quality of Kindness”, *Improvement Era*, 1960년 5월호, 340쪽에서 인용.
9. Gerry Avant, “Prophet’s Birthday,” *Church News*, 2008년 8월 23일자, 4쪽.
10. 리차드 엘 에번즈, “Living into Loneliness”, *Improvement Era*, 1948년 7월호, 445쪽.
11. 마태복음 25:34~40.
12.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13. 마태복음 11:28~30.
14. 마태복음 25:21.

영혼의 안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제가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했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종종 지진이나 기근, 또는 홍수와 같은 재난이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일은 광범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기에 있을 파멸 중 한 가지는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도 교회 밖보다는 안에 더 필요한 경고일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후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약”의 백성조차도 진리의 적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¹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파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후기의 예언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의 충성심과 가치가 거하는 곳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후기에 “사람들이 …… 기절하리니”²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기에 우리에게 닥칠 마음과 영혼의 근심과 위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두 알고 계시며, 그에 관한 권고와 보호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기에 일어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종석³ 한 가지는 몰몬경입니다. 오늘 아침 앤 탭 자매님이 매우 감동적인 비유를 들었듯이, 이 책이 인생에 적용되는 훌륭한 비유 즉, 희망과 두려움, 빛과 어둠, 구원과 파멸이라는 광범위한 상징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제게 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하이의 꿈에서, 리하이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안전하지만 좁은 길을 어둠의 안개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여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둠의 안개는 모든 여행자에게 드리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선택 받은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충실하고 굳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약하고 진리에 삶의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둠의 안개가 엄습합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성공적인 여행자는 금단의 길이 보내는 유혹과 그 길을 따라간,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조롱을 비롯하여, 모든 유혹을 견뎌 낸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에 따르면 보호받은 사람들은 늘 참된 길로 이어지는 “쇠막대를 계속하여

[그리고 놓지 않고]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⁴ 밤과 낮이 칠혹같이 어두울지라도 쇠막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보여 줍니다.

니파이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 쇠막대가 ……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나니 ……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니파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 세상의 구속주를 보았고 …… 그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아가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매 ……

또 나는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또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 고통 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고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더라.”⁵

사랑. 병고침. 도움. 소망.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비롯해 모든 시대의 모든 근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대중이 겪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몰몬경은 이 메시지로 시작하고 이 메시지로 끝맺으며,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라고 외칩니다.⁶ 이 구절은 리하이의 시현이 있은 후 천 년 뒤에 모로나이가 쓴 마지막 간증에서 발췌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유일하게 참된 길에 대해 전하는 간증입니다.

현대에 기록된 “후기” 간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테지 감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이럼은 조셉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 작별을 …… 고하나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라.”⁷

이것은 이더서 1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몰몬경을 덮기 전에 하이럼은 이 두 형제가 곧 맞이할 죽음에 대한 영원한 간증의 일부를 표시하기 위해 읽던 페이지의 모퉁이를 접어 두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하이럼이 읽던 책, 아직도 그 페이지의 모퉁이가 접힌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몰몬경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선지자 조셉은 자신을 붙잡아 둔 간수들에게 몰몬경에 대한 신성한 진실을 강하게 간증했습니다.⁸ 그런 뒤 얼마 있지 않아서 권총과 총알이 이 두 증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몰몬경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을 갖게 해 준 수천 가지 요소 중 하나로서, 그 진실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사실적 기반 없이 허구로 만든 책(또한 함축적으로 교회와 성역)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숨, 명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추구하는 불경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겠습니까?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잠시 접어 둡시다. 그들을 따르는 작은 무리는 이제 “집도 친구도 가정도 없는 이들”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어붙은 강과 야생의 평원을 가로질러 “피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 접어 둡시다.⁹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부는 살아 남아 온 세상에 몰몬경이 참되고 몰몬경이 있는 이 교회가 참됨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 접어 둡시다. 만약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영원한 재판관의 면전에서 가게 되는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책을 인용하고 거기서 위안을 찾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꾼과 험잡꾼의 누명을 썼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영원한 진실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179년 동안 이 책만큼 조사받고, 공격당하고, 거부당하고, 분석되고, 표적이 되고, 비난 받은 책은 아마도 현대 종교 역사에서, 아마도 그 어떤 종교 역사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종 이 책의 기원에 관한 실패한 이론들이, 에단 스미스, 솔로몬 스팔딩, 정신이 이상한 편집증 환자들과 교활한 천재들이 만들어 낸 주장들이 뜻도 모른 채 되풀이되고 사라지곤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이들의 한심한 답변 중에 그 어떤 것도 시험을 견뎌 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쥘고 배우지 못한 조셉이 준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증조 할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어떤 사악한 사람도 이 같은 책을 쓸 수 없으며, 그 어떤 선한 사람도 그것이 참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책을 쓰지 못한다.”¹⁰

몰몬경의 신성함과 몰몬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후기의 사업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서 온전한 위안과 화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알려지지



얇은 복잡한 문체와 셈어로 가득한 531쪽(역주: 영어 몰몬경 기준)짜리 책을, 그 기원을 알리는 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과 그 간증이 지금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미친 심오한 영적 영향에 대해 알리는 정직한 시도도 없이 거부할 만큼 어리석거나 현혹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택하신 자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이 교회를 떠나려는 목적으로 몰몬경에 대해 논하기를 거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그리스도 자신을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¹¹로 묘사하신 것과 같이, 이 경전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자의 길에 놓인 장애물입니다. 증인들, 조셉에게 한때 적대적이었던 증인들조차도 숨을 거둘 때까지 변함없이 천사를 보았고 금판을 만져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참된 줄 분명히 아노라.”¹²

저는 리하이나 니파이, 야렛의 형제와 함께 대양을 건너 신세계에 정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베나민 왕이 천사와 같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 엘마와 앰올레크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거나 믿는 자들이 무도하게 불에 타 죽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만진 니파이인 무리 중에 있지도 않았으며, 멸망한 문명을 목격하며 몰몬과 모로나이와 함께 울지도 않았습니. 그러나 이 기록과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화평에 대한 저의 간증은 그분들만큼 굳건하고 분명합니다. 그분들처럼 “[제가 본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저는] 세상에 [저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저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십니다.”¹³

저의 맹세와 제 신권의 직분으로 오늘 증거한 몰몬경과 그것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저의 간증을 지상에 있는 인간과 하늘의 천사들이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제 생애의 “마지막 날”이 몇 해 더 남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남아 있든 그렇지 않든,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 몰몬경은 참되다는 것과, 조셉이 말한 대로 그것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후기에 고통받는 모든 충실한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이 몰몬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세상에 선포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은 니파이가 그의 “마지막 날”에 쓴 간증과 같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것은 만인에게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침이니라.”

“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요”¹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 시대에 몰몬경으로 더욱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¹⁵ 그리고 이 후기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신앙은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지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4:24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마태, 1:22 참조.
2. 누가복음 21: 26.
3. *History of the Church* 4:461 참조.
4. 니파이전서 8:30.
5. 니파이전서 11:25, 27~28, 31
6. 모로나이서 10:32.
7. 이터서 12:37~38. 또한 교리와 성약 135:5 참조.
8. *History of the Church* 6:600 참조.
9.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39.
10. 조지 큐 캐넌, “The Twelve Apostles”에서 인용, Andrew Jenson, 편집, *The Historical Record*, 6:175.
11. 베드로전서 2:8.
12. “세 증인의 증언”, 몰몬경.
13. “여덟 증인의 증언”, 몰몬경
14. 니파이후서 33:10~11
15. 조셉 스미스-마태 1:37.

청지기 직분 - 성스러운 책임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 봉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보고도 드려야 할 책임이 없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나 청지기 직분이 없다고 믿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기 만족에 집중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의를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큰 존경을 받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복지 광장, 인도주의 센터, 가족 역사 도서관, 유타 오크 마운틴 성전 일반

공개를 비롯해 솔트레이크에 있는 여러 교회 시설을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랍비 한 사람이 방문 소감을 말했습니다.¹

그는 탈무드²에 기초한 유대 사상가들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친절하고 관대한 행위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훌륭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고 고귀한 일로 여겨져야 하겠지만, 이웃에게 봉사하는 더 수준 높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믿기 때문에 복지 사업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하고 성전에서 구원 사업을 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큰 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혹자는 “강제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함”³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지 누군가가 강제로 복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은 아닙니다.

천국 전쟁은 사탄이 모든 이들을 자기 생각대로 따르게 하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 곧 이 생에서 우리의 여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책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한 원리는 우리의 교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⁵

교회에서는 청지기 직분을 세속적인 책임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정신과 가족과 재산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 충실한 청지기는 의로운 지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것을 보살피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핍니다.”⁶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분야가 많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며, 둘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주님은 책임과 청지기 직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땅과 관련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여름이면 할아버지 댁 목장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 집에는 전기나 수도물, 실내 배관 시설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농가 바로 옆에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샘이 만들어낸 조그만 연못에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를 도와서 마시고 요리하고 목욕하고 세탁하는 데 쓸 물을 연못에서 집까지 길어 날랐습니다. 조부모님께서서는 이 소중한 샘을 아끼셨으며, 이 샘을 지키려고 각별히 노력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할아버님 연세가 90세가



넘으시면서, 그 목장에 사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당신이 아끼셨던 그 목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장에 간다며 좋아하셨는데, 새를 보호하려고 둘러친 담이 망가져서 쓰러져 있고 소들 때문에 새이 손상된 데다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던 새물이 심하게 오염된 것을 보고 몹시 실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새이 파손되고 오염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께는 평생토록 지켜왔던 믿음이 깨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정말로 소중했던 생명수 같은 새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맑은 새물도 관리하지 않으면 오염되어 버립니다.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덕성과 순결을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더럽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⁷ 개인적인 도덕성이 갖는 영원한 중요성이 존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온전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목장의 맑은 새물을 보호해야 하듯이 생명을 주는 새물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덕성과 순결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염된 새물을 보고 보으신 반응 때문에, 그 새물을 원래대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수리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주님의 도덕적 표준을 모든 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맡은 성스러운 책무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표준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닐 ……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⁸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실을 합리화 하려고 합니다.

존 홉스의 “뱀”이라는 시에서, 배를 만드는 뉴잉글랜드 출신의 귀가 먼 노인은 젊은이에게 합리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배운 교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상관없이, 그 배는 반드시 바다에 나아가야 하며 그 후엔 어느 것도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뻔했다.”⁹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도시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타 주 세비어 군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표지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비어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합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화하려는 사람을 보면 마치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서 자기가 우리를 못 보면 우리도 자기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 구주 앞에서 낱알이 고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합리화는 허사가 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성스러운 도덕 표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하면 새물처럼 다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개하려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¹⁰ 그렇지만 회개의 단계를 제대로 밟아 나가기만 한다면 선지자 엘마가 도덕적으로 범법했던 아들 코리엔톤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¹¹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¹²

가족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주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수행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가족과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우리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각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¹³

우리는 쉽게 우선 순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물리적 안전과 안녕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모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소유를 지나치게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흡족히 받아들이게 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¹⁴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받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다면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어리석음과 불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¹⁵ 가족 선언문은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¹⁶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직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궁핍한 사람들의 청지기라고 설명하시는 구주의 말씀은 경전에 등장하는 가장 강한 어조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풍성한 것을 취하고 ……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기 눈을 들어 보리라.”¹⁷ 청지기로서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금식하고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원리에 대해 특히 감명 깊어 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매달 금식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은 복지 광장을 방문하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어려움을 겪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후하게 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전임자였던 러셀 존슨 감독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생각합니다. 존슨 감독님은 회원들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모든 제안을 따르실 것입니다.” 감독님은 죽을 때까지 병석에 누워 지낸 남편과 아들 모두를 보살핀 80대 미망인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를 해 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나 봉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80대 할머니인 사라가 가장 먼저 응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독님, 빨리 좀 오세요, 사라

자매님 좀 어떻게 해 주세요!” 80세인 사라 자매님이 이웃집의 처마 물받이를 청소한다며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사라 자매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잔뜩 겁을 먹고는 감독이 말려 주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 자매님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앤 모로우 린드버그의 다음 금언을 자주 인용합니다. “돕고 싶은 사람을 모두 돌보기에는 내 몸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¹⁸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¹⁹ 하지만 그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교회 전역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대단히 기쁩니다. 교회는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세상 어디든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²⁰ 교회는 이미 필리핀, 태평양 제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에 도움을 건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회원들은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닥쳤을 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교회는 마틴 루터 킹 3세가 이끄는 인도주의 조직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 후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킹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교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만, 여러분을 정의하는 핵심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면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 센터와 복지 광장과 성전 일반 공개를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우리는 예수



페루 리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가르침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후하게 헌금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해 주시는 교회 회원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샤야는 금식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에 대해 감명 깊은 말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²¹ 이샤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 너는 ……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 너는 역대의 …… 기초를 쌓으리니.”²²

제 바램은 우리 모두가 책임 맡은 청지기 직분을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돌아보고, 아울러 이

생을 사는 동안 강제되지 않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충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선지자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구하기 위해 주시는 권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다음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인정되는 자는 자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²³

이 모든 말씀이 거룩하고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랍비 헤스켈 룩스타인, 전 뉴욕 랍비 이사회 의장, 미국 공화당 평의회 의장 및 UJA 전국 랍비회 의장.
2. “탈무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보고로서 구전 율법이 담겨 있다.”(아던 스타인살츠, *탈무드의 정수*(2006년), 4쪽).
3. 존 플레처 모울튼,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인용, “올바른 질문의 중요성”(서던 뉴 햄프셔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 2009년 5월 16일, 3쪽; 또한 신명기 6:4~7 참조.

4. 교리와 성약 101:78.
5. 교리와 성약 20:71 참조.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함(교리와 성약 18:42 참조).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교리와 성약 137:10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29:46~47, 50 참조).
6. 스펜서 더블류 김볼, “복지 서비스: 실천하는 복음”, *Ensign*, 1977년 11월호, 78쪽.
7. 그레고리 카츠, “U.K. Health Booklet’s Message: Teen Sex Can Be Fun”, *데저렛 뉴스*, 2009년 7월 15일, A9쪽 참조.
8. 교리와 성약 1:31.
9. “말”, 존 홉스 시선, <http://hdl.handle.net/10427/14894>.
10. 교리와 성약 20:37; 니파이후서 2:7; 엘마서 39장; 제3니파이 9:20 참조.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이렇게 정의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상치를 입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주)께서 모든 구명마다 피를 쏟으셨음을 예리하고 통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적, 영적 고뇌를 경전에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칭했습니다.”(“마음의 큰 변화”, *Tambuli*, 1990년 3월호, 5쪽)
11. 엘마서 42:29.
12. 교리와 성약 58:42.
13. 로버트 디 헤일즈, “마음을 이해함”, 브리검 영 대학교 1987~1988년 영적 모임 및 노년의 모임(1988년), 129쪽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9:41 참조.
14. 조셉 필딩 스미스, *스스로 삼가라!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1971년), 221쪽 참조.
15. 마가복음 7:20~23 참조.
1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또한 라셀 엠 넬슨, “질서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0~83쪽 참조.
17. 교리와 성약 104:18.
18. 앤 모로우 린드버그, 닐 에이 맥스웰 인용, “지혜와 질서”, *리아호나*, 2001년 12월호, 20쪽.
19. 모사이아서 4:27.
20. 교회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부와 물자 지원에 미화 9억 달러 이상을 제공해 왔으며 회원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봉사를 수행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회원들은 330,000시간 이상 동안 헌신적으로 고된 일을 하며 봉사했다.(구제 지원을 감독했던 지역 칠십인 존 에스 앤더슨 장로의 보고)
21. 이샤야 58:9.
22. 이샤야 58:10~12.
23. 교리와 성약 51:19; 또한 마태복음 25:34~46 참조.

자라나는 세대에게 요청합니다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과 더 큰 부름은 없습니다.



지 상에서 성역을 마치신 후에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책임은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마태복음
28:19)

1974년 4월 6일, 교회에서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새로운 선지자로 지지
되었습니다. 같은 날에 저는 핀란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에 김볼 회장이 총관리 직원들과 지역
대표들에게 기념비적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에서 김볼
회장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구주의 명령을 달성하는
비전을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볼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모든 합당한 청남은
명예롭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 사는
회원들에게 자국 회원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하라고 격려했으며, 자격을
갖춘 모든 형제들은 십이사도들 도와 세상에
나아가 모든 나라의 문이 열리도록 도우라고
촉구하셨습니다. (“When the World Will Be
Converted,” *Ensign*, 1974년 10월호, 10쪽)

1974년에 하신 그 말씀에서 김볼
회장은 교회 회원이 330만 명에 이르며,
전임 선교사는 18,600명이며, 633개
스테이크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더욱 더
잘하라는 목표를 주셨으며, 시야를 넓히고 더
높은 비전을 가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nsign*, 1974년 10월호, 7~8쪽 참조)

이에 교회 회원들은 온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도록 가정에서, 성찬식에서, 스테이크

대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는 자신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남들은
걸음을 재촉했고, 거대한 선교사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김볼 회장의 비전이
실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핀란드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선교부
회장의 아내인 레아 마호니 자매님이 핀란드
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린 소녀였을 때 핀란드 동부 지역에 있는
비푸리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참화가 핀란드와 다른
나라들을 덮치자, 마호니 자매님의 가족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푸리 시는
소련에 편입되어 도시 이름이 비보르크로
바뀌었습니다. 선교사 지역 대회에서 마호니
자매님은 비푸리에 남은 사람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에 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김볼
회장의 목표와 비전이 제시된 후, 우리는 그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선교사들이 소련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와 소련 사이의 국경으로 가서
경계초소와 방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언제쯤 용감한 젊은이들이 저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 하고 궁금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에 제 아들 에릭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보내온 첫 번째
편지에 에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러시아의 첫 임지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보르크라고 불리지만, 옛날에는
비푸리라고 불리던 핀란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32년 전에 기도하던 바로 그
도시에 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에릭은 그곳에서 예배당과
충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지부를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제 아들이 생활하며 봉사했습니다.

국경이 열려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때의 기도가 제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아들 에릭은 자신과 동반자들이 오래 전에 수천 명의 충실한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대륙을 퍼져 나가, 모든 지방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까지, 담대하게 위엄 있게, 자주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4:540)

35년 전, 김블 회장의 예언과 같은

가르침이 주어진 이후로 교회 회원 수는 1,350만 명으로 늘었으며, 선교사 52,000명과 2,800개가 넘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실현되도록 도운 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또한 너무도 충실하게 봉사한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감독님들이며,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들, 그리고 오늘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면서 우리가 한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횃불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거대한 선교사 군대의 선두에 서신 우리의 주님, 구주께서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그분께서는 열한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뜻하셨다면 다른 권고와 말씀과 경고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 신성한 요청에, 구속력 있는 권세에 단호하게 응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을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The Five M’s of Missionary

Work”, New Era, 2007년 3월호, 42쪽)

물문경에서 야곱은 지노스를 인용하며 가꾼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임무를 말했습니다. “그런즉 가서 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나로 원열매를 다시 맺게 할지니, 이 원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좋고 지극히 귀한 것이니라. 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워 옴이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야곱서 5:61~62)

구주께서는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걸음을 재촉하며,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라고 말하는, 합당하고 준비되고 충실한 청남 청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런 필요성이 지금처럼 컸던 때는 없었습니다. 발이 이토록 하얗게 무르익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야곱서 5:62)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과 더 큰 부름은 없습니다.(마태복음 28:19)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며,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고대 사도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권유하십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곧바로 그물을 버려 두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이 진리와 의를 위해 일어서고,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여러분의 신성한 부름을 이해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마음의 큰 변화를 유지함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19 67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심장 이식 수술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숨져가던 남성의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사망한 장기 기증자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75,000건 이상의 심장 이식 수술이 행해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몸은 새로 이식된 생명 유지 장치인 심장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그대로 두면 기존 생체가 새 심장을 거부하여 환자는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자연 반응은 약물로 억제될 수 있지만, 매일 정확한 때에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식된 심장의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가끔 심장 세포 조직을 소량 추출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심장 생체 조직 검사도 합니다. 거부 징후가 포착되면 약물을 조절합니다. 거부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면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환자들은 이식된 심장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약 복용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검진도 충분히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괜찮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에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람도 이식 수술을 받으면 생명이 오랜 기간 연장됩니다. 하지만 1967년 타임지에도 나왔듯이 이식 수술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마음에 큰 변화”²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면 바로 이 궁극적인 치료, 곧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범법을

저지르면 영적인 심장에 병이 생겨서 경색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사망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³

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렇듯이 영적으로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개와 침례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면 실제로 이식한 심장 못지 않게 영적으로 변화한 심장에도 똑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심판의 때에 무죄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된 마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경색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이다.”⁵라고 하시며 유혹을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가 나중에는 육으로 난 사람에게 굴복하고 만 사람들을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을 다하는 데 소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다가 결국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전도하여 개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큰 영적 변화를 어떻게 거부하지 않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암몬과 그의 형제들 …… 의 가르침을 통하여 ……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 …… 주께로 돌이켜] ……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⁶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견뎠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다는”⁷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의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간절히 바랐고 열과 성을 다해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열의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렬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매사에 온전히 의롭고 정직하여 성약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무기를 땅에 묻고 유혹을 떨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변화된 마음 상태를 자주 점검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어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변화된 마음을 검사하고 살펴보면서 경색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때에는 이를 조기에 파악하여 치유했습니다.

엘마 이세는 영적인 변화를 겪은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 암몬 백성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⁸ 덧붙여 그는 암몬 백성들에게 교만을 벗어 버렸는지, 시기심을 벗어 버렸는지, 형제에게 친절한지 물었습니다.⁹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길만이 험악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서둘러서 바로잡고 성약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가족은 1980년에 제가 공부하고 일하던 병원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일했고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경에 일을 마치면 아내와 딸과 함께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는 교회 모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 1년 차 후반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2시면 일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아내가 딸만 데리고 교회로 출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건너가서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오늘은 간증의 불꽃과 그 열망이 그렇게 쉽게 꺼져 버렸는지 의아했습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기도와 경전 공부를 건너뛰곤 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한 뒤에 출근을 하곤 했지만 1박 2일을 꼬박 일한 뒤에야 다음 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나 경전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크게 변화한 마음이 경색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변화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 드렸습니다. 다음날,

물몬경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해야 할 일 목록에는 두 가지 항목이 늘 포함되었습니다. 최소한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겠다고 써 놓았습니다. 가끔 자정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전 공부를 짧게 끝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실천하다 보니 열망이 되돌아오고 간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다시는 사소해 보이는 일을 소홀히 하여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는 함정에 빠지고 영원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가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매주 성찬을 들고 성신을 항상 동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매사에 올바르게 정직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성약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일상 생활에서 속죄의 정신을 적용하겠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¹⁰ 우리를 괴롭히고 쉽게 공격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아주 멀리 물리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변화한 마음을 자주 살피고 거부 반응이 있으면 초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인간이 흔히 그렇듯 관심을 소홀히 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지내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치료의 결과인 영원한 구원과 승영이라는 열매를 놓칠 위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¹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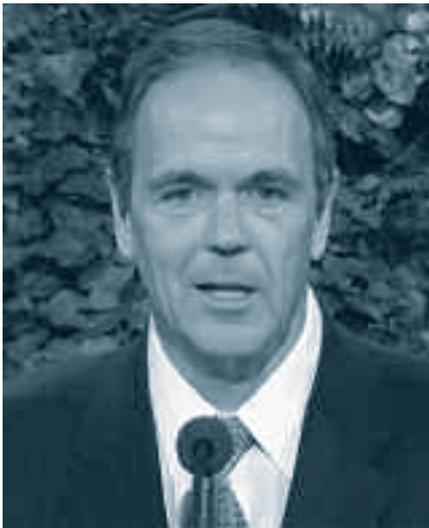
1. "Surgery: The Ultimate Operation", *Time*,

- 1967년 12월 15일, 64쪽.
- 2. 모사야서 5:2; 알마서 5:12~14 참조.
- 3. 에스겔 36:26.
- 4. 제3니파이 27:16 참조.
- 5. 교리와 성약 20:34.
- 6. 알마서 23:6.
- 7. 알마서 27:27.
- 8. 알마서 5:26.
- 9. 알마서 5:27~30 참조.
- 10. 니파이후서 25:26 참조.
- 1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8~21쪽.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음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기 위해 필요한 부드러운
마음은 매일 복음대로 생활할 때 생겨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힐라맨서 6장에 기록된 한 성구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또 이리하여 주께서 레이맨인들 위에 그의
영을 부어 주기 시작하셨음을 보나니,
레이맨들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믿었음이라.”(36절)

개인 경전 공부 시간에 이 성구를 읽었을
때 마음 속 깊이 감동을 받았고, 몇 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구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맨인 개종자들은

왜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미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제4니파이 1:39 참조)

우리는 이 변화의 원인을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한 해를 통해 배웁니다. 판사
치세 62년에 니파이와 리하이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가르치고,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셨을 때
제이라해틀라 땅에서 레이맨인 8,000명이
개종했습니다.(힐라맨서 5:18~19 참조) 또
다른 3백 명은 영혼까지 꿰뚫는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하며 개종했습니다.(힐라맨서
5:30 참조) 이 3백 명은 감옥에 갇힌
니파이와 리하이를 죽이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니파이인이었던 그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아미나답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때,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힐라맨서 5:35~41 참조) 이
300명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성역을 베풀자 더 많은
레이맨들이 그들의 간증을 통해
개종했습니다.(힐라맨서 5:49~50 참조)

판사 치세 62년에 대한 기록은 이와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레이맨인들 곧 그들 중 대부분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힐라맨서 6:1)

그들이 경험한 참된 개종 때문에
레이맨인들은 전쟁 무기를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니파이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힐라맨서 5:51 참조) 신앙
안에서 굳건하여 변하지 않고(힐라맨서 6:1
참조) 계명을 지키고 진리와 정직함 가운데
행하였고(힐라맨서 6:34 참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습니다.(힐라맨서 6:34
참조)

그러나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으려는 마음은 풍성한 영을 불러왔고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했습니다.(힐라맨서
15:5~9 참조)

슬프게도 같은 기간에 수많은 니파이인들은
완악하고 위우칠 줄 모르며 심히 간악한
상태였습니다.(힐라맨서 6:2, 또한 31~34절
참조) 레이맨인들과 정반대의 일이
니파이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영이 물러가
버렸고(힐라맨서 6:35 참조), 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레이맨인들에게는 영이 더욱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레이맨인들의 마음에 이토록 강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 생겨납니다.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발휘하는 권능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쉽게 믿으려는 마음은 니파이와 리하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쉽게 믿는 것을 본받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볼 때 생겨납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힐라맨은 자녀들에게 조상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려고 니파이와 리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힐라맨서 5:6 참조)

우리 중에도 조상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담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고조 할아버지이신 에브라임 케이 헝크스도 그러한 조상들 중의 한 분이십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그분의 형이 “몰몬에 가입하여 함께 떠난 것”을 알고는 형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결심하고 나부로 형을 찾아갔습니다.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고조 할아버지는 형이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Richard K. Hanks, “Eph Hanks, Pioneer Scout” [Brigham Young University 박사 논문, 1973년], 18~21쪽 참조)

경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리하이의 아들인 니파이가 한 예입니다. 부친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치자 니파이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니파이전서 2:16 참조)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야,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네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았음이니라.” (니파이전서 2:19) 우리는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고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전서 3:7)라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이노스에게서 우리는 진리에 굶주림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노스서 1:3~4 참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쉽게 믿으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레미야 31:33, 고린도후서 3:3 참조)

라모나이의 부친에게서 우리는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라모나이의 부친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 주는 대가로 왕국의 절반을 암몬에게 기꺼이 주고자 했습니다. (앨마서 20:21~23) 그러나 암몬은 단순히 라모나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대하고 위대한 암몬의 말에 왕의 마음은 얼마간 곤혹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앨마서 20:24; 22:3 참조) 아론이 왕을 가르치러 왔을 때 왕의 마음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믿으려는 마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믿으리라.” (앨마서 22:7 참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기 위해 모든 소유물과 왕국까지도 기꺼이 버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앨마서 22:15 참조) 왕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서! ……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앨마서 22:18 참조)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인생에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결혼, 자녀의 출생, 새로운 부름이나 선교 사업 같이 집중적으로 봉사하는 기간, 훌륭한 감독님,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리 교사들과 함께 보낸 청소년 시기, 시련의 시간, 복음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기간 등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 모든 기간에 우리는 쉽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간은 어린 시절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제게는 영웅과도 같았던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는 참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제3니파이 11:38 참조) 또한 “[우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교리와 성약 93:40)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인생의 이러한 기간 동안에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실제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더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전을 더 열심히 상고할 것입니다.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이는 일이 더 쉬워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지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기 위해 필요한 부드러운 마음은 매일 복음대로 생활할 때 생겨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 주신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으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지속적인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며, 신권 부름과 교회 부름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신앙을 가지고 인도를 간구하며, 성신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시다.

종종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던 시리아인 나병 환자 나아만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종을 통해 전달하자 나아만은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이런 말을 해 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열왕기하 5:13)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이 마음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가르침 받아온 것처럼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할 때 생긴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순종은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쉽게 믿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이 풍성하게 부여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우리의 마음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며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성찬식 모임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약을 맺는 일이, 성신을 듣고 성신으로부터 배우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마음”을 가져서 그분의 영이 제게 풍성하게 부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구는 제가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로] …… 가득하며, ……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 [제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제]의 의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앨마서 7:22~23)

우리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쉽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모두를 위한 복음의 축복

조셉 더블류 시타티 장로
칠십인 정원희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계신 펠빈 알 퍼킨스 장로님과 저는 몇 주 전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스테이크의 연단에 함께 섰습니다. 퍼킨스 장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도들 앞에 있는 광경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나란히 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물론 손수레 개척자의 후손 한 명과 멀리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교회로 개종한 개척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거의 180년 전 뉴욕 주 페이지트에서

미약하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생각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열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회복 이후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그 열쇠들을 사용하면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나라에 있는 산 자와 죽은 자들이 그분 면전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표준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과 패턴을 보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타락 후,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영원한 성약을 맺었습니다.¹ 그런데 아담의 자녀들이 변성하면서 두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한 무리는 에녹이 인도했습니다. 성약을 온전하게 잘 지킨 그들은 더 이상 지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²

너무나도 사악한 두 번째 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그들을 삼켜 버렸고, 세상에는 에녹의 의로운 자손인 노아의³ 가족만이 남았습니다.⁴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와 성약을 맺으시며 지상의 생명이 더 이상은 홍수로 파멸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⁵

노아의 가족이 변성하여 세상에 가득해지자, 또 다시 많은 이들이 사악해졌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순종했던 몇몇 사람들만 보존되었습니다.⁶

안전하게 남겨진 사람들 중에 야벳의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야벳인들을 위해 큰 신앙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미대륙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⁷

니파이인들도 훗날 같은 대륙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벳인과 니파이인은 끝까지 충실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문명은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큰 신앙으로 보존된 또 한 인물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노아의 자손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시며⁸ 그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번성하고⁹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덧붙여 약속하셨습니다.⁹ 약속에 나타난 만민은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라 불리는 노아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도 성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성약의 조건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경륜의 시대 동안 성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낮은 성약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성약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세에서 성역을 베푸시며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자녀들 사이에서

지속되었습니다.¹⁰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셨습니다.¹¹ 그에 앞서 구주께서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에서 이방인 국가들이 하나씩 차례로 방문과 초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대받은 순서와 관계 없이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¹²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자 감리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신권 열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으로 교회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구주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구체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¹³

이방인을 위한 성역은 베드로가 순교하고¹⁴ 다른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권의 열쇠는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배도의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직전인 1829년, 그 열쇠는 고대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다시 지상에 주어지게 되었으며, 새롭고 영원한 성약으로서 이방 국가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방 국가들이 초대 받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세워지도록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¹⁵

회복된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은 이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선지자 지노스가 예견했던 시대를 보았습니다. 지상 모든 국가에서 나온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성약에 참여하는 시기 말입니다.¹⁶

저는 제 고향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훌륭한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성도들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의 교리와 원리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굳건히 설 확고한 기반을 찾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시골을 떠나 읍내와 도시로 이주한 가족들은 세계화 시대에 점차 공격을 받는

강한 가족 전통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새롭고 거룩한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매주 한 번 가정의 밤을 하라는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기꺼이 따름으로써 강화됩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의지를 제한하는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녀 중 셋은 최근 결혼 지침금이란 부담 없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지침금이라는 전통 때문에 많은 젊은 남녀들이 서로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서약 없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나 아크라, 나이지리아 아바, 그리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세워진 세계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성전 결혼의 기회가 결혼의 신성함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승영의 약속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 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전하라는 구주의 가르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6:52, 57, 59 참조.
2. 모세서 7:19~21 참조.
3. 창세기 6:17~22 참조; 또한 모세서 7~8장 참조.
4. 교리와 성약 84:14~15 참조.
5. 창세기 8:11~21; 9:8~10 참조.
6. 창세기 11:1~8 참조.
7. 이터서 2:8~12 참조; 또한 이터서 1:33~43; 4~6장 참조.
8. 창세기 12~17장; 22장 참조; 또한 아브라함서 1~2장 참조.
9. 창세기 22:18.
10. 히브리서 7:11~12, 19~22; 교리와 성약 84:24~25 참조.
11. 마태복음 28:18~20 참조.
12. 마태복음 20:1~16 참조.
13. 사도행전 10장 참조.
14. Bible Dictionary, "Peter", 749쪽 참조.
15. 교리와 성약 58:1~12 참조.
16. 야곱서 5:57~68 참조.

도덕적 수양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도덕적 수양이란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일관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에 입대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사관 후보생 학교에

지원하셨습니다. 백전노장인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면접위원회 앞에 섰을 때, 파우스트 회장은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시에는 도덕률이 느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상황에서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것은 전투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우스트 회장은 그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점수를 딸 수 있고, 편견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분명히 제가 배운 표준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서 내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봉사할 때 제가 순결의 법을 가르쳤던 많은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덕성에 이중잣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며 제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위원회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점수가 공지되었을 때 제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관 후보생 학교에 합격한 첫 번째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중대한 갈림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¹

파우스트 회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도덕적 선택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선택에 대한 책임(교리와 성약 101:78 참조)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도덕적 선택의지에 도덕적 수양이 수반될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도덕적 수양”은 도덕 표준을 바탕으로 자기를 단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 수양이란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일관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면서 존경과 참된 위대함에 걸맞은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마가복음 10:42~45 참조) 영어로 수양(*discipline*)이란 단어와 제자(*disciple*)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유덕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이상적인 수양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수양은 아버지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 신분에 뿌리를 둡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4:34) 이와 같이 우리의 도덕적 수양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뿌리를 둡니다. 도덕적 수양에 기반한 도덕적 확신을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는 한 세대가 넘도록 도덕적 수양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며 무엇이 옳은지는 각자가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죄, 그리고 부정과 같은 개념은

“가치 판단”이라고 치부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습니다.]”(교리와 성약 1:16)

그 결과, 자기 수양은 약화되었고 사회는 질서와 예의를 강제로 유지하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내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해지자 정부의 외적인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신사적인 행동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희롱 법안이 위험한 행동을 규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경찰과 법안은 관행과 전통,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문명 사회에서 경찰과 형사 사법 체계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최종 방어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개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입니다.”²

세계의 많은 지역이 장기간 지속되는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광범위한 부정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 특히 미국 주택 및 금융 시장에서 자행된 잘못된 행위들이 그 원인에 포함됩니다. 세상은 더 강한 규제를 더 많이 법령화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도덕한 행위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³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법률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점차 박탈합니다. 폴턴 제이 쉰 대주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가이사의 명예로 몸을 떨어야 합니다.”⁴

결국 사회가 타락하는 현상과 근본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개개인이

내적인 도덕 나침반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죄가 죄로 비난 받고, 도덕적 수양이 시민의 미덕으로 인정 받지 않는 한, 사회는 공동 선을 수립하기 위해 헛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 수양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후기 성도들은 분명 자신의 삶에서 덕스러운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경의 역사에서 기원전 66년부터 60년 사이에 일어났던 오랜 전쟁에서 니파이인들을 승리로 이끄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젊은이들, 즉 암몬 백성의 아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인격과 수양은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더라.”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라.”(앨마서 53:20~21).

“이제 그들은 결코 싸워 본 일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버지의 자유를 더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앨마서 56:47)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으니,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도다.”(앨마서 57:27)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표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자신의 신앙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 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즉 경건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안락과 소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씩 한두 가지 복음 원리를 참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모범을 보이며,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 성신의 권능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훗날에는 진리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깨끗해지고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온전히 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⁶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으며,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몇몇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지를 총명하게 사용하려면 진리에 대한 지식, 즉 사물의 현재에 대한 지식(교리와 성약 93:24 참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죄와 이기심을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복음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에서 직면할 선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앨마서 41:10)는 진리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 삶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어섯 살쯤 되었을 때, 저희 집 길 건너편에는 작은 식료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년 두 명이 그 가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사탕을 몹시 먹고 싶어하며 서 있는데, 저보다 형인 한 소년이 사탕을 하나 집어 주머니 속에 슬쩍 넣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른 소년과 제게 똑같이 하라고 재촉했고, 잠시 망설인 후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재빨리 가게에서 나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숨을 곳을 찾아서 사탕 포장을 벗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에 묻어 있는 초콜릿을 보시고는 식료품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길을 건너면서 저는 제가 분명 평생토록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어머니께서 빌려 주신 10센트로 사탕 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 후 그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훈육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찍 범죄자의 삶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경험합니다. 구주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0:22) 유혹이 고개를 든다고 해서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굴복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한 젊은 여성에게 의심 많은 한 친구가 어떻게 그 누구와도 잠을 자지 않는 것이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싶지 않은 거야?” 질문을 받은 여성은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은 흥미로웠습니다. 요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단순한 욕구는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진정한 지침이 되지는 못합니다.”⁷



유혹이 잠재적으로, 또는 실제로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을 피하고 대처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돕고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치료는 사람의 의지를 강화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수양,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베풀 은혜를 통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도덕적 수양을 발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베드로후서 2:9)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의존해 온 방식과 대상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수양을 키운다면

선한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길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미래의 흐름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도덕적 수양은 붕괴되어 가는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 동안 사려 깊고 영감이 깃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잠시 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권고의 말씀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다시 배운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개개인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영이 더 많은 빛을 비추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수양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들과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들의 율법은 불변하고, 그분들의 진리는 영원하며, 그분들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Stories From My Life* [2001], 2~3쪽.
2. Walter Williams, “Laws Are a Poor Substitute for Common Decency, Moral Values”, *Deseret News*, 2009년 4월 29일자, A15면.
3. 몇 년 전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법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하는 일을 무엇이 ‘옳은가’가 아닌 무엇이 ‘합법적’인가 하는 기준으로 정당화할 때 커다란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것이 또한 옳은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결하고 최상의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합법적인 행위는 많은 경우 문명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더욱더 거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을 여러분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행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 품위와 가치에서 참으로 고귀한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Be Healers”, *Clark Memorandum*, 2003년 봄, 3쪽).
4. “Bishop Fulton John Sheen Makes a Wartime Plea”, *Lend Me Your Ears, Great Speeches in History*, William Safire 편(1997년), 478쪽.
5. 윌스트리트저널의 주필들은 언젠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교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성] 혁명의 시대를 거쳐 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걱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소한 죄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의 틀이 되었다. 그 틀이 해체되었을 때 떨어져 나간 것은 죄책감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인도해 주는 지침 또한 잃게 되었다. ... 미국은 마약 문제, 고등학교 섹스 문제, 복지 문제, 에이즈 문제, 그리고 강간 문제를 안고 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는 잘못된 일이 있다고 솔직하게 도덕적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 중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The Joy of What?” *The Wall Street Journal*, 1991년 12월 12일자, A14면).
6. 헨리 비 아이어링, Shaun D. Stahle, “Inspiring Students to Stand Strong amid Torrent of Temptation”, *Church News*, 2001년 8월 18일자, 5면.
7. Sarah E. Hinlicky, “Subversive Virginity”, *First Things*, 1998년 10월, 14쪽.

폐회 말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면 방종과 사악함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회에서 해임되신 역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봉사하셨고 주님의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헌신을 다 하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닳을 잃은 배처럼 안전에서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은 계명에 순종할 때 얻습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방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주 물의 흐름에 역류하여 해임을 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때로는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물문경 이더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깊음을 건널 수 없으니라.”¹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면 파괴적인 파도와 바람, 넘치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 방종과 사악함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며, 그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지상에 살아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가진 축복 받은 백성입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이 번 연차 대회를 마치는 지금, 제 마음은 충만해졌습니다. 말씀과 간증을 듣는 동안 우리는 풍성한 가르침을 얻고 영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아 주신 형제님들을 비롯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음악은 훌륭했습니다. 대회 동안 기꺼이 재능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덕에 모든 모임이 분위기가 고양되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번 대회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앤서인*과 *리아호나* 11월호에 실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동안 여러분은 또 다른 가르침과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영감에서 나오는 진리가 우리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구원 사업과 봉사,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드립니다. 모두 안전히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다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만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² 모든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가 이를 전에 이 대회가 열리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이곳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모든 총관리 직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합니다. 모든 남녀와 아이들이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며, 우리 구주께서 살아 계셔서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시며 실재하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의 약속된 평안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의 구주, 구속주이시며,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1. 이터서 2:25.
- 2. 모사이야서 5:2.



상 호부조회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난번 총회 이후에 저는 많은 자매님들을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충실한 삶과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우리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후기 성도 여성이 어떻게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알고 성취하는지를 배웠습니다.¹ 오늘 밤, 저는 신앙에 기초하여 일하는 상호부조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간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의 목적과 성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여성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성들이 영생이라는 축복에 이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 1. 신앙과 의로움을 증진시킴
-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함
- 3. 주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함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과 역사와 목적은 모든 여성 조직 가운데서도 독특합니다. 상호부조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1942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느 여성 조직도 이와 같은 기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이 위대한 조직의 회원이 누리는 의무와 책임, 특권과 영예, 기회와 성취를 방해하는 그 어떤 종류의 적개심이나 경쟁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²

상호부조회에 소속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우리가 다른 여성 조직과 다른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이 회복의 일부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규정했고, 커틀랜드와 나부에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신권의 목적과 일에 대해 가르친 것처럼 자매들에게도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상호부조회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이끄는 조직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신권의 모형”³에 따라 조직되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이 주는 지시에 따라 본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리할 수 있게 권세를 부여하는 열쇠를 소유한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며 신권의 방식대로 활동합니다. 즉 계시를 구하고, 계시를 받으며, 그 계시에 따라 행합니다. 또한 평의회를 열어 결정을 내리고 개개인을 돌볼 방법을 고심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해 주는 신권의 목적 또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처럼 상호부조회는 구원과 봉사를

위해,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에는 매우 방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의무 중에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세월 동안 상호부조회가 일궈 온 중대한 의미, 즉 상호부조회의 자애롭고 실천적인 면모인 자매애를 간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가 신권의 모형에 따라 조직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성에게는 ……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 성인이든 소년이든 신권을 소유한 회원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울리든지 상관 없이 자신이 받은 신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 자매 여러분이 이

모형을 따른다면 ……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직이자 대업인 상호부조회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하면 여러분 각자는 영화롭고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상호부조회 회원이어야 합니다.”⁴

주님의 방법으로 일함

목적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수행할 적절한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신앙에 기초하여 일하는지를 짚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소중한 한 가지는 바로 시간입니다. 여성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맡고 있기에 마음과 생각으로 원하는 일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감에 따라 상호부조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고 자매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현자가 ‘일을 해 내는

뛰어난 기술'과 '일을 미완성인 상태로 내버려 둘 줄 아는 더 뛰어난 기술'을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다운 '인생의 지혜'는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을 허둥대게 만들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습관 중에서 훌륭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의미와 기쁨을 더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시작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⁵ 이 질문은 모든 상호부조회 모임과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일요일 모임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정규 모임 시간에 상호부조회 모임을 합니다. 일요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도움을 베풀려고 노력을 조율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은 5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가 더욱 단합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필수 사안을 다룹니다. 우리는 그 사안을 간략하고 고귀하며 체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맞게 다루어야 합니다. 처음 열렸던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매들이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신과 가족이 복음대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교리와 원리가 담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일은 신앙에 기초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상호부조회 공과를 하려면 영감으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⁶

추가적인 상호부조회 모임들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과 활동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참석합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추가적인 상호부조회 모임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칭이 너무 복잡하고 모임의 목적이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여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라는 명칭은 이제부터 쓰지 않겠습니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협의한 결과, 이와 같은 추가적인 상호부조회 모임들에 새로 이름을 정하는 대신, 이제부터는 그러한 모든 상호부조회 모임과 활동들을 단순히 상호부조회 모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열리는 상호부조회 모임은 상호부조회 봉사 모임, 공과, 계획, 회의, 워크숍 등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모임들은 특히 초등학교나 청년 쪽에서 봉사하거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자매들에게 일요일에 놓친 내용을 보충하는 귀중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앙을 지닌 친구들을 데려오고 저활동인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참여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도 초대받고 환영 받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이 이런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 와드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의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을 다루며, 자매애와 단합을 강화합니다.

자매들이 주중에 상호부조회 모임을 위해 만날 때, 그들은 상호부조회의 자비롭고 실질적인 책임을 배우고 달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매들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이런 모임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서 여성과 어머니로서 맡는 책임과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 모임들에서 여성들은 검소한 생활과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며, 서로 가르치고 봉사함으로써 자매애와 단합을 증진시킵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모든 상호부조회 모임을 감독합니다. 정기적으로 감독과 함께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임을 통해 와드 회원들과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상의하는 것도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의 책임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호부조회 주중 모임의 빈도와 장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을 감독에게 보고하고, 자매들이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가족의 상황과 여행 거리 및 비용, 와드가 부담하는 비용, 안전, 그리고 다른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임들은 대개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을 피해서 열립니다. 보통 월별로 열리지만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모임의 빈도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분기별로는 모임을 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각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스테이크 내의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위해 매년 한두 번 정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⁷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을 강화시킬 주제에 대해, 그리고 그 주제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재정 정책을 비롯하여 활동과 관련된 현재 정책에 맞게 모임을 계획하고, 계획 내용을 감독에게 승인 받아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이 모임을 감독하지만, 제1보좌나 제2보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장단이 일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도록 상호부조회 모임 코오디네이터로 부름 받아 봉사할 자매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 이상의 수업이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개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들이 이러한 모임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한 번씩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모임이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주중 모임을 계획할 때 지도자들은 결혼, 가족, 가사, 검소한 생활, 자립, 온정 어린 봉사, 성전 및 가족 역사, 복음 나누기, 그리고 감독이 요청한 다른 주제를 비롯하여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성취할 주제를 우선하여 다루어야 합니다.⁸

계획할 때에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와드는 다른 와드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DNA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감독은 자신의 와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을 돕습니다.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바로 이 특별한 책임을 위해 영감을 받도록 성별되었습니다. 다른 와드나 다른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가운데 일을 한다면 계시를 구하고 감독과 함께 협력하여 와드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면 자매들과 가족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때 상호부조회가 준비를 계획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매들과 가족들이 성전에 가야 한다면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이 청년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친구들을 다시 활동화시키라고 한다면 상호부조회는 그 일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법을 배워야 한다면 상호부조회는 그 일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영적인 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가사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면 상호부조회에서 그 일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늘 그래왔듯이, 신권 지도자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면 상호부조회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을 적절히 이용하면 상호부조회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모든 와드의 상호부조회는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지이다. 이는 장래에 성도에 관한 많은 일이 이 일에 달려 있음이니라. [자매들이], 너희도 알게니와, 지극히 큰 배도 폭풍이 일 때에는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유지함으로써 심히 큰 도움을 받는도다.”⁹

상호부조회 및 신권 지도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추가적인 상호부조회 모임들에 대한 공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본 후 질문이 있다면 각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함께 협의하여 원하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교육

상호부조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의

많은 부분은 모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방문 교육에 대해 알아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서로 사랑하고, 알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성역을 베푸는 이 성스러운 임무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부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한 가지 의무이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합니다. 가정에서 맡은 책임 외에 방문 교육만큼 이 교회 자매들에게 맡겨진 훌륭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딸들을 개별적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회 지침서에 나와 있는 방문 교육에 관한 정책은 제일회장이 승인합니다. 방문 교육은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에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방문 교육 목적을 위해 여성들을 그룹으로 조직해서는 안 됩니다.

와드의 목자로 성임된 감독이 주님의 양을

모두 한꺼번에 돌볼 수는 없습니다. 감독은 자신을 도와줄 영감 받은 방문 교사들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와드 회원과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은 각 자매들을 돌보고 강화하는 일을 하도록 누구에게 임무를 지명해야 하는지 계시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자매가 와드에서 적어도 한 자매를 돌보고 강화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딸들을 돌보도록 그분께 기도하여 영감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방문 교육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출 때에야 비로소 방문 교육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사실 방문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방문 교육은 임무라기보다는 생활방식에 가깝습니다. 방문 교사로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매달 우리가 맡은 임무를 보고할 때 우리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규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살핌이 단순히 와드의 모든 자매가 매달 리아호나에 실리는 방문 교육 메시지를 들었다고 보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라리 성찬식 모임에서 모두에게 큰소리로 읽어 주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자매들의 영적 및 현세적 복지 상황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봉사했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저의 방문 교사들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년 동안 영감에 따라 제게 봉사하고, 가르치고, 강화하며, 사랑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복지 및 온정 어린 봉사

개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려는 우리의 도움과 온정 어린 봉사는 방문 교육이 맺은 결과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방문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와드 회원을



방문하며 와드 회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상호부조회 회장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를 조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우리의 성품에 의거하여]”¹⁰ 봉사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의 부인인 카밀라 김볼 자매님으로부터 “관대한 마음을 절대로 억누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 권고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어 그분의 손과 마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강화됩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에서 성장을 이룩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 역사 중 일부를 차지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남녀, 그리고 아이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개별적인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수천 년 전 왕들과 선지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고대하던 날, 바로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에게 가장 감미로운 곡으로, 가장 찬양하는 노래로, 그리고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적인 말씀에 전하게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¹¹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통해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계시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 자매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동료가 될 것이며,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일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성취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8~111쪽;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9~112쪽 참조.
2. First Presidency, “To the Presidency, Officers, and Members of the Relief Society,” *A Centenary of Relief Society, 1942(1942)*, 7쪽.
3. Joseph Smith, Sarah M Granger Kimball 인용,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1883년 9월 1일, 51쪽.
4. 보이드 케이 패커, “The Circle of Sisters”, *Ensign*, 1980년 11월호, 110쪽 참조.
5. Dieter F. Uchtdorf, “As You Embark upon This New Era”, 2009년 4월 23일,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2008~2009, *Speeches(2009)*, 2쪽; 또한 Lin Yutang, *The Importance of Living(1937)*, 162, 10쪽 참조.
6. 교리와 성약 50:22.
7. 이러한 모임에는 봉사, 수업, 프로젝트, 대회, 워크숍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모임 중 하나는 일반 상호부조회 모임과 함께 열릴 수 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사항은 reliefsociety.lds.org를 참조한다.
9. 교리와 성약 123:15~16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2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44쪽.

모든 여성에게는 상호부조회가 필요합니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의 힘과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자매들과 함께 모이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주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여성의 삶에 상호부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조직하고 설립한 후, 여성들을 위해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¹

상호부조회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장단은 여러분의 삶에 상호부조회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단이 꿈꾸는 가장 큰 소망은 교회의 모든 여성이 각자 성전 축복을 받고,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며, 시온의 대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도움을 주도록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우리 시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기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세상의 수많은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교회 여성들이 삶에 의로움과 예지를 나타내고 세상 여성들과는 달리 독특하고 행복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위대한 여성들 중에서 이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보다 의로운 것에 더욱 관심을 두는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여성들은 참으로 겸손하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성실함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교회 여성의 모범은

이 후기에 교회가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²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선행을 보았고,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간증을 들었으며, 여러분의 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복음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범과 선한 영향력은 모두 놀랍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의 많은 여성이 교회와 상호부조회 활동에서 얻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상호부조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의 상호부조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을 찾아가서, 상호부조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애정을 담아 알려주십시오. 상호부조회가 그들의 삶과 가정을 풍성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간증하십시오. 우정과 자매애를 보이고, 돌보며 강화시키십시오. 가족을 붕괴시키는 사회 추세를 바꾸어 놓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매인 그들이 주님과 그분의 자녀를 위한 행복의 계획으로 인도되도록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은 인도, 위안, 평안, 이해, 영감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는 은사를 받아들인 여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 줄까요? 상호부조회는 가족과 가정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저의 어머니는 이 교회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산 살바도르에 있는 작은 지부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부 회장님에게 자신은 경험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아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30대였고, 공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평생 남편과 일곱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 일에만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지부 회장님은 어머니에게 부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그 부름을 훌륭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봉사하시는 동안 지도력을 익히셨고, 가르치기, 대중 앞에서 말하기, 모임과 활동 및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등과 같은 새로운 은사를 발전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지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봉사하셨고 또한 서로 봉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매님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여성들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사용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자매들이 왕국을 세우고 영적으로 강한 가족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도 충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끼며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회장단 보좌로 어머니와 함께 봉사했던 한 자매님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신 분이란다. 나는 너의 어머니에게서 자애와 친절과 정직, 부름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다. 나의 스승이고, 모범이셨지. 이제 나는 여든이 되었지만 아직도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충실하게 지낸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³ 저는 세상의 여러 지역에 사는 많은 여성들의 삶에서 이와 동일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상호부조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삶에 새로운 부분을 더합니다. 영적으로 발전하면서 소속감, 정체성, 자기 가치 역시 자라납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 계획이 진정으로 뜻하는 모든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일하는 자매 여러분과 함께 왕국을 세우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돕습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도 상호부조회가 하는 봉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랑에 찬 방문 교사들은 위로하는 손길을 내밀고 경청해 주며, 격려하는 말을 건넵니다. 교회의 수많은 가족들이 그 봉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딸 노마는 상호부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련과 저는 갓 결혼하고 첫 아이를 기다리면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학생이라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가장 가까운 와드는 약 48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낡은 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을 알게 된 와드 자매님들이 일요일과 기타 교회 활동이 있을 때 돌아가면서 우리를 교회까지 태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을에 사는 자매님들은 우리를 데리러 오려면 약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나 운전을 더 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많은 자매님들이 교회 모임 후에 우리를 집에 초대하여 근사한 저녁식사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힘겨웠던 그 기간 동안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진정한 사랑과 자애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⁴

감독으로 봉사하는 제 남편은 상호부조회 회장의 도움 없이는 결코 감독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궁핍한 사람을 찾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도움을 줄 자매들을 편성하기 위해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협력합니다. 이 헌신적인 상호부조회 회장들에게는 여러분의 지지와 기꺼이 동참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만, 상호부조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면 온 교회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젊든 나이가 많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미망인이든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간에 우리는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의 힘과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여성들에게 부름을 주어 이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기를 권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과 진리와 의로움을 불어넣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구제화 됩니다.

여러 자매님들이 상호부조회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종종 우리 회장단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상호부조회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상호부조회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 상호부조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재능과 은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 성전 성약은 저와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배웁니다.
- 어머니가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 상호부조회 공과와 활동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 데 도움이 됩니다.
- 자라나는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깨닫습니다.
- 상호부조회는 더 좋은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 교육과 성장을 추구하도록 격려 받습니다.
- 모임과 활동에서 자립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 방문 교육과 자비로운 봉사를 하면서 봉사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 있는 줄도 몰랐던 은사를 발견합니다.
- 상호부조회는 저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줍니다.
- 제가 다른 사람을 북돋우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우리 모두 사랑, 친절, 웃음, 동정심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한 것이 있다는 점을 배웁니다.
- 타인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 더 좋은 이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 목적을 이루는 지혜와 결단력을 배웁니다.
-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모든 가정과 가족의 복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남편과 아버지는 상호부조회 활동을 격려해야 하며, 모든 여성에게는 상호부조회가 제공하는 기회에 참여하고,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의로운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이 필요하며, 여러분은 상호부조회가 필요합니다.

상호부조회는 구원의 사업을 하는 신권을 돕기 위해 신성하게 조직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Sarah M. Kimball,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에서 조셉 스미스가 인용, 1883년 9월 1일, 51쪽.
2. 스펜서 더블류 김블, "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1~152쪽.
3. 개인 서신.
4. 개인 서신.

벌어진 간격을 조심하십시오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이와 같은 삶의 거리와 간격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친한 친구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튜브”라고 불리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주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왕래가 잦은 지하철 역에는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불이 깜박거립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는 “발 밑의 벌어진 간격을 주의하십시오”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사람들에게 발이 빠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알려 줍니다.

그 사이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열차 밑으로 들어가서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 표지판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위험을 경고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람들은 “발 밑 간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와 같이 벌어진 간격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거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실제로 성취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거리와 간격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간격”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말씀드릴 거리와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단순히 믿는 것과 실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둘째, 단순히 청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과 “여성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조직”¹인 상호부조회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하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자가 되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의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 한두 달이 지나면 대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²라는 노래를 불러 볼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으며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를 믿으면서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면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아이에게 이런 병이 생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합당한 남편을 찾아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되도록 도와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가족을 위해 집 하나 장만할 만한 돈은 있었을 거야.” “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전은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 박해, 힘, 기타 어떠한 창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³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픔, 비탄, 불안, 외로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실재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영혼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친절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매우 기뻐하시며 받아들여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⁵

이 간격을 조심하여 마음에 의심과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다음은 단순히 청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과 여성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조직인 상호부조회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하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18세라는 나이는 어린 소녀가 숙녀가 되는 나이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기는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청년들에게는 개인 발전 기록부에 있는 많은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부조회에 속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부름을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반에서 간증을 키웠고, 이제 성전 결혼과 영원한 가족으로 이끌어 줄 목표를 세우고 설정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젊은 자매들은 복음과 상호부조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일에 “휴직계”를 내고 잠시 떠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하거나 좀 더 나이가 들면, 또는 생활이 좀 정리되면 상호부조회에 참석할 거야.” 하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적어도 2년 정도는 대학교에 다니고, 중간에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한 뒤, 예쁘고 완벽한 자녀(아들 딸 각각 두 명씩) 낳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수입이 넉넉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여야 했고, 그러면 저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목표 중 하나는 교회에서 충실한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목표 중 많은 것들은 제가 소망했던 방법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직업을 얻었고,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계속 공부했으며, 여러 해 동안 직장생활을 계속했습니다.(저는 13년 전에 반드시 결혼하게 될 줄로만 믿었습니다. 제가 13년 전 오늘의 운세 과자 봉지를 열었을 때 거기에 “당신은 일 년 내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멋진 남자도, 결혼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충실한 회원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했던 것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수 년간 청년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간증을 키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상호부조회에서 부름 받아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훌륭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지만, 제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낙담했던 시기도 있었고, 이따금 계획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한 직장 동료는 저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해 것처럼 강조하는 교회에 왜 계속 나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참되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독신이고 자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제 삶에서 행복을 찾았으며 제가 구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쁨을 느꼈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베풀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특히 젊은 독신 성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충실하며 온전히 참여하는 여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지[진]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강건케]”⁶ 하기를 바라십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1873년 유타 주 욱든에 수많은 십대와 성인 여성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노우 자매님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여성 여러분이 서로 함께 어울린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향상되고, 지성을 얻으며, 무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침을 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자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며, 시온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자매님은 모든 여성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에 거룩한 여성에 관해 말했습니다. 거룩한 여성이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여성이라면 숭고한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임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여서 외롭고 영향력이 미약한 여성이라도 누구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⁷

이 간격에 유의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삶에 저활동이라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게 되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전 베들레헴의 초라한 환경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분이 성장하여 위대한 교사가 되었으며, 친절하고 고결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귀중한 원리와 계명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계명을 지킨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기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 끝까지 충실하게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견딘 자”⁸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밝혀질 것임을 압니다.

개종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리하이는 개종했으며, 가족들이 훌륭한 복음을 취하기를 바랐습니다.⁹ 니파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해 평안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¹⁰

이노스가 개종하여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형제들의 복리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형제들도 받기를 바랐습니다.¹¹

경전 곳곳에서 개종한 뒤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강화”하고자 했던 남녀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¹²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¹³, 그분의 교회가 회복되었고, 행복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용감하게 외치는 여러분의 음성이 충실한 자들 사이에서 들리게 하십시오.

이러한 “간격”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참된 교회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스펜서 더블류 김블, “상호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쪽.
2.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3. 로마서 8:35~39 참조.
4. 헨리 비 아이어링, “선교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하신 말씀, 2009년 6월 25일.
5. 교리와 성약 97:27; 124:1참조
6.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7. 엘리자 알 스노우, “An Address”, *Woman's Exponent*, 1873년 9월 15일, 62쪽.
8. 교리와 성약 121:29.
9. 니파이전서 8:10~12 참조.
10. 니파이후서 25:26.
11. 이노스 1:5~11 참조.
12. 누가복음 22:32 참조.
13. 교리와 성약 76:22 참조.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말씀과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유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몬슨 회장님과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고마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호부조회는 1842년에 설립된 이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세심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감독을 받는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상호부조회를 시작할
때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그곳에 모인
회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알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라는 지시를 몬슨 회장님께서 받았을

때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초창기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휘트니 감독에게 자기 대신 말씀하도록
요청하여 그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휘트니 감독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기대를 안고 모임에 왔는데 자신이 대신
말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휘트니
감독이 느꼈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느끼실지 모르는 실망감을 심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하면서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가장 유익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몬슨 회장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공부하고 기도하며 받은 느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보다 앞서 상호부조회
회원들이었던 분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놓은 기초 중에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중요하
한 가지는 상호부조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으며, 그것은 모든 회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본성이 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부조회 초창기 자매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자선이나 자비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며,

회원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행을 베푸는
여성 자선 단체는 많습니다. 불행하고 병든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가슴 깊이 동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라는 이
조직은 그 중에서도 독특하며 여타 단체들과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자매님들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중심에 두고 이
조직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상호부조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초창기와 그 이후에
도래한 위대한 시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모든
시대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가슴에 사랑이 가득한 여성들로 구성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만 맺는 성약을
지키고 합당하게 생활하여 마음이 변화될 때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성신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이 자비를 베푸라는 사명을
수행할 때 성신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비범한 일을 해
왔고, 또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에는 경이로운 정도로
비이기적인 봉사를 했던 일화가 가득합니다.
충실한 성도들이 오하이오에서 미주리로,
일리노이로, 그 다음에는 사막을 가로질러
서부로 이동했던 가혹한 박해와 박탈의 시절에
자매들은 가난과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상호부조회에 관한 몇 가지
역사 이야기를 읽어 드린다면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 관대한 행위에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들어 올려 주고 지탱해 준 신앙에 더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절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겠다는, 신앙에 기초한 결심은 인생의 시련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 나라와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한 가지 목적을 향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는 일을 돕기로 결심하고, 물몬경에 생생하게 묘사된 행복한 시온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제4니파이에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자매들은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육년에는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²

초기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그런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서부로 가는 여정에서, 그리고 그 후 여러 해 동안 계속 견뎌 낼 수 있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 전 교회적인 조직으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1868년, 브리검 영 회장님은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를 불러 감독들을 도와 상호부조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1880년에 스노우 자매는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의 기록에 따르면, 지도자들이 상호부조회 일을 공식적으로 재개하려고 자매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자매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애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매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성약에 충실한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상호부조회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힘의 측면에서도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비전과 능력이 있는 여성들의 지도력 아래 상호부조회는 외딴 지역에 사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병원을 만들고 병원에서 일할 여성들이 미국 동부로 가서 의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미국에서 훌륭한 병원 시스템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시작한 프로그램들은 몇 년이 지나자 전 세계적인 LDS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창안한 곡물 저장법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전쟁과 위기 상황에 연방 정부를 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또한 초등회와 청년 조직의 전신이 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여성 조직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 원조를 시작할 때 교회의 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태 주를 방문하는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세상 곳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 및 자연 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교회가 하는 일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선물은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중 일부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최초로 열린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충실한 봉사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여왕들이 그들의 봉사를 배우러 오고 그 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³ 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경전 속 약속이 주님의 사업에 참여한 상호부조회 개척자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은 교리와 성약 8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잇따른 절기에 주님과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 받을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밭에서 일하라. 첫째 시각에 내가 네게 가리니, 네가 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리라 하고

또 둘째에게 이르되, 너도 밭에 가라. 둘째 시각에 내가 기쁜 얼굴로 너를 찾아 가리라 하고

또 셋째에게도 이르되, 내가 너를 찾아 가리라 하고

넷째에게와 계속하여 열두째에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발주인이 첫째 시각에 첫째에게 가서 그 시간 내내 그와 함께 있으며, 종은 자기 주인의 얼굴빛으로 기쁘게 되었더라.”⁴

상호부조회의 첫째 시각에 봉사했던 여성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남겨 놓은 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번창하게 하였고, 자매들은 기쁨과 빛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은 또 다른 절기가 오리라고 예견했습니다. 조셉은 상호부조회가 첫째 절기에 건설할 장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조셉은 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축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던 때가 지나가고, 주님께서는 그토록 훌륭하게 경작해 놓은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또 다른 절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부조회가 기초를 쌓은 병원 시스템을 충실한 남성들이 물려 받아 확장시켰지만,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권 소유자들이 훌륭한 병원 시스템을 세우되 유지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훌륭한 병원 시스템을 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봉사하며 기쁨을 느꼈던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성취한 일에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기쁘게 그들이 세운 병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곳, 다른 절기, 다른 땅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상호부조회 유산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 절기에 자매들의 훌륭한 재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과거에 시작하고 건설했던 훌륭한 자선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을 아셨습니다.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시작한 봉사는 교회가 팽창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막대한 자원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중앙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점점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여 기쁨을 얻는 기회가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절기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미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도처에서 필요한 원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궁핍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주님의 종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호부조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런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적절한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회원들은 상호부조회 자매 두 명이 함께 다른 자매를 방문하라는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상호부조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명 받은 두 방문 교사의 힘을 넘어서는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온정 어린 봉사를 베풀 신앙이 있는 회원들을 조직했습니다. 이 봉사는 항상 집 가까이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집니다. 회원들은 모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구주와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딸들은 어머니들을 보살핍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돌봅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항상 신권을 소유한 지역 목자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감독과 지부 회장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상호부조회 회장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에게는 모든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방문 교사들이 있습니다. 방문 교사를 통해 상호부조회 회장은 자매들과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고, 개인과 가족을 양육하라는 감독의 부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유산 중에 훌륭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 보였고, 상호부조회 역시 신권 소유자들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와드 감독님은 여러 해 전에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쩌서 제가 와드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갈 때면 형제님 부인이 늘 저보다 먼저 그곳에 와 계신 건가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감독과 지부 회장이라면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영감 어린 모범을 보며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자매님들은 우리에게 온정 어린 봉사 없이는 남자든 여자든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앞으로 자매들처럼 온정 어린 봉사를 충실히 하겠다” 라고 결심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그때 인용된 성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베냐민 왕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일을 위하여—즉 매일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다.”⁵

제가 기억하기에, 롬니 회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웃음을 지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그분은 정말로 자신의 죄가 사함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매님들과 함께 모든 온정 어린 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훌륭하고 성스러운 상호부조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유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마음에 일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그런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단순한 일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동반자는 방문 교육을 가기 위해 준비할 때마다 성공적인 방문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도와 줄 일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 차례 방문한 뒤에야 성공을 맞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아간다면 영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상호부조회 회원은 저에게 방문 교육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자매님이 방문한 여성은 갑작스럽게 비극적으로 남편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여성은 간헐적으로만 상호부조회의 방문을 받아 왔습니다.

이 미망인을 방문한 교사는 미리 꽃가게에 들러 꽃을 샀다고 했습니다. 온갖 색깔의 튤립을 함께 파는 계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골랐지만, 이내 다른 색깔을 사 보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색깔을 골랐는지 알지 못했지만 노란 색깔을 샀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여] 문 앞에서 노란 튤립을 내밀자 미망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셔서 뒷마당을 한번 보세요.” 그곳은 활짝 핀 노란색 튤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놓아 두려고 몇 송이를 꺾을까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이 꽃을 가져왔으니 이제는 정원에 핀 꽃을 좀 더 오래 두고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꽃을 가져가자는 느낌과 노란 튤립을 고르자는 느낌 때문에 그 방문 교사는 자신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 주는 그 방문 교사의 목소리에서 기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문 교사가 제게 그 이야기를 말해 주었을 때는 아마도 그 미망인이 방문 후에 무엇을 느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망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라고 느꼈다면, 그 방문 교사는 그 미망인이 주님 보시기에 성공의 길로 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 방문 교사는 충실하게 노력하여 거둔 성공을 앞으로 올 세상에서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처

양로원에 사는 또다른 미망인을 거의 9년 동안 방문하면서 거듭 사랑을 전했던 어느 두 방문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힘든 역경을 겪은 후 양로원에 계시던 그 미망인은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미망인의 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교사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매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왕국에 우리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⁶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그 유산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말씀과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유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바로 우리의 가족이 상호부조회의 수혜자가 됩니다. 저의 모친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적힌 작은 편을 제게 남겨 주셨습니다. 백 자매님께서도 제 옷깃에 달라고 조그마한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족에게 남겨 주신 영속적인 유산은 그 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작고 단순한 일을 하시며 주님께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서 사랑을 보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없었지만, 제 아내가 그 유산을 우리 두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딸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설립되고 시작된 상호부조회의 회원입니다. 백 자매님과 보좌 분들은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영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셔서 앞으로 올 세대와 절기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린도전서 13:8; 모로나이서 7:46.
2. 제4나파이 1:2~3, 15.
3.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842-Mar, 1844, 1842년 4월 28일 기록,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9쪽 참조.
4. 교리와 성약 88:52~56.
5. 모사이야서 4:26.
6. 루시 맥 스미스,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842-Mar, 1844, 1842년 3월 24일, 18~19일 기록.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 말씀에서 나온 경험과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개인 공부, 가정의 밤 및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일화가 담긴 말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교회 모임에서 풍성한 영감을 받은 스코트 장로(6)
비키 에프 마쭈모리	성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불을 사용한 헛님반 교사(10) 어린 시절, 침례 받은 후에 성신을 느낀 비키 마쭈모리 자매(10)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무거운 딸감을 등에 지고 나르는 페루 남성(12)
러셀 티 오스구토프	어린 러셀 오스구토프가 말씀을 하도록 도운 초등학교 교사(15) 선교 사업을 하던 오스구토프 장로를 도운 타히티 여성(15)
켄트 디 왓슨 장로	타이어가 왓슨 장로의 차 앞유리를 강타한 사건(38)
닐 엘 앤더슨 장로	다시 교회로 돌아온 노년의 부부(40)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소가 낮도록 기도한 패커 회장의 아들(43) 펌프 핸들 차량 때문에 생긴 위험에서 보호받은 그레이엄 독사(43)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물문경을 읽으며 큰 기쁨을 느낀 어린 시절의 월터 곤잘레스(50)
최윤환 장로	훌륭한 모범으로 성장한 "소란스러운 청남들"(5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심하게 다친 후 신권 축복을 받아 치유된 소녀(59) 청남들에게 교회에 빠진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보고를 하게 한 감독(5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분을 이기지 못해 뜻하지 않게 아들을 다치게 한 아버지(62) 자신이 받은 급료가 적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허버 제이 그랜트(6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부디 가족 중 누구도 떨어져나가지 않기를"이라고 적힌 묘비 비문(70) 병든 아내를 돌보던 아이어링 회장의 아버지(70)
엘 톰 페리 장로	배의 선체 설계를 뒤집어 유타 맨타이 성전 지붕을 설계한 노르웨이 배 건조자들(73)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자신이 정직하게 보상을 받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피아노 선생님에게 전화를 건 소녀(76) 필요한 성적을 얻지 못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십대 스키 선수(76)
앤 엠 딘	다리 발판이 무너져 목숨을 잃거나 고립된 근로자들(79)
러셀 엠 넬슨 장로	10년 전에 만난 가족을 위해 인봉 의식을 집행한 넬슨 장로(8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은퇴 후에도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잭 맥코넬 박사(84)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푼 일화들을 생일 선물로 받은 몬슨 회장(84)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수년 전 닐슨 장로가 한 도시에 대해 기도했고 그 도시에서 봉사하게 된 그의 아들(95)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의도적으로 교회 모임에 불참한 후 교회 참석, 기도,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새롭게 결심한 데일 지 렌런드(9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어린 시절 사당을 훔친 후 교훈을 배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105)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젊은 부부를 교회까지 차로 데려다 준 상호부조회 자매들(115)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노란 툴림을 가져가도록 영감을 받은 방문 교사(121)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벡
회장



비바라 톰스
제2보좌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앤 엠 덤
제2보좌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첼리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마쭈모리
제2보좌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콩키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도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청남



래리 엠 깁스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벡
회장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2보좌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각 공과는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그것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권고한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들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본다. 또한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말씀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아 본다.
-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와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9년 11월~
2010년 4월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2010년 5월~
2010년 10월

리아호나 2010년 5월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 발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09년 10월 3일과 4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된 교회 제179차 반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이 계획된 다섯 곳을 발표했다. 그 장소는 각각 미국 유타 주 브리검시티, 칠레 콘셉시온, 브라질 포르탈레자, 미국 플로리다 주 포트러더데일, 일본 삿포로 이다. 전 세계 회원들은 텔레비전, 위성, 인터넷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92개나 되는 언어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대회에 참여했다. 방송 녹음 및 녹화 자료는 DVD와 CD,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는 21개의 새로운 성전들이 완공되면 전 세계 교회 성전은 모두 151개가 될 것이다. 몬슨 회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회원들이 가능한 한 너무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고 성전에 참석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브리검시티 성전은 유타에서 14번째 성전이 될 것이며, 유타 드레이퍼 및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은 올해 초에 헌납되었다.

현재 남미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3개이며, 칠레 콘셉시온 성전은 칠레에서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브라질 포르탈레자 성전은 2007년 5월에 건축 계획이 발표된 마나우스 성전에 이어 브라질에 여섯 번째로 세워지는 성전이 될 것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4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다.

남플로리다와 바하마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이용할 플로리다 포트러더데일 성전은 플로리다에서 두 번째 성전이 된다.

일본 삿포로 성전은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 성전에 이어 세 번째 성전이 된다.

몬슨 회장은 성전으로부터 3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회원 비율이 83퍼센트에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그 비율은 전 세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재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 받은 회원들

지진과 그 여파로 일어난 쓰나미에 초토화된 사모아 섬의 후기 성도들은 연차 대회 동안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세상적인 걱정을 잠시 접어 두었다.

연차 대회 불과 며칠 전인 2009년 9월 29일에 진도 8.0의 지진이 사모아와 아피아 섬 190킬로미터 남동부 지점을 강타했다. 지진과 함께 5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네 차례나 몰려와서 태평양에 있는 1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 중 아홉 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가 사모아 섬에서 발생했다.

교회 회원들 중에서도 적어도 2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재난과 복구 작업 중에도 후기 성도들은 시간을 내어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위성으로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의 미 의회 연방 하원 의원인 에니 에프 에이치 팔레오마베게 형제는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도 대회에 참석하여 힘을 얻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동안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침착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국어로 현대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원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회원들은 재난에 피해를 입으면서도 통역을 해 준 번역팀에게 크게 감사했다.

번역팀은 이번에 솔트레이크시티가 아닌 섬에서 직접 통역을 하라는 임무를 처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재난이

재난 구조

이 섬을 강타하자 선택을 해야 했다. 통역을 솔트레이크시티에 맡기고 지진 피해를 입은 친구와 가족을 돌볼지, 통역을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번역 과장이자 통역 책임자인 엘리타시 탈라테이너 자매는 죽은 사람을 묻거나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 사항을 돌보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은 살아 있는 자들과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말했다.

통역 장비가 설치된 서비스 센터를 재난 관리팀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팀은 원격 동시 통역에 필요한 디지털 전화선과 기술 요건이 갖춰진 시설을 찾아야 했다.

탈라테이너 자매는 “비록 나무 아래에서 통역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행하겠습니다].” (니파이전서 3:7 참조)라고 말한 번역 팀의 신앙이 마치 니파이의 신앙과 같았다고 말했다.

주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한 장소를 찾아 필요한 장비를 옮겨 설치하였으며 대회를 며칠 앞두고는 장비 시험도 마쳤다.

“우리는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어요.”라고 탈라테이너 자매는 말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 재난 복구에 참여하여 대량의 청소 작업을 하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



지진과 쓰나미가 연차 대회 바로 전에 사모아 섬의 일부를 황폐화시켰다.

쓰나미, 남태평양 섬 강타

2009년 9월 29일에 일어난 진도 8.0의 지진이 남 태평양에 쓰나미를 몰고 온 후, 교회 회원들은 청소를 하면서 이웃과 함께 서로를 도우며 지냈다.

지진과 쓰나미는 수백 명의 실종자나 부상자를 내고 수많은 건물을 파괴했으며 1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모아에서 140여 명, 아메리칸사모아에서 30명 이상, 통가에서 9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다. 사모아인 22명과 인근 지역에 있는 아메리칸사모아인 4명까지, 교회 회원 26명도 사망자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음식과 물, 위생용품을 포함하여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었다. 신권 지도자들은 또한 장기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 관리 및 구호단체들과 함께 일했다. 교회는 10월 6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보낸 비행기 한 대 분의 구호품을 제공했다.

태풍, 필리핀과 베트남 강타

2009년 9월과 10월, 태풍 켈사나가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며 필리핀과 아시아 남동부를 강타하자, 교회와 교회 회원들은 구조 활동을 펼쳤다.

폭풍우는 먼저 필리핀에 상륙하여 5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고, 56만이 넘는 사람들이 600개 이상의 캠프로 피난했다. 확인된 사망자 275명 가운데 12명의 교회 회원이 있었고, 다른 14명은 실종되었다. 홍수는 회원들의 가옥 44채를 파괴했고,

다른 223채의 가옥을 손상시켰다. 최소한 25개 집회소가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그 외 25개 집회소는 임시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으로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로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약 20만 명이 중부 지방에서 피신했다. 베트남의 모든 교회 회원과 선교사들은 안전하다고 보고되었다.

그 다음 주에는 태풍 파르마가 필리핀 북부 지방에 상륙하여 최소한 160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차례의 지진으로 황폐화된 인도네시아

2009년 9월 30일에 진도 7.6의 지진이 시속 50킬로미터 속도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안을 강타했다. 다음 날에는 진도 6.8의 두 번째 지진이 근처에서 발생했다.

최소한 천백 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부상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잔해와 흙더미 속에 갇혔다. 지진은 병원, 학교, 쇼핑몰, 다리와 도로를 파괴했으며, 전선을 손상하고 산사태를 일으켰다.

교회 회원은 모두 안전하고 교회 소유물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지진의 진원지는 회원들이 있는 곳에서 80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

지진, 홍수, 태풍,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